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 031-257-1841

제171호 2020년 04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광주시(시장:신동헌)는 지난 4월9일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광주시간강가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오영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오영희 센터장, 다문화가족 대표 3명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다문화가족들은 모두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한국의 코로나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최예지 기자. 사진:광주시청

법무부, 자가격리 등 위반 외국인 강제추방 절차 진행

법무부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지난 8일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태워 강제추방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한 최초 사례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해 그 사실을 4월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터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의 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즉각 김천시 소재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하여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도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강북구보건소에서 적발하여,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4월 8일 오전에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베트남 부부를 적발하고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3월 6일부터 코

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항공편을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강제퇴거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베트남인들의 출국조치도 불가능하게 되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가 장기화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범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13, 17, 47, 38, 48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3, 18, 24, 40, 44 일본어(Japanese) 日本語 27, 29 영어(English) 19 네팔어(Nepali) नेपाल 5, 25, 3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7, 20, 29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23, 32, 37, 39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6 교육 Education 19 생활정보 Information 5 육아 Child Care 17, 22, 29, 36, 39, 44, 46 인권 Human Rights 10, 31 보건 Health 6, 20, 35 취업 Job 15 복지 Welfare 2, 4, 21, 24, 28, 29, 32, 38, 43 코로나19 Corona19 8, 11, 43, 45 외국인근로자 Foreign Worker 25 금융 Finance 18, 20 법률상식 Legal Advice 13 한국어 Korean 35 비자 Visa 1, 7, 16, 18, 23, 37, 40, 47, 48 월드뉴스 World News 14, 26

코로나19로 생계위기 맞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생활비 지원한다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도 혜택 볼까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무급 휴직자,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확보한 국비 15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 등을 고려, 각 시군마다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배정했다. 이 사업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2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고용 인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무급 휴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간 지원한다.

단, 2개 분야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는 시군별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과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지원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일수 또는 일하지 못한 날수 40일' 등으로 설정한 상태다.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해 4월 20일

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급적 4월 안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5월 10일까지 2차 모집을 벌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을 희망하는 도민은 '무급휴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청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야 대상자는 현재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또는 각 시·군별 홈페이지 및 일자리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14일 0시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40명(전국 1만5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7명이 격리 중이며, 320명이 격리 해제됐다.

송하성 기자

민간단체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경기도, 공모 통해 22개 외국인지원 단체 선정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민간단체와 손을 잡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내·외국인 간 상호이해와 화합을 도모한다. <사진은 2015년 성남의 지구촌어울림축제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할 도내 22개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공모를 추진, 전문성 및 역량 등을 심의해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한국다문화협의회,

한누리 다문화 사회적협동조합 등 도내 13개 시군 소재 22개 단체를 올해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올 연말까지 도내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률·노무 등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체육행사, 한국어 한글 한국 문화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외국인 자율방범대, 나라별 지역 커뮤니티 운영,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투입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정책과'를 노동국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 극복 위한 추가 예산확보 정대운 위원장, 불필요예산 삭감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위원장, 광명 2)의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등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기획조정실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이후 재정 악화에 대비한 도 예산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28조 977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조 939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은 1조 3642억원이며 이는 재난개발기금에서 7000억과 경제실 예산을 삭감하여 500억원을 확보했고, 재난관리기금 3857억원, 재해구호기금 2285억원이 사용된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가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진학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상담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진로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올해도 백신중학교 다문화예비학교 학생 8명을 시작으로 두 명의 강사가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이주배경청소년 22명은 예비학교를 수료하고 100% 공교육에 진입하여 중도탈락 없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진로상담서비스가 이

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는 개인상담 25회, 집단상담 52회 등 총 77회 154시간, 진로직업교육 3회, 직업체험 4회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도입국학생들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할 계획이다.

진학진로에 관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과 부모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38-9801)로 내방하거나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 내(평일 09:00~18:00) 언제나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지원하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이지는 기자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선제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 접수

고양시에서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을 고심하던 고양시는 지난 3일 요금감면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감면 계획을 확정지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 수용가 중 소상공인과 농업인이며 4월 고지분의 50% 금액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 업체들은 신청서와 자격확인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구비해 7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담당 부서는 감면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용·대중탕 업종 수용가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4월 요금 고지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신청 대상자 분들은 방문접수 대신에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신청(팩스, 이메일, 인터넷, 우편)을 적극 이용해 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31-909-9000 이지는 기자

고양시 삼송동 직능단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천 마스크 제작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동장 방상필)은 지난 8일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통장들과 부녀회원들이 모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천 마스크 만들기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인 만큼 지속적인 마스크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한 삼송동 직능단체회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마스크 제작을 위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천과 필터 등의 재료를 제공하고 30여 분 동안 제작 과정을 교육했으며, 삼송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봉틀 5대를 포함한 장비를 제공했다.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삼송동 통장협의회장은 “본뜨기와 재단, 재봉질 등 하나의 마스크를 만드는 데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300여개를 제작하려면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완성된 마스크는 관내 경로당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함께 하지 못한 통장님들과 다른 단체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수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필 삼송동장은 “이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천 마스크 만들기는 주민들의 화합과 재능 기부 의장으로 뜻깊은 자리였다”며 “함께 해주신 분들의 정성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영세 사업장 근무자, 프리랜서 지원 ‘다문화가족도 기대’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며, 지원수준은 1인당 월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최장 2개월)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10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과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두 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5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며,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소득자(월8,752천원 또는 연간 7,000만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특별지원사업 신청은 4월 20일까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접촉 방식인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하며, 이를 위해 접수 팩스 증설 및 사업장 소재지 동별 담당자 지정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 후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기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상세주소 없는 주택에 동·층·호 부여

우편물·택배 배송과 응급 상황 대응 용이해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기초조사(공부, 현지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택배 등 배송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등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구분돼 있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후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외에도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여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락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토지정보과(031-8075-3098)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다문화가족도 쌓이는 통장, 크는 희망

차상위 희망키움통장(II) 가입 희망자 모집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윤양순)는 오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차상위 자산 형성 희망키움통장(II) 사업 2차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II)는 근로 빈곤층의 생계·의료 수급 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다.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1,757,194원이며, 가입 기준 소득 상한은 878,597원이고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상

한은 2,709,404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를 할 경우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근로장려금(최대 3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 발생 즉시 해지가 결정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상담하면 된다.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은 “희망키움 II 사업을 통해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지는 기자

방문 즉시 바로 지급되는

고양시위기극복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양시민 누구에게나 1인당 5만원 지급!

위기극복지원금 ₩50,000

지급대상 2020년 4월 1일 24시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

신청기간 4. 14 ~ 7. 31 / 평일 09:00~20:00, 주말·공휴일 09:00~18:00
(단, 4. 15 선거일 신청 불가) ※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18일~7월 31일은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 가능

신청 및 접수 가급적 세대단위 신청 권장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체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서 인정(동거인 제외)

사용기한 수령일부터 8. 31까지(기간 경과 시 카드 중지 및 미사용 금액 자동 환수)

사용처 고양시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대형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매장, 온라인 가맹점 등 제외)

사용카드 일회성 선불카드 ※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훼손 시 해당 은행에서 교환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 서명)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 방문 → 신분증 및 서류 확인·제출 → 세대원 및 지급액 확인 → 선불카드 수령 → 즉시 사용 가능 사용 중 카드 변경 불가

신청일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출생연도 기준

세대원 수	접수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4인 이상 세대	4.14 ~ 4.19			5인 이상 세대만	선거일(휴무)	4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전체	
3인~2인 세대	4.20 ~ 4.26	생년월일 (1.6)	생년월일 (2.7)	생년월일 (3.8)	생년월일 (4.9)	생년월일 (5.0)	2인 이상 세대 전체	
1인 세대	4.27 ~ 5.3					5.1 근로자의 날 09:00~18:00	1인 이상 세대 전체	
전체	5.4 ~ 5.17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5.18 ~ 7.31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미착수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부제에 따른 방문 신청 시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위기극복지원금 신청 가능

참고

- 미성년자·군복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
- 어르신, 거동 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지참)

※ 카드 배부 첫날인 4월 14일 화요일은 5인 이상 세대만 우선 지급합니다.

※ 신청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인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민원콜센터 | 031-909-900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안내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지원
서비스 대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행정·사법 기관 이용시 통번역 ▶ 병역,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이용시간	9:00 ~ 18:00 (월 ~ 금)
서비스 유형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goyangtmfc@hanmail.net), 팩스, 출장(외부) ※ 사전예약 필수!

통번역서비스가 -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인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요청
제외되는 경우 - 무료를 약속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 본청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 법적 책임 및 공증번역자 확인서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 불가

문의처 : TEL : 031)938-9805~6. FAX : 031)938-9803
<http://goyangsi.liveinkorea.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27 경천빌딩(4층)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Goya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고양시 도시발전사업부

☰ **उपयोगी जानकारी**

बहुसांस्कृतिक किन्डरगार्डेन

बहुसांस्कृतिक किन्डरगार्डेनको रूपमा संचालित किन्डरगार्डेनमा नुरि कोर्स मार्फत बहुसांस्कृतिक शिशुहरुको लागि भाषा तथा आधारभूत सिकाई जस्ता शिशुलाई अनुकूल हुने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का साथै सम्पूर्ण शिशु तथा अभिभावकलाई बहुसांस्कृतिक सम्बन्धि बुझाई कार्यक्रम संचालन गरिएको छ। कोरियाभर 131 वटा किन्डरगार्डेनलाई बहुसांस्कृतिक किन्डरगार्डेनको रूपमा निर्धारण गरिएको छ भने, नगरपालिका र प्रादेशिक शिक्षा कार्यालय तथा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टल (www.nime.or.kr) मार्फत आफू बसोबास गर्ने क्षेत्रको बहुसांस्कृतिक किन्डरगार्डेन पत्ता लगाउन सकिन्छ।

2. बाल रेखदेख सहूलियत/विद्यालय शिक्षा सहूलियत प्रदान गरिने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हुनुपूर्व बालबालिकाहरु (0-5 वर्षका) नर्सरी (0-5 वर्ष) वा किन्डरगार्डेन (3-5 वर्ष) मा भर्ना हुन सक्छन्; राष्ट्रले प्रत्येक उमेर समूह अनुसार उनीहरुको रेखदेख वा शिक्षाको सम्पूर्ण खर्चमा सहूलियत प्रदान गर्छ । दिवा रेखदेख केन्द्र वा किन्डरगार्डेनहरुको प्रयोग नगर्ने अभिभावकहरुको बाल रेखदेख खर्चको भारलाई कम गर्न परिवार स्याहार सहूलियत प्रदान गरिन्छ ।

(1) बाल रेखदेख सुविधा

नर्सरी यस्तो संस्था हो जसले 0-5 वर्षका बालबालिकाहरुका लागि रेखदेख तथा शिक्षा प्रदान गर्छ । कुनै बच्चा नर्सरीमा भर्ना हुँदा सरकारले लागतमा सहूलियत दिन्छ ।

☉ **सहयोग योग्य व्यक्ति।**

किन्डरगार्डेन जाने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 जानु अघिको 0~5 वर्षको बच्चा निम्न अनुसार योग्य भएमा बाल रेखदेख सुविधा प्राप्त गर्छ

- शिशु भएको परिवारको आय वा सम्पत्तिमा सरोकार नराखी उमेर अनुसार गरिने सरकारी सहयोगमा 0~2 वर्षका बालबालिका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वारका बालबालिकाहरु सहित) लाई 250,000~441,000 कोरियन वन, 3~5 वर्षका बच्चा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वारका बच्चा सहित) लाई नुरी साझा कोर्स अन्तर्गत मासिक 220,000 कोरियन वन र 12 वर्ष वा सो भन्दा कम उमेरका विधालय नगएका बालबालिकाहरुको लागि 449,000 कोरियन वन रहेको छ ।

- ※ '16.7 देखि 'मिलाएको बाल स्याहार' सुरुवात संगै 0~2 वर्षका बच्चाको स्याहार अनुसार दिनभरि कक्षा (07:30~19:30, 12 घण्टा) र अवस्था अनुसार कक्षा(09:00~15:00, 6 घण्टा) आदि बाल स्याहार सेवा प्रदान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वार ले दिनभरि कक्षा लिन सकिन्छ)

गर्भावस्था तथा बालकको रेखदेख

(एकाई : वन)

क्रम	सहयोग एकाई		अपाङ्ग बाल स्याहार रकम	नोट
	दिनभरि कक्षा	अवस्था अनुसार कक्षा		
0 वर्ष बाल स्याहार रकम	441,000	344,000	449,000	-
1 वर्ष बाल स्याहार रकम	388,000	302,000		
2 वर्ष बाल स्याहार रकम	321,000	250,000		
3~5 वर्ष बाल स्याहार रकम	220,000			

- 5 वर्षमुनिका अपाङ्ग कल्याण कार्ड (दत्ता प्रमाणपत्र) भएका अपाङ्ग बालबालिकालाई बाल रेखदेख सुविधा प्रदान गरिन्छ तथा यो सुविधालाई पारिवारिक आयले कुनै असर गर्दैन । यस्तै, अपाङ्गता वा अन्य समस्या भएका व्यक्तिहरुको विशेष शिक्षा कानूनको दफा 15 अनुसार विशेष शिक्षाको हितग्राहीको रूपमा पहिचान भएका 3-5 वर्षका बालबालिकाहरुको सन्दर्भमा भने एउटा अपवाद लागू हुन्छ; यी बालबालिकाहरुले निदान वा मूल्याङ्कनको परिणाम पेश गरेपछि बाल रेखदेख सुविधा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छन् । यसका अतिरिक्त, अपाङ्ग कल्याण कार्ड वा विशेष शिक्षाको निदान वा मूल्याङ्कन प्रतिवेदन नभएका 5 वर्षमुनिका बालबालिकाहरुले भने चिकित्सकले दिएको अपाङ्गताको निदान पेश गरेपछि सुविधा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सक्छन् ।

☉ **आवेदन प्रक्रिया**

अभिभावक (बा-आमा वा अन्य अभिभावक) आफू बसोबास गर्ने ठाउँको सामुदायिक सेवा केन्द्रमा गएर आवेदन दिने वा बोकजिरो (www.bokjiro.go.kr), आईसारंग मोबाइल एब (एन्ड्रोइड मार्केट डाउनलोड) मार्फत इन्टरनेट आवेदन गर्न सकिन्छ । यद्यपि, अपाङ्गहरुको रेखदेख लागतको समर्थन प्राप्त गर्न चाहने दत्ता नगरिएका अपाङ्ग बालबालिकाहरुले अनिवार्य रूपले तोकिएको स्थानमा भ्रमण गरेर आवेदन दिनु पर्छ (अनलाइन आवेदन उपलब्ध छैन) ।



☉ **पेश गर्ने कागजातहरु**

सामाजिक कल्याण रकम (सामाजिक कल्याण सेवा टिकट) आवेदन(परिवर्तन) पत्र, दिनभरीको लागि कारणपत्र तथा योग्य प्रमाणपत्र (दिनभरीको लागि योग्य आवेदन गर्दा), आई हेंगबोक कार्डको लागि आवेदन तथा खोज-प्रदान-प्रयोग सहमतिपत्र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योग्य व्यक्तिलाई आइ ह्याङ्गबोक कार्ड प्रदान गरिन्छ नर्सरी विद्यालय प्रयोग गर्दा प्रत्येक महिना आइ ह्याङ्गबोक कार्डबाट अभिभावकहरुले कार्डको सहायताले बाल रेखदेख शुल्क तिर्न सक्छन् (कार्ड खातालाई सरकारी सहूलियत प्रदान गरिन्छ।)

(2) बाल शिक्षा लागत सुविधा

☉ **सहूलियतको क्षेत्र**

उमेर	विभाजन	समर्थनको क्षेत्र
3~5 वर्षको पूरै	शिशुहरुको पढाई शुल्क	अभिभावकहरुको आय स्तरलाई छयाल नगरी राष्ट्रिय-सार्वजनिक-निजी किन्डरगार्डेन जाने 3-5 वर्षका शिशुहरुलाई सहयोग गर्न ।
	विद्यालयपछिको कोर्सको पढाई शुल्क	किन्डरगार्डेन शिक्षापछि सञ्चालन गरिने विद्यालय पछिका कोर्सहरुमा भर्ना हुने (प्रति दिन आधारभूत कोर्स सहित 8 घण्टा भन्दा बढी (बाबु-आमाको सहमति भएमा 7 घण्टा)) सहयोग

- ※ कोरियन गणराज्यको नागरिकताविना (शरणार्थी यसको अपवादमा पर्दछन्) शिशुहरुका लागि ट्युसन सहयोग उपलब्ध गराइने छैन।

☉ **समर्थन रकम**

(एकाई: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शीर्षक	उमेर	जन्म मिति	सहूलियत रकम (मासिक)	
			राष्ट्रिय तथा सार्वजनिक किन्डरगार्डेनहरु	निजी किन्डरगार्डेनहरु
पढाई शुल्क	उमेर 5	सन् 2012 जनावरी 1 तारिख ~ डिसेम्बर 31 तारिख	60,000	220,000
	उमेर 4	सन् 2013 जनावरी 1 तारिख ~ डिसेम्बर 31 तारिख		
	उमेर 3	सन् 2014 जनावरी 1 तारिख ~ सन् 2015 फेब्रुअरी 28 तारिख		
कक्षा-पछिको कोर्सको पढाई शुल्क	3 र 5 वर्ष बीच	सन् 2012 जनावरी 1 तारिख ~ सन् 2015 फेब्रुअरी 28 तारिख	50,000	70,000

☉ **आवेदन प्रक्रिया तथा तरीका**

- (आवेदन) अभिभावकले आफ्नो बसोबास स्थानमा रहेको एउप, म्योङ्ग तथा डोङ्ग सामुदायिक केन्द्रहरुमा वा अनलाइन आवेदन (www.bokjiro.go.kr) मार्फत आवेदन दिनसक्छन्।

गर्भावस्था तथा बालकको रेखदेख

- (सुविधाको निर्णय) हितग्राहीको जन्म मिति पुष्टि
- (समर्थन) प्राप्त परिवारले अनिवार्य रूपले शुल्कबाट बाल रेखदेख सुविधा घटाएर बाँकी रहेको मौज्जात किन्डरगार्डेनमा पेश गर्नुपर्छ ।
- ※ **विद्युतीय कार्ड (I-ह्याङ्गबोक कार्ड) को माध्यमबाट प्राप्त पुष्टि तथा सुविधा रकमको पुष्टि/आवेदन**

(3) घरेलु रेखदेख भत्ता

- ☉ **सहयोग योग्य व्यक्ति:** नर्सरी-किन्डरगार्डेन-दिनभरी बाल स्याहार सेवाको प्रयोग नगर्ने विधालय जानु अघिका 84 महिना मुनिका बालबालिका

☉ **समर्थन रकम**

- घरेलु रेखदेख भत्ता: 12 महिना भन्दा कम उमेरको (2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 महिना), 12~24 महिना (15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 महिना), 24~84 महिना (1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महिना)
- अपाङ्ग बालबालिकाको भत्ता: 36 महिनाभन्दा कम: 2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महिना, 36~84 महिना: 1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महिना
- कृषि तथा माछापालन क्षेत्रहरुमा दिइने भत्ता: 12 महिना भन्दा कम उमेर(200,000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 महिना), 12~24 महिना भन्दा कम उमेर(177,000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 महिना), 24~36 महिना भन्दा कम उमेर(156,000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 महिना), 36~48 महिना भन्दा कम उमेर(129,000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 महिना), 48~84 महिना भन्दा कम उमेर(100,000 कोरियाली वन प्रति महिना)

(एकाई: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उमेर	घरेलु रेखदेख भत्ता	उमेर	कृषि तथा माछापालन क्षेत्रहरुमा दिइने भत्ता	उमेर	अपाङ्ग बालबालिकाको भत्ता
0-11 महिना	2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0-11 महिना	2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0-35 महिना	2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12-23 महिना	15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12-23 महिना	177,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24-35 महिना	1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24-35 महिना	156,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36-84 महिना	1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36-47 महिना	129,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36-84 महिना	1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48-84 महिना	100,000 दक्षिण कोरियाली वन		

2020.3.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1/9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3.24.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70%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6/9

2020.3.24.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준비물품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타월)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3/9

2020.3.24.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10ml+찬물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7/9

2020.3.24.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4/9

2020.3.24.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8/9

2020.3.24.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5/9

2020.3.2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청소·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9/9

고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상담 청소년전화1388 불안 청소년 대상

고양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준)이 운영하는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황상하, 이하 센터)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전화1388’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관내 청소년들은 고민이 있거나 심리적 문제로 힘들 때 언제든지 청소년전화1388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위기(가능)청소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전화1388 전화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누구나 불안함과 답답함, 우울함 뿐 아니라 친구관계, 학업문제, 진로,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성폭력,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문제 등에 대해 국번 없이 1388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간편 심리검사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s://www.cyber1388.kr:447>)로 접속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간편 검사 이후 심층 심리검사나 대면상담을 받고 싶다면 센터(전화 970-4002, 979-1318)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서비스 법무부 통역지원단 구성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역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해 6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통역지원단은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또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대 1로 매칭해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ระงับชั่วคราว 'วีซ่าระยะสั้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ตั้งแต่วันที่ 13

151 ประเทศ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 90 ประเทศได้รับอนุญ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ตกลงที่จะระงับผลกระทบของวีซ่าระยะสั้นชั่วคราว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การติดเชื้อ coronavirus ใหม่ (corona19)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9 ว่าจะระงับผลกระทบของวีซ่าระยะสั้นชั่วคราวจาก 00:00 น. (เวลาออกเดินทางปัจจุบัน) ในวันที่ 13

ดังนั้นในภารกิจทางการทูตเกาหลีทุกแห่งทั่วโลก (สถานทูตสถานกงสุลและอื่นๆ) ระยะเวลา 5 วันที่ผ่านมามีวีซ่า

ระยะสั้นที่ออก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อยู่ภายใน 90 วัน) จะถูกระงับชั่วครา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ถือวีซ่าจะต้องยื่นขอวีซ่า

อีกครั้งที่สถานทูต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ตัดสินใจที่จะไม่รวมวีซ่าและวีซ่าระยะยาว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การลงทุน ฯลฯ) ที่มีคุณสมบัติเหมาะสมสำหรับการจ้างงานระยะสั้น (C-4) เช่นช่างเทคนิคระดับสูงที่ได้รับเชิญจากบริษัทในประเทศนอกจาก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ข้าพำนัก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แล้วจะอยู่ในเกาหลีภายในขอบเขตของระยะเวลาที่ได้รับเมื่อ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นอกจาก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ยังมีมาตรการ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การยกเว้นวีซ่าสำหรับภูมิภาคนิยมกำ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ฟรีวีซ่า

เมื่อมี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ข้อจำกัดการสละสิทธิ์ชั่วคราวของวีซ่าได้ถูกนำไปใช้จากทั้งหมด 151 ภูมิภาคมีการ

ลงนามข้อตกลงการสละสิทธิ์วีซ่ากับ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หรือ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อนุญาตให้เข้าเมือง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มาตรการยกเว้นฟรีวีซ่าถูกระงับชั่วคราวสำหรับ 90 ประเทศ

90 ประเทศที่มีการสละสิทธิ์ฟรีวีซ่าชั่วคราวผู้ถือ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จะต้องได้รับวีซ่าจากคณะผู้แทนทางการทูต

เพื่อ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วีซ่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สำหรับ •ผู้ถือ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ราชการ, พนักงานต้อนรับบนเครื่องบิน,

พนักงานของสายการบินที่เข้ามาและผู้ถือบัตรเดินทางของนักธุรกิจของ APEC จะได้รับยกเว้นวีซ่า

นอกจาก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ตัดสินใจเสริมใบรับรองแพทย์ที่ออกโดย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แพทย์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จะยื่นขอวีซ่าเพื่อ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ขอวีซ่าในอนาคต

ผู้ยื่นขอวีซ่าจะถูกตรวจโรคโดยสถาบั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ภายใน 48 ชั่วโมงนับจากวันยื่นขอวีซ่าประวัติและไข้ไอ, หนาวสั่น, ปวดหัว, ปวดกล้ามเนื้อโรคปอดบวมเป็นต้นคุณควรส่งใบรับรองแพทย์ที่ไม่มีอาการ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 Corona19 หากมีการค้นพบข้างต้นที่คุณ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การยกเลิกออกวีซ่าหลังจากได้ยื่นขอวีซ่าคณะทูตตัดสินใจที่จะตรวจสอบเป็นที่เพียงพอเช่นการสัมภาษณ์สถานะสุขภาพเพื่อตัดสินใจว่าจะอนุญาตให้หรือไม่

พิเศษสำหรับวัตถุประสงค์ทางการทูตและกิจ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และการลงทุนและการจัดหาเทคโนโลยีฯ, กิจกรรมทางธุรกิจที่จำเป็นเราจะออกวีซ่าทันทีตามดุลยพินิจของ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แห่ง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สำหรับกิจกรรมทางธุรกิจที่จำเป็น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พลเมืองของเราหรือสำหรับผู้ที่มีเหตุผลเร่งด่วนหรือมีมนุษยธรรม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มุ่งมั่นที่จะปิดกั้นการขึ้นเครื่องโดยอัตโนมัติผ่าน 'ระบบตรวจสอบผู้โดยสารก่อนล่วงหน้า (IPC)' บล็อกการออกบัตรผ่านขึ้นเครื่องโดยอัตโนมัติสายการบินจะจำกัดการขึ้นเครื่องในช่วงออกตัว

เจ้าหน้าที่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กระทรวงที่เกี่ยวข้อง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ขนส่ง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ประมง) และสายการบิน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ที่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มาตรการข้างต้นผ่าน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ท้องถิ่น "เราวางแผนที่จะแจ้งให้เจ้าของเรือทราบและ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ปฏิบัติตามข้อผูกพันที่เกี่ยวข้องเช่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ว่ามีวีซ่าหรือไม่" <한글 기사 23면>

이아리 기자

"집에서도 문화생활 즐기세요"

다문화가족도 문화누리카드로 즐겨요~



확대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블로그(<http://blog.naver.com/munhwanuricard>) 및 문화누리카드 사이트(<http://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급되는 카드로 1인당 9만원씩 지급되며, 공연과 영화, 전시장 관람은 물론 체육 분야와 도서 및 음반구입, 관광여행을 위한 숙박, 시외버스, 철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확대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고, 사용자들이 가정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또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mnuri.c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취약계층 돕기

고양도시관리공사, 다문화가족 등 돕기 나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중) 전 임직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 돕기에 적극 나섰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전 임직원이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모금한 512만여 원을 사내 봉사단체인 시민섬김봉사단을 통해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서북봉사관에 기부했다.

기탁된 성금은 고양지역 저소득 조손 가정, 다문화가족, 홀몸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게 각종 생필품과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홍중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0일과 18일 임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했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안심마스크 만들기에 총 5회에 걸쳐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3월 31일 쇠퇴지역 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취약계층 주거복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 내 쇠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주택형'과 '집단취락형'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됐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코로나 예방 위해 시민 모두에 마스크 1개씩 배부한다

윤화섭 시장,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 8만 8천명 지원도 검토 중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려되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면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안산시는 감염병 고위험군인 임신부와 어린이, 다자녀가정 등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1개씩 지급되는 면 마스크는 65만개의 물량이 확보됐다. 당초 안산시는 415 총선 투표소 앞에서 투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

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방침 결정을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

시민에게 지원되는 면 마스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오는 24일까지 415 총선 사전투표기간(4.10~11)과 선거일(4.15)을 제외한 평일에 25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면 마스크는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 등이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 지급 대상은 이달 6일 0시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소를 둔 시민으로 마스크 이종지급, 누락, 분실 방지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별 명부를 확인 후 지급된다. 배부는 주차장 또는 야외마당에서 부스를 통해 이뤄지며 가구원 중 1명이 방문하면 전체 가구원이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과 물량 확대 등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품귀 완화와 함께 마스크 수급이 상당 부분 수월해졌으나 여전히 마스크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

해 저소득 주민, 면역력이 약한 독거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에 모두 293만 개의 마스크를 배부했으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4월 10일부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 셋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가구원 1인당 KF94 마스크 2개와 가구당 손소독제 2개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 구성원이 많아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외국인주민 8만8천여 명에 대해서도 면 마스크 지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방역에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며, 마스크 배부를 이어가 시민들의 마스크 수급 등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집중 방역을 하는 등 안전 안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안산시, 해외 입국 외국인에 맞춤형 통역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차단 위해 4월 13일부터 거주 외국인주민 전문통역요원 배치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에게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월 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를 거쳐 격리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입소하고 있다. 4월 13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무증상으로 공

항 검역소를 통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공항을 나온 무증상 외국인이 입국자 전용공항버스 7000번을 타고 관내 지정 주차장에 내리면 전문통역요원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 격리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에서 제공하는 전용 차량으로 안전하게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사회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문통역요원은 영어-베트남어 각 2명씩 구성돼 버스 운행시간에 맞춰 오전 8~오후 3시, 오후 2~9시로 나뉘어 언어별 1명씩 편성, 2개조로 운영된다.

안산시는 이와 함께 9일부터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렛 4천부를 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비치하고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안내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이탈사고 예방과 건강상태 및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 모니터링을 추가하고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

시 이들의 향수를 달랠 해당 국가의 식품도 추가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외국인 자가 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전국적으로 해외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지만 안심 귀가 서비스와 안심 숙소 제공 등 방역과 자가격리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전날 기준 관내 해외입국자 207명 중 외국인은 66명으로 약 32%를 차지하는 등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해 보건소에도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통역 요원을 배치하고 외국인 방문객 안내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준수사항 안내, 건강상태 확인 및 생필품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비전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국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국인주민, 마스크 없어 고통받지 않도록!

안산시와 안산이주민센터, 이주민에 마스크 전달

안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하면서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으나, 수요에 비해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산시는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4만2천186명, 중증장애인 2천969명, 등록상인회 3천932명, 65세 이상 어르신 6만6천여명 등에게 총 37만5천671개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택시·버스기사에게도 총 3만4천34개를 지급했다.

안산시는 현재까지 취약계층, 임신부, 장애인 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모두 293만6천982개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13만1천476개 등을 배부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주민 단체를 통한 마스크 배포도 진행되고 있다.

(사)안산이주민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민 감염예

방을 위하여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후원 받은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무료로 전달하고 있다.

이번 나눔에는 힘내라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안산이주민센터는 먼저 태국, 필리핀, 아프리카, 스리랑카, 몽골, 중국 등 각 나라별 공동체 대표들을 통해 수요를 조사한 뒤 물품을 전달했다.

센터 관계자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이주민센터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국경 없는 평화와 공동체, 노동,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공적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추후 수급 상황을 검토해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가 지급에 노력하겠으며, 시민 모두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40만원 지원, 다문화가족도 기억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9~71개월 이하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다.

대상 아동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해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대상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영유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5-5976), 단원보건소(031-481-6473-647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2020 안산 방문의 해 기념’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모집

1천만 원 지원, 외국인주민 대상 여행사 운영하고자 하는 이주민 도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0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마케팅을 추진할 전담 여행사를 선정한다.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주민들도 지원해 볼만 하다.

전담 여행사 선정은 여행객 유치와 상품개발 등에 뛰어난 여행전문 업체의 노하우를 시정에 도입,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가 처음 시도하는 관광마케팅이다. 안산시는 적극적인 마케팅

로 관광객 유치 등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1개소를 지정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시와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기획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마케팅을 추진한다. 여행사에게는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인증서 발급, 국내외 설명회·홍보관 참여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안산시 후원 로고 사용 등 행정지원을 비롯해 상품 홍보비 1천만 원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 대상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국의 모든 일반여행업 등록업체로, 최근 1년간 사업정지 10일 이상 등 행정처분 내역과 지방세 체납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전담 여행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3일까지 안산시 문화·생태·해양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안산형 여행상품과 홍보 마케팅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제안서를 이메일(modeco8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 관광객 유치실적

등의 실적평가와 ‘2020년 안산시 체류형 상품 운영계획’ 제안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다음달 3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민간의 상품기획 개발·판매 역량과 안산시가 협업해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참신한 상품과 마케팅 노하우가 있는 전문 여행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 제출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안산시청 관광과(031-481-305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에 이어 세계 45개국 주한외교대사들을 초청해 ‘2020 안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올해를 ‘안산 방문의 해’로 운영하며 연 8백만 명이 방문하는 대부도를 비롯해 안산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 더 나은 사회 만들어요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원격 화상회의로 제1차 회의 개최



지난 4월 2일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올해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갈등을 협치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성공회 살림의집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흥동기 과장,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 박정해 법률사무소의 박정해 변호사, 경기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의 신상록 대표, 법률사무소 지율의 김예진 변호사, 경기도인권센터의 허선행 센터장,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현주 센터장, 신한대학교 이경숙 교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김윤영 소장 등 외국인 및 다문화 인권 분야의 전문가 11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참고인으로는 재단법인 동천 소속 이택건 변호사가 함께했다.

지난해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쓰레기 배출 문제, 구직활동시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부재에 관한 안건 등 이주민 및 외국인의 생활과 관련된 15건의 의제를 발굴하고 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올해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기도 했다. 외국인 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2015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언급됐던 사안으로,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택건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은 차별 및 혐오 문제와 관련한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문제 해결의 선순위로 꼽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한 공론의 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올해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숙의를 통한, 문화적 갈등에 대한, 자율적 관리와 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 활동이 숙의민주주의의 단초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예지 기자

코로나19 안심정보 안눈에 다문화가족도 전용홈페이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부정확한 뉴스,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정확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4월 6일 안산시는 시민에게 코로나 19 상황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감염자 현황과 감염병 예방수칙 등 정보를 게시한 이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꾸준히 늘리고 시각적인 효과도 더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코로나19 비상대책 게시판 내 선별진료소 현황, 자가 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우리동네 방역지도, 코로나19 상황판 등 다양한 안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안산시는 해당 공간을 통해 확진자 이동경로, 상황보고, 일일방역현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예지 기자

새일 새일을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 국제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훈련기간: 2020.05.11~2020.07.20 (50일, 200시간)
 훈련시간: 13:40~17:40 (월~금)
 대 상: 결혼이민여성 (F-2, F-5, F-6, 국적취득자)
 접수마감: 2020.05.04 (면접일: 05.06)
 교육내용: ITQ 엑셀자격증/ 한글기본 실무 익히기
 무역개요 및 법규/ 무역계약
 국제운송/ 해상적하보험/ 무역결제방식/ 무역용어
 선적서류작성/ 무역클레임
 교육비: 무료 (교재비 포함)
 교육혜택: 무료 취업알선,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 참여기회 (월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접수(신청서, 이력서, 사진2매)
 국적취득 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국적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수강문의: 031-439-2060 (담당자: 070-4924-9010)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안산시청 건너편 KDB건물 3층)
 Tel. 031-439-2060 Fax. 031-439-2061 홈페이지: www.ansanwomen.or.kr/

안산시 도서관

확대 운영 안산시 도서관

안심예약대출 서비스

문의전화: ☎1666-1234

신청일 다음 날에 책 받아주세요!

토요일에 받고 싶다면, 금요일에 신청하세요.
 신청일시: 월~토요일 9시~14시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외 신청은 자동 취소]
 신청권수: 1인 3권, 14일간 대출 [각 도서관 소장도서만 가능 / 대출 중인 자료는 자동 취소]
 [상호대차 불가, DVD 및 딸림자료 불가]

도서관 방문 시 마스크는 필수!!

안산시 도서관 6개관에서!
 장소: 중앙, 감골, 관산, 성포, 상록어린이, 단원어린이
 수령시간: 월~토요일 10시~17시 [일요일, 공휴일 제외]
 [토요일 신청은 다음주 월요일에 수령 / 미수령시 7일간 신청정지]

신청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로!

각 도서관 홈페이지 (lib.ansan.go.kr) 또는 리브로피아 신청	신청한 도서를 소독 후, 안내 문자 발송	안내 문자 수신 후, 다음 날까지 대출 (도서관회원증 지참)	각 도서관 무인반납기 또는 타 도서관 반납 가능
도서 신청	도서 준비	수령	반납



For Entrants to Korea

Instructions for Quarantine Subjects

You should go into quarantine for 14 days following entry to prevent infection with COVID-19 in accordance with the Quarantine Act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For example, if you arrived on 1 April, you are required to home quarantine (self-quarantine) until 23:59 of 15 April

Precautions for Arrival at Airport

- Foreign nationals for short-term stay should go into isolation at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t their own expense.

Note) Exempted from quarantine* among short-term foreigners should undergo the diagnostic tests and be under active surveillance in which designated public officials check on their health conditions for 14 days.
 *Exempted from quarantine: Entrants acquiring pre-approved waiver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ose holding A1 (Diplomat), A2 (Government official), or A3 (Agreement) visa or acquiring "self-quarantine exemption document" in advance of entry issued by the Korean Embassy.

- Foreigners who are long-term should go into self-quarantine in their homes.
- Must wear a facemask all the time and minimize contact or conversation with others.
- The diagnostic tests will be conducted on symptomatic arrivals identified at the Quarantine stage and foreigners arriving from Europe, including even Asymptomatic ones.
*The following measure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 Asymptomatic entrant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except for Europe should Undergo the diagnostic tests when any symptom appears while being quarantined In homes or facilities.
- When heading to home, using your private car or should use specially designated airport limousine bus and KTX (designated cars).
*You should directly go home and dropping by other places is not allowed.
- Right after arriving home, should dial to local health centers and inform them you are under quarantine.
- Should move to the designated quarantine facilities by specially designated cars.
- Install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ndatorily.

Android



http://url.kr/5mtzH

iPhone



http://url.kr/f7dmWs

Usage of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Self-quarantine subjects among entrants from abroad are mandated to install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follow self-diagnosis and self-quarantine rules for 14 days. (ID : CORONA)

- Follow self-diagnosis and self-quarantine rule for 14 days.

(Front)

April 7, 2020



For Entrants to Korea

Instructions for Quarantine Subjects

Guideline for Quarantine Subjects

Guideline for Quarantine

- Refrain from going out of the isolation place to prevent infection from spreading
- Self-quarantine subjects should stay in a separate place and common rooms are frequently ventilated
- If it is not possible to stay alone in a separate place, ask help from local health centers
- In case outing is necessary, such as medical appointment, make sure you contact to local health center first
- Avoid sharing your personal items (personal towels, eating utensils, cell phones, etc.) with your family members or housemates
- In case of symptoms such as fever, cough, respiratory difficulties, immediately report to the local health center

Guideline for Families and Housemates of Quarantine

- Family members or housemates refrain from contact with self-quarantine subject as much as possible
- When contact with the subject is unavoidable, wear a facemask and maintain a 2-meter distance
- Closely monitor health condition of self-quarantine subject
- Frequently clean commonly touched surfaces including tabletops, door knobs, bathroom fixtures, keyboards, and etc.
- If your work involves coming into contact with many people or if you work in a publicly used venu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chool, private classes, preschool, kindergarten, social welfare facility, postpartum care center, and healthcare institution), you need to limit or reduce your work capacity as best as possible to minimize contact until the end of the quarantine period.

Guideline for Quarantine Subjects

-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over 30 seconds
- Cover your nose and mouth using your upper sleeves when coughing
- Do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 Frequently ventilate your rooms
- Wear a mask in case any symptom appears including fever, or respiratory symptom, or you visit a medical institution

If you do not fully comply with those stated above, you will face up to 1 year in prison or a 10-million won fin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In case the infectious disease spreads or additional infection control measure is implemented including facility closure due to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such violators may be subject to claims for damages. Also, they could face cancellation of visa (residency status), deportation, or ban on reentry into Korea, etc.

(Back)

April 7, 2020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귀하는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ex: 4월 1일 입국하신 분은 4월 15일 23:59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 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를 실시
-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 이용하기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
-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

격리자 생활수칙

- 격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

(앞)

발행일 2020.04.07.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입국하신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url.kr/5mtzH

아이폰



http://url.kr/f7dmWs

ID : CORONA | 다운로드: 스토어*에서 '자가격리자' 검색 * 안드로이드(Android), 아이폰(iOS)

(뒤)

발행일 2020.04.07.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글로벌 청소년센터는 온라인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사실 안녕! 한국어 예비 학교는 한국에 와서 처음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있으면 집단 지도가 힘들 때가 있었는데, 1:1 수업으로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집중력이 오프라인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집중 과외를 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는 새로운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상황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랩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영상으로 만나려니 서로 어색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수업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발음이나 듣기 등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수업, 아직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꿈빛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격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원격교가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격교에서 꿈빛학교로 위탁 신청서를 보내주어야 그 신청 절차에 따라 학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교에서 아직 학생을 만나보지 못해 그 학생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신청서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4월9일 원격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되면 신청서를 받아 4월16일 온라인 개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빛학교 한국어 교사 김지혜

NAVER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안녕! 한국어 예비학교 #꿈다리 학교 #꿈빛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3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안녕! 한국어 예비 학교**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14세 ~ 24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지원 하는 안녕! 한국어 예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꿈다리 학교**
 안산시내 이주배경 청소년(9세 ~ 24세)중 공교육진학이 어렵거나 중도 이탈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검정고시를 통해 초·중·고 졸업 학력 취득을 지원 하는 꿈다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꿈빛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경기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원격 학교로 재진입하도록 돕는 꿈빛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개학 연기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인 꿈다리 학교와 안녕! 한국어 예비학교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준비 중인 꿈빛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꿈다리 학교는 가장 먼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했어요. 4월에 예정되었던 검정고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로 연기 되었지만 선생님들과 학생의 공부열의는 또 더 뜨겁습니다. 선생님들은 SNS를 통해 과제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영상 수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 시 접근이 원활한 SKYPE, 위챗 어플을 파악한 후 각 교과 선생님과 영상 공기는 없는지, 마이크는 잘 나오는지 등 테스트를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종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반을 편성하고 수업 시간을 정하였고 교재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집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교재를 전달한 후 노트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꿈다리 학교 국어 교사 조영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진행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안녕! 한국어 예비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수업 준비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이야기를 피드백 삼아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에서 신청서를 받게 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해 소그룹으로 구성해 센터 방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센터에 와서 한국어 수준 평가를 진행한 뒤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인데 이때 학생들에게 교과서도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등 여러 과목은 교과서가 있어야 온라인 수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교재가 있다면 복습이나 예습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준비 없이 선생님 수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빛학교는 수준 평가 시험을 보고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 ZOOM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한국어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일대일로 수업을 진행 하여 한국어 실력 향상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준비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수준에 맞춰 수업준비를 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ZOOM 사용법을 학생들이 잘 숙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어 쓰기, 말하기 수업은 온라인으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정확한 발음으로 들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발음이 부정확한데 선생님이 1:1로 피드백 하기 어렵고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할 때 시자료가 많이 필요할 텐데 저작권법을 생각하여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녕! 한국어 예비 학교 참여 희망 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욕구 조사를 진행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한국어 수준을 파악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수업 참여 가능한 시간과 온라인 수업 시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확인 하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카카오톡 또는 위챗(중국 메신저)을 선호하였습니다. 수업 전 학생들에게 PPT 형식으로 제작된 수업자료를 배포하고 전화로 수업 시작을 알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이 칠판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삼각대와 핸드폰을 설치한 후 카카오톡 또는 위챗으로 1:1로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 한국어 예비 학교 한국어 교사 이상희

준비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오프라인 수업은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만나 수업을 하면 되지만, 온라인 수업은 수업할 수 있는 일련의 환경이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업 준비를 하는데, 각 가정에서 와이파이파가 되거나 데이터가 무제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안되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기기 대여비가 마련되어 모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어플을 다운로드 하여야 하는데 다운로드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끼리는 언어가 잘 통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문제를 서로 해결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웃음)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어색한 모습이 있었지만 2주가 지나니 전혀 어색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모두 잘 따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열심히 하는 학생은 어디든 열심하고 공부 흥미도가 떨어지는 학생은 온라인에서도 공부 하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날 때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손 하트를 마무리하는데도 학생들은 어색해하지 않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할 때도 온라인 방식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웃음)

코로나19로 집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응원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집에서 심심 하지? 힘들지만 다 같이 조심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나자. 꼭!! (안녕! 한국어 예비 학교 선생님 일동)

지금 서로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영상 수업에 잘 참여해 주어 고맙고, 학교에서 서로 만나 공부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고 건강하게 지내요 친구를 사랑해요~ (꿈다리 학교 선생님 일동)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종식 되기 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웃는 모습으로 만나자 (꿈빛 학교 선생님 일동)



준비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안녕! 한국어 예비 학교 같은 경우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비대면 상태로 사전 설명을 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어려웠죠. (웃음) 온라인 수업에 조금 더 효과적인 ZOOM이 있지만 타 플랫폼과 비교하면 설명하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재를 찍어서 보내주거나 편집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만약 교실 밖에서 교재나 파일의 글씨체가 타인에게 공유된다면 저작권법에 위반 될 우려가 있어 걱정됩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오프라인 수업은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한국에 머무르지 않는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작은 화면 속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서 부담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과 어색해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웃음) 그리고 학생은 수업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있어서 50분 정도 수업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30분 단위로 끊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생이 갖춰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학생이 갖춰야 하는 태도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 일어나자마자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옷을 입은 채로 수업을 받거나 침대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어요. (웃음)
 온라인 수업도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만나 수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갖춰야 하는 태도는?
 학생들이 제일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지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담임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겁니다.

'이슈&인물' 인터뷰는 2020년 4월 3일, 6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어: 이숙(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홍보기획 담당 주위)
 -인: 안: 이숙(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외국인주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회사나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몰라 불리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특히 단기간 임차하고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국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을 최소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더 짧은 경우 더 짧은 계약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외국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소지 변경 신고(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사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세 제도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중한 내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안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바로 임대인에게 넘겨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주택을 인도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ợp đồng thuê bất động sả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uê nhà ở thông qua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trừ trường hợp họ sống trong ký túc xá của công ty hoặc ký túc xá của trường học.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biết rõ tình hình thực tế của Hàn Quốc nên họ đã ký hợp đồng thuê bất lợi, đặc biệt trong trường hợp thuê ngắn hạn và xuất cảnh thì có thể bị thiệt hại như mất tiền đặt cọc mà mình đã đặt ban đầu. Điều tương tự này cũng xảy ra tương tự với gia đình đa văn hóa.

Chúng ta hãy cùng xem xét chế độ của Hàn Quốc để bảo vệ người nước ngoài khi thuê nhà ở tại Hàn quốc. Theo luật Bảo vệ cho thuê nhà đất, người thuê nhà có thể tự mình chọn thời hạn hợp đồng cho thuê nhà tối đa là 2 năm (nếu muốn kí thời hạn hợp đồng ngắn hơn thì có thể yêu cầu thời hạn hợp đồng ngắn hơn). Và cũng giống như công dân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nhận chuyển

nhượng nhà ở và khai báo thay đổi địa chỉ (đối với người Hàn quốc sẽ là thường trú) sẽ phát sinh "khả năng chống đối". Năng lực đối lập đề cập đến quyền cư trú tiếp tục khẳng định hợp đồng hiện tại với chủ nhà mới ngay cả khi chủ nhà thay đổi. Một điều quan trọng là khi chuyển nhà, bạn phải đến Ủy ban nhân dân địa phương để nhận được "ngày xác nhận". Nếu nhận được ngày xác nhận, khi nhà mua được chuyển sang đầu giá, có thể nhận lại tiền đặt cọc trước các chủ nợ cấp dưới.

Thêm một vấn đề nữa ở đây đó chính là Hàn Quốc sẽ gặp phải vấn đề lớn nếu không nhận lại tiền đặt cọc khi thời hạn hợp đồng thuê kết thúc do chế độ thuê nhà của Chính phủ đặt ra. Vì các bạn có thể bị mất hết số tiền đặt cọc quý giá của mình. Điều quan trọng là không được chuyển nhà đi nơi khác khi chưa nhận lại được tiền đặt cọc. Nếu không nhận được tiền đặt cọc mà chuyển giao nhà cho người thuê khác thì sẽ mất đi khả năng đối phó và quyền ưu tiên của mình trong kiện cáo. Trong trường hợp này, sau khi nhận được lệnh đăng ký quyền thuê từ Tòa án nhân dân, bạn duy trì nhà mình đang ở thì mới duy trì được quyền ưu tiên và khả năng đối phó.



外国居民的房地产租赁合同

居住在韩国的外国人，如果他们不是居住在公司或学校宿舍中，那么将通过房屋租赁合同在韩国居住。外国人不了解韩国的情况，有时会签订不利的租赁合同，特别是如果他们短期离开时，可能会遭受损失，例如损失保证金。多元文化家庭也是如此。

让我们看一下韩国通过租房保护租户的制度。根据《房屋租赁保护法》，房客可以要求房屋的租赁期限至少为两年（如果合同期限较短，则可以要求缩短合同期限）。而且，像韩国人一样，注册的外国人会获得住房并告知住所变更。当您报告更改时（对于韩国公民而言是居民登记），会产生“反强制力”。反强制是通过向新房东索偿现有合同来继续生活的权利，即使是房东发生了变化。重要的一点是，当您搬家时，您会去到洞事务所获得“决定日期”。收到确认日期后，当房屋通过拍卖时，可以优先将押金退还给次级债权人。

另外，由于租赁制度而无法在租约期末取回押金，将面临一个大问题。会损失我们宝贵的钱。目前重要的是，您应该在不退还押金的情况下搬家。如果您在没有押金的情况下将房屋直接交给房东，您将失去对策和优先偿还权。在这种情况下，您必须向法院申请租赁登记令，并且在收到租赁登记令后，交付房屋以维持对策和优先权。

김예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수원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아세안 : 아세안 10개국 각자의 방식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하다

코로나19, 기온이 높은 지역은 감염 썩을 것이라는 예상 깨고 아세안 각 나라 상륙

올해 초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의 공격은 석 달만에 전 인류를 위협하는 팬데믹 (pandemic)이 되었다. 중국에서 유럽, 유럽에서 미국을 순차적으로 강타한 코로나19는 당초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동남아에도 상륙하였다. 아세안의 10개 회원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 방식은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만큼 다양하다. 다음은 3월 말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 아세안 10개국 코로나19 대응 동향

코로나 발병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는 동남아 국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다. 싱가포르는 우한에서 전염병 발병 사례가 최초 공개된 이후, 즉각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와 더불어 공공장소 출입 시 체온 측정을 의무화 하는 한편, 확진자 동선 추적을 바탕으로 모든 예상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밀집된 도시국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싱가포르의 기업과 학교는 현재에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다만 최근에는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학교를 폐쇄하고 마스크 착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베트남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공격적인 초기 대응책을 펼쳤는데, 지난 2월 우한에서 귀국한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베트남은 수주 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하노이 소재 병원에서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다시 한 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 등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모스크에서 1만6천여명이 모이는 종교집회가 개최된 이후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4월 2일 현재 2,908명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보유하고 있다. 3월초 취임 하자마자 코로나 감염증 사태를 맞고 있는 무히딘 야신 총리는 긴급 이동 제한령을 시행,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종교 집회 참석자들이 귀국 후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이면서 현재 아세안에서 인구대비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검역 조치를 시행중인 브루나이는 격리 대상자가 규정 위반시 최대 1만 브루나이 달러의 벌금형 혹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확산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인

구도 많고 도심내 밀집도도 높은데다 4월 하순부터는 이슬람 금식기간인‘라마단’에 이어 5월에는‘이드 알피트르(Eid Al Fitr)’축제가 예정되어 있어 수백만 명이 고향을 오가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음식점·영화관·유흥업소 등을 폐쇄하고 종교 활동 중단을 명령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명절 기간중 이동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단,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사회적 결속과 재정 불안정을 고려하여 전면 봉쇄가 아닌‘지역 격리’를 통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출입국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자 군인을 동원하여 수도 마닐라를 포함해 루손 섬 전체를 봉쇄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바 있다. 태국은 지난 3월부터 이후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4월 30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주요 도시의 모든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임시 폐쇄하였다.

캄보디아는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발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여전히 정상 운행중일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5일에는 중-캄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훈 쉐 총리는 당시 중국에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복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화답하여 중국은 최근 캄보디아 남서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에 전문 의료팀을 파견하여 코로나 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는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10명 안팎의 확진자만 공식 보고되고 있다. 공공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 국가에서는 앞으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세안의 공동 대응 노력,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위기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속을 가져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곤 한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1997년 금융위기에서부터, 2000년대 곡물시장 위기,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등 숱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오면서 협력 경험을 쌓고 그로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 및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등은 모두 위기에 함께 대응하면서 발전해온 협력 메커니즘이다.

감염병 분야에서도 아세안은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에볼라(Ebola), 2015년 메르스(MERS), 2017년 지카(Zika) 바이러스를 차례로 겪으면서 대응력을 키워왔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각국 보건당국과 아세안 사무국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와 보건분야 고위급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상황과 조치를 공유하고 있다. 2020년 아세안 의장직을 맡은 베트남은 금년 아세안 주제로 “단결과 대응(Cohesive and Responsive)”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아세안이 이번 코로나 도전을 맞아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면 이는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각국이 외국인의 출입을 막고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부산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평화와 번영의 한-아세안 공동체”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당분간 인적교류는 물론 교역과 투자 등 경제교류가 부분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특히 보건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증가할 전망이다.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앞 서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방역물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역내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조만간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경을 초월하는 비전통 안보 위협으로서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공동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한다면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한아세안센터

〈사진 설명〉

아래 왼쪽 사진: The government on Friday eased the district and provincial border restrictions issued on Thursday. Yousos Apdoulrashim, www.phnompenhpost.com / 가운데 사진: BOOTHs, A health worker tries the testing booths commission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Quezon City. Photo from Quezon City Government Facebook page, www.rappler.com / 오른쪽 사진: Health workers take blood samples for test at Hả Lôi Village, Mê Linh District, Hà Nội, VNA/VNS Photo Minh Quyết, www.vietnamnewsyn





'차이 없는 클래스' 수강생 모집

결혼이민자 대상 실용 한국어교육 실시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상록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및 문화예술체험, 내국인과의 연계 활동 프로그램인 '차이 없는 클래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차이 없는 클래스 프로그램은 한국 초기 적응 과정과 한국어 교육 지원 등 다문화 가구에 대한 교육정책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원곡동다문화마을특구 등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록구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드라마, 쇼팽 등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한국어 어휘로 구성된 말하기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 문화예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체험, 전통의례체험, 한복체험, 식물원에서 배우는 환경체험, 한국노래를 부르는 상호노래자랑 등 전통문화와 환경체험 등의 활동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결혼이주민과 평생학습관 학습자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 가는 다문화 전래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 '썰담'도 진행된다.

'스토리와 스토리를 담은 책' '전설을

담은 책'의 뜻을 담고 있는 썰담은 결혼이주민이 자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면 평생학습관의 글짓기 커뮤니티가 글을 쓰고 그림 그리기 동아리가 그림을 그려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는 활동이다.

안산시는 결혼이주민과 내국인 간 연계 활동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전래동화책을 발간하는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이 없는 클래스는 15명을 모집해 오는 5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최라영 평생학습관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진정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국제무역사무원 과정 수강생 모집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오는 5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여성은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2개국어 사용자인 만큼, 이들에게 무역에 대한 개념과 용어, 법규, 서류 서식 작성법 등을 교육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강생에게 1개월에 30만원씩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ITQ 액셀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듣는 등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5월 4일까지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여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

가 많은 경우 별도의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www.ansanwomen.or.kr/)를 참고하거나 031-439-2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일자리 정보를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은 총 4일이다. 교육 시작 일정에 따라 1기부터 4기까지 연 4회 운영된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법, 취업 정보, 노동시장의 인력 정보와 같은 구직 단계에 필요한 정보부터 직업선호도검사를 통한 직업 탐색 훈련, 노동법 강의와 같은 교육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재비와 교육비가 전액 무료이고 수료생에게는 소정의 수료선물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070-4924-9003 최예지 기자

http://www.ansanwomen.or.kr/

일하고 싶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준비 프로그램

WiCi

(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

WiCi 是以提供一系列与就业有关的信息来帮助结婚移民女性在韩国社会成功就业的教育课程。

- 教育对象: 希望就业的所有结婚移民女性(F-5, F-6, 国籍取得者)
- 教育场所: 安山女性人力开发中心 (安山市政府对面)
- 参加人员: 优先顺序15人
- 教育优惠事项: 教育费, 教材费全额免费
结业后提供工作介绍及就业支援等服务, 免费照履历表照片
为结业者提供精美礼品, 婴儿房运营(24个月以上)
- 教育期间: 5/19~5/22, 6/16~6/19, 7/21~7/24, 9/22~9/25
- 教育时间: 9:30~14:00
- 咨询电话: (031)439-2060

WiCi là chương trình giáo dục hỗ trợ để giúp cho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có thể tìm việc thành công trong xã hội Hàn Quốc với sự cung cấp những thông tin đa dạng liên quan đến việc làm.

- Đối tượng: tất cả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có mong muốn tìm việc làm(visa F-5, F-6, người đã nhập tịch Hàn)
- Nơi giáo dục: Trung Tâm Phát Triển Nguồn Nhân Lực Phụ Nữ Thành Phố An-San(vị trí đối diện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 Số người tham gia: 15 người theo thứ tự
- Ưu đãi: miễn phí toàn bộ phí giáo dục, phí mua tài liệu
Sau khi kết thúc khóa học sẽ được hỗ trợ chụp ảnh hồ sơ, hỗ trợ tìm việc một cách tích cực.
Sẽ có quà tặng, có phòng chơi cho trẻ (từ 24 tháng tuổi trở lên) dành cho người hoàn thành khóa học.
- Thời gian giáo dục: 5/19~5/22, 6/16~6/19, 7/21~7/24, 9/22~9/25
- Giờ học: 9:30~14:00
- Tư vấn: (031)439-2060

WiCi is the educational program which supports foreign married immigrant women to train for work and succeed in finding jobs.

- Program target: All foreign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ant to have careers in Korea. (visa type: F-5, F-6, person to get citizenship)
- Place: Ansan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 Benefit: Free for educational program & job training.
including employment referrals & providing a nursery school (over 24months), employment information, a resume photo and some gifts.
- Period: 5/19~5/22, 6/16~6/19, 7/21~7/24, 9/22~9/25
- Time: 9:30~14:00
- Q&A: (031)439-2060

경기도 지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안산시청 건너편 KDB산업은행 3층)
TEL 031-439-2060 FAX 031-439-2061 E-mail ansan2060@hanmail.net

http://www.ansanwomen.or.kr/

일하고 싶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준비 프로그램

WiCi

(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

고용노동부 지원

참여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F-5,F-6,귀화자)

교육일정: 연 4회 (* 1회만 참여가능)

기수	1기	2기	3기	4기
일정	5/19(화)~5/22(금)	6/16(화)~6/19(금)	7/21(화)~7/24(금)	9/22(화)~9/25(금)

* 참가일정은 센터 상황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9:30~14:00

교육내용:

일차	교육내용
1일차 (4시간)	• 프로그램 소개 및 우리의 약속 • 취업과 나의 미래 I
2일차 (4시간)	• 나의 흥미와 일 • 흥미유형 파악 및 일 연결 • 취업과 나 • 직업세계 이해하기
3일차 (4시간)	• 나의 직업역량 확인하기 • 취업목표 설정을 위한 정보 정리하기 • 합리적으로 취업목표 결정하기 •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 수립하기
4일차 (3시간)	• 구직기술 노하우 • 면접기술 노하우 • 직장생활 노하우 • 경력설계 노하우 중 택 1 운영

교육장소: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강의실3

신청방법:

신청방법: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내방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내방 작성)
(외국인등록증[F5/F6], 귀화자·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혜택: 교육비, 교재비 전액 무료
수료 후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이력서 사진촬영(반명함판 사진제공), 수료자에게는 선물지급, 임시보육시설운영(24개월 이상) 프로그램 수료 후 실업급여수급자 2회 구직활동 인정 등

경기도 지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안산시청 건너편 KDB산업은행 3층)
TEL 031-439-2060 FAX 031-439-2061 E-mail ansan2060@hanmail.net



다문화가족에 지역사회 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담긴 반찬 전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진행



코로나 극복, 반찬 도시락 전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군서초등학교를 찾아 아동용 반찬 도시락과 일회용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및 지역 아동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 직원들이 직접 조리하고 포장한 반찬 도시락 500개와 일회용마스크 1,000장을 군서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정왕본동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3사랑밥터' 단체 지원으로 결식 아동 지원 사업을 연계 진행했으며 학교가 방학하는 기간에는 지역 내 아동들의 보호 복지를 위한 방학 지원 프로그램

‘꼬옥놀이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신체 심리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센터가 위치한 시흥시 정왕동 지역은 아동 주거 빈곤율이 높고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아동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진행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만12세 아동을 둔 가족에게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자녀의 등하원, 놀이 활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등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대와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다.

1건당 최소 2시간(종일제 3시간) 이상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자녀 한 명당 9,890원이다. 소득에 따라 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개학 연기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idolbo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031-317-4516(선택번호 1번)으로 연락하면 서비스 이용 상담 및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족상담사업, 부부교육, 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예지 기자

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

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선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이다.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은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 47면, 베트남어 40면, 러시아어 37면, 일본어 27면〉

이지은 기자

이주민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전달

'희망의 친구들'과 노동부, 시흥외복 후원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는 4월 1일과 8일에 한국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극복 및 예방을 위한 물품을 전달받았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은 손소독제 224개와 덴탈마스크 1,100개, KF80 마스크 100개를, '고용노동부'는 마스크 1,000개를 외국인복지센터에 후원했다.

시흥시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희망의 친구들의 이념을 바탕으로 마스

크 및 손 소독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흥시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 물품들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마스크 구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라며 희망의 친구들과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표하고 “시흥시 거주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와 외국인복지센터는 코로나 19 관련 상담 및 통역 등을 7개 국어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외국인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이 시흥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예지 기자

지역사외 일반산 나눔 행사 진행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도 임내요



지난 4월 3일 신천근린공원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사장 신명자)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최정은)직원들이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일반산 서비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천동 관내 취약계층 500가구에 일반산 세트와 마스크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일반산 해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산하기관 직원들과 나눔자리 문화공동체(회장 이상기)가 함께 재료 손질부터 포장 및 배달까지 직접 참여하며 훈훈한 온기를 전달했다.

최정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은 “이번 일반산 나눔 행사가 코로나19

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얼어붙었던 지역 사회 분위기를 잠시나마 녹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반산 배달서비스에 직접 참여한 유재홍 신천동장은 “일반산을 직접 배달하며 오랜만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참여해주신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산하기관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每名儿童400,000韩元提供育儿券

“请确认信息”

从今天(13日)起,保健福利部将向230万名7岁以下的儿童,提供每人40万韩元的“儿童保健券”。

付款对象是监护人,例如一个有子女的多元文化家庭,他们在三月份获得了子女津贴,并为每个子女提供了40万韩元的育儿券。

育儿券是通过8家主要的卡公司(如农业,乐天,新韩,BC,三星,友利,韩那,和KB国民等)支付,得到此券的家长可以立即使用。

此儿童保健券得到了全额支持,在全国197个城市中作为护理点支付,在其余32个城市中作为纸质礼品券或当地电子货币支付。

保健福利部说:“为了迅速提供儿童保健券,我们在过去一周进行了紧急指导期,并以此确认了对象的家庭信息和卡信息。”卡公司和保健福利部计划通过短信指导用户如何使用它们。”

如果您丢失了护理点分配卡,则可以在卡公司重新发新卡后使用这些点。

由于添加了银行卡信息或在指导期内需要其他指导,大约13万人没有在13日获得付款。他们将在14日之前

收到个性化的文本指导,并在16日上午9点至20点(6点)在福利中心或社区中心选择要使用的卡,并在23日提供其他护理点。

另一方面,有80,000名监护人需要申请礼品卡这是一张预付卡,因为他们没有儿童幸福卡或国民幸福卡),仍在接受福利中心和社区中心的申请,并计划在5月初交付礼品卡。育儿优惠券礼品卡作为预付卡发行,即使遗失了护理点,也可以重新发行。

育儿券育儿积分可在儿童居住的大城市或省免费使用。使用范围比每个市政当局都可以使用的现有纸质礼品券更广泛。

如果您入住,可以在收到居民中心的入住通知后申请,通过更改下个月的使用区域来使用剩余积分。

它可以在大多数关联商店中使用,例如可以使用本地卡的传统市场,附近的集市,加油站,医院,饭店,书店,但有大量的超市,娱乐场所和在线购物中心除外。

使用护理点时,您会收到一条短信,还可以在卡公司的客户中心或网站(主页)上检查其余的点。 <한글 기사 36면> 왕그나 기자

다문화가족도 책으로 일링해요

중앙도서관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

시흥시중앙도서관(관장 김경남)은 시흥시 공공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3월 12일에 처음으로 선보인 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를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로 전환했다.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시청 정문(사랑채) 1곳에서 실시하던 도서 안심대출 서비스를 각 권역 도서관 5곳으로 확대한 대출서비스이다.

4월 7일부터 도서관 임시휴관 종료일까지 운영하며 중앙, 능곡, 대야, 목감, 월곶도서관의 각 주출입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화요일~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희망일 전날 신청해 다음 날 받아갈 수 있다. 대출되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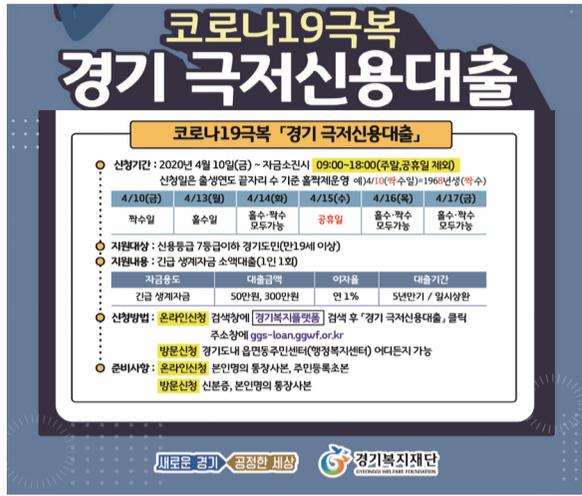
든 도서는 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책 소독기로 소독 후 배부된다.

시흥시 관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iheu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와 활동 제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이 안전하게 소독된 책을 비대면으로 대출할 수 있는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친 생활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최예지 기자

신용 낮은 사람 대상 극저신용대출 시행

7등급 이하 다문화가족도 지원, 누구나 연1% 이율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소식을 알렸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출 상품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훌쩍제로 신청을 받는다. 접수 첫날인 4월 10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날인 4월 13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훌쩍제로 신청을 받으며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 사항은 4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참여자모집 한국어능력 향상및 학교생활돕기

시흥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원활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시흥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만4~10세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정규, 대안학교 초등 1~6학년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1:1로 한글 또는 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육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15분 내외로 진행된다. 한 달 수업료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나눠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자녀는 1개월에 본인 부담금 3000원을 내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방효설)는 코로나19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 QR 코드 복지 상담을 실시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최예지 기자

Bộ tư pháp đình chỉ tạm thời hiệu lực visa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bắt đầu từ ngày 13 Có đến 90 quốc gia trong tổng số 151 quốc gia cấm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nhập cảnh đượ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mà không cần visa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tạm thời đình chỉ hiệu quả của các loại visa ngắn hạn cùng với Bộ Ngoại giao để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virus Corona 19. Bộ Tư pháp cho biết họ sẽ tạm thời ngừng hiệu lực thi hành thị thực ngắn hạn từ 0 giờ (theo giờ xuất phát hiện tại) vào ngày 13. Theo đó, hiệu lực của thị thực ngắn hạn (trong vòng 90 ngày) được cấ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tất cả các cơ quan công vụ của Hàn Quốc (Đại sứ quán, tổng lãnh sự quán) trên toàn thế giới sẽ tạm thời bị đình chỉ.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ị thực tương ứng phải đăng ký lại thị thực tại cơ quan chính phủ. Tuy nhiên,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loại trừ thị thực và thị thực dài hạn (làm việc, đầu tư) tương ứng với tư cách làm việc ngắn hạn (C-4) như các kỹ sư cao cấp được mời bởi các công ty trong nước. Ngoài ra,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ngắn hạn đã nhập cảnh cũng có thể ở lại trong nước trong phạm vi thời gian lưu trú được cấp trước khi nhập cảnh.

Song song với đó, Bộ Tư pháp có kế hoạch hạn chế việc nhập cảnh thị thực, miễn thị thực, miễn thị thực ở cấp độ tương đồng đối với các quốc gia và khu vực cấm nhập cảnh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dân Hàn Quốc.

Khi các biện pháp hạn chế được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miễn thị thực sẽ bị đình chỉ tạm thời đối với 90 quốc gia và khu vực nơi chính phủ Hàn Quốc đã ký thỏa thuận miễn thị thực trong tổng số 151 quốc gia và khu vực cấm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sở hữu hộ chiếu nằm trong 90 quốc gia và khu vực nơi biện pháp miễn thị thực bị đình chỉ tạm thời phải được cấp thị thực tại cơ quan chính phủ để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uy nhiên, ngoại lệ sẽ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cho các nhà ngoại giao, hộ chiếu thông thường, tiếp viên hàng không và thuyền viên của các tàu vào cảng, các doanh nhân sở hữu thẻ du lịch APEC. Ngoài ra,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nộp giấy chẩn đoán do cơ quan y tế cấ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ăng ký thị thực để tăng cường kiểm tra thị thực trong tương lai. Người nộp đơn xin thị thực phải nộp một giấy chẩn đoán có ghi lại các triệu chứng liên quan đến Corona 19 như phát sốt, ho, đau đầu, đau cơ và viêm phổi sau 48 giờ kể từ ngày đăng ký.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bất thường thì việc cấp thị thực có thể bị hạn chế. Sau khi nhận được đơn xin thị thực, cơ quan công vụ đã quyết định sau khi kiểm

tra đầy đủ tình trạng sức khỏe và quyết định xem có được cho phép hay không.

Ngoại lệ, đối với mục đích ngoại giao, công vụ, mục đích hoạt động doanh nghiệp thiết yếu như cung cấp đầu tư, kỹ thuật, gia đình người dân Hàn Quốc hoặc những lý do khẩn cấp như nhân đạo, dự kiến sẽ cấp thị thực nhanh chóng theo phán đoán của giám đốc cơ quan công vụ

Bộ Tư pháp có kế hoạch tự động chặn việc phát hành thẻ lên máy bay thông qua 'Hệ thống xác nhận trước người lên máy bay' (IPC) trong trường hợp cố gắng nhập cảnh mà không có chứng nhận hoặc thị thực đã bị đình chỉ hiệu lực và hạn chế việc lên máy bay trong giai đoạn phát hành vé.

Một quan chức của Bộ Tư pháp cho biết: "Chúng tôi có kế hoạch thông báo các biện pháp trên cho các hãng hàng không trong nước thông qua các bộ liên quan (Bộ Đất đai, Giao thông và Hàng hải, Bộ Hàng hải, Bộ Ngoại giao và Hàng hải) và các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địa phương để thực hiện đầy đủ các nghĩa vụ đã được ban hành". (hàng 기사 23면)

강혜나 기자

III. Educational support systems

01 Educational institut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 General kindergartens and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are designated a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to provide students with programs that are customized for multicultural students to enhance their multicultural sensitivity.
 - Multicultural awareness programs:**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global civic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anti-bias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etc.
 - Customized programs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ilingual education, counseling, learning assistance (mentoring), etc.
- If a student wishes to enter a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 he or she may be able to transfer or enroll in a school within or outside of his or her residential district upon request from his or her parents (guardian), which will require the permission of the school's principal.
-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is accessible by contacting the relevant Office of Education or by visiting the website of the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e Education website (nime.or.kr).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Kindergartens)

- Kindergarten-typ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offer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al support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omote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al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r otherwise).
 - Language education:** Pre- and post- program language assessment, unified language education, individual language education, etc.
 -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at aim to enhance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tual understanding for children, teaching staff, and parents

Korean language class

- In order to help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came to Korea after having lived overseas or foreign students to adapt to the Korean schools, **Korean language classes** are offered a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to provide them with intensive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Students who return to their original classes after completing the Korean language classes will be monitored (for 6 months) to determine their adaption to the school and possibly benefit from additional support such as mentoring and after-school classes.

- If your child's school does not run a Korean language class, the student will be entitled to be benefited by the Korean language programs offered through the outreac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ystem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dispatching Korean language instructors to schools attended by students who require Korean language classes.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s

-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re available for multicultural students who wish to suspend their studies or receive an education that matches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 Information on **accredited consigned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s that are designated and run by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is obtainable through inquiries to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or the website of the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e Education" (nime.or.kr).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for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School	Type	Features	Fees
The School of Global SARANG (Guro-gu, Seoul) globalsarang.com 02-6910-1004	Elementary school	- Multilingual education to learn Korean and a second language such as English or Chinese - After-school classes and free aptitude education - 1 class per grade - Preliminary school non-graded system	Free ※ Including expenses for after school classes, specialty and vocational classes, and meals
	Middle school	- Alternative school with recognized credits (consigned alternative school in which education is received for a specific amount of time and then you return to the original school afterward)	
Seoul Dasom Tourism High School (Jongno-gu, Seoul) sdshs.kr 02-6743-0510	High school (vocational)	- Vocational education for improve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better social integration - Standard subjects and vocational subjects aimed at students receiving certifications - Assigning of multicultural language instructor - Offers tourism content and tourism service departments - Students selected based on document assessment and in-depth interviews	Free ※ Uniform and meals excluded
Korea Polytechnics Dasom High School (Jecheon, Chungcheongbuk-do) kpoac.kr/dasom 043-649-2800	High school (vocational)	- Technical training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ing those who came to Korea after having lived overseas) - Full-time boarding - applications accepted nationwide -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re acquired by all (1-8 qualifications are obtainable per person) - At least 80% of the students become employed by large companies/state-owned companies or proceed to university. - Teaching provided for each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club activities, UNESCO school - Academic departments: Computer Mechanics, Plant Installation, Smart Electronic - Selection: Document screening and in-depth interview (Sept., Dec.) - An institution operated by Korea Polytechnic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Admission counseling and school visits are available at all times.	Free ※ Tuition, boarding expenses, and expenses for snacks and after-school classes included
Incheon Hannuri School (Namdong-gu, Incheon) hannuri.cesc.kr 032-627-225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consolidated	- Recruits nationwide, accredited consignment-type alternative school (As this school is a consignment-type school, students go back to their original school after a set period of education is completed.) - An educational stepping stone with a focu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elementary: 1 class) - 50% standard subjects and 50% special subjects - Boarding provided (completely free, students in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or older can ente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Free High school: Charged (amount similar to that charged by general public schools) ※ Boarding expenses charged

School	Type	Features	Fees
Haemill School (Hongcheon, Gangwon-do) haemillschool.gwe.msk.kr 033-433-8761	Middle school	-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A boarding school with small classes (20 students per class) - Unified education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Korean students - Classes are offered to meet the level of each student without dividing them by school year - Offers Korean language classes for students who entered Korea after living overseas - Bilingual education (Chinese, Japanese, Vietnamese) - Operates self-governing student bodies such as the Haemill Assembly - Enables students to explore domestic and overseas career paths and conduct volunteer activities abroad	Free ※ Boarding expenses included

※ Costs for school meals, boarding expenses, uniforms, and different programs vary according to the school and area.

International schools

- International schools provide education for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students who returned to Korea after having lived overseas for 3 years or longer, and children of naturalized Korean citizens who are unable to continue their education at general schools due to insufficient Korean language skills.
- If at least one parent holds a foreign citizenship, the student is eligible to apply for admission to an international school. Although the admission criteria vary from school to school, applications are generally accepted throughout the year.
-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admission procedures and tuition fees for each school are available on the **International School Information website** (www.isi.go.kr).

02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students

Mentoring for multicultural students

- Mentoring for multicultural students** is aimed at providing support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a multicultural background to adapt to school life and meet the basic academic standards by matching them 1:1 with university students. Students may participate in the program by applying through their school or a community child center.
- University students will pay visits to schools attended by multicultural students to help them with their studies after school hours or during vacation, and each student is eligible to receive about 20 hours of mentoring per week (40 hours per week during vacation).

03 Tuition support

Support for children aged 3-5 in the Nuri course

- All children aged between 3 and 5 who attend kindergarten are entitled to benefit from child tuition support regardless of their parents' income level.
- Parents (guardian) may apply through a direct visit to the eup/myeo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n their place of domicile or through the Bokjiro website (online.bokjiro.go.kr).

Tuition and expense support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re is an education benefit system that offers support to cover educational expenses such as high school tuition and school meal expenses, as well as expenses for auxiliary textbooks and school supplies. Parents (guardians) may apply through a direct visit to the eup/myeo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n their place of domicile.
- Parents (guardians) may apply for tuition fee support through the website of the One-click application for tuition fee support (oneclickmoe.go.kr) or through the Bokjiro website (online.bokjiro.go.kr).

School Banking

- Although educational expens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uch as admission fees and tuition fees) are not charged, parents must still pay for other expenses such as school meals, field trips, and after-school classes. When making such payments, it is convenient to use School Banking, a system that automatically transfers payments to the bank account of a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on a fixed date.

04 Support for school life

Wee class (School counseling office)

- The Wee class, a counseling office set up in the school, provides counseling services for students who have a difficult time adapting to school life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insuffici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 If your child's school does not offer a Wee Class, the same service can be requested through the Wee Center of the Office of Education in your child's school district.

Wee Center (Student counseling support center under the Office of Education)

- The Wee Center is a counseling body set up at the Office of Education for students at risk who require proper guidance or a healing process to address fundamental issues that schools cannot resolve themselves, and offers various tailored programs, including counseling services and special education, and prevents student dropouts.
- The Wee Center is available to all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ree of charge. Students can use the Wee Center after obtaining prior consent from the school, and its use can be deemed equivalent to attending school.

2020.03.24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발생률 1위

가장 무서운 하지만 잊혀진 감염병

1/9

2020.03.24

국민 3명 중 1명은 이미 '잠복결핵감염' 상태로 추정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음.



적절한 검진과 치료로 60-90% 결핵예방 가능!

5/9

2020.03.24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23,000명 이상의 신규환자 발생, 1,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무서운 질병 **결핵**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대한민국 (2018년 기준) (단위: 명 / 인구 10만 명 당) 주요 선진국 결핵발생률 현황

국가	발생률 (명/인구 10만 명 당)
대한민국	6.8
일본	14
프랑스	8.9
영국	8
독일	7.3
호주	6.6
미국	3

2/9

2020.03.24

만약, 결핵환자의 가족 접촉자일 경우?

결핵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17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결핵환자의 가족일 경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무료'로 꼭 받아보세요.

6/9

2020.03.24

결핵은 어떤 질병인가요?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결핵균에 감염되는 질병



즉,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

3/9

2020.03.24

난 이미 결핵예방접종을 맞았다?

영유아 및 소아 중증 결핵 등 특수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결핵예방백신(BCG) 접종



그러나 예방접종만으로 모든 결핵이 예방되진 않습니다. 결핵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7/9

2020.03.24

결핵의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미열, 수면 중 식은 땀, 무력감, 체중 감소

결핵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결핵검진 받아주세요. 결핵은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4/9

2020.03.24

결핵 예방 수칙은?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잊지 말고 기침할 땐 옷소매로

8/9

จากCorona 19 วันที่ 25 จะได้รับเงินกู้เร่งด่วน ... มันจะ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เกาหลี-ไทยหรือไม่?

การที่ได้วิกฤตการติดเชื้อรับในสวดคล้องกับโคโรนา 19 ใหม่สิ้นเชื้อขนาดเล็กหรือ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ยื่นเงินกู้จะเปิด เริ่มต้นในวันที่ 25 มีนาคมนี้โครงการเงินสินเชื่อจะถูก แจกจ่ายไปยังธนาคาร, บริษัทขนาดใหญ่, และบริษัท ส่ง เสริมการตลาด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ตามการจัดอันดับ เครดิตเพื่อให้ผู้ใช้ไม่ต้องใช้เวลาในการรวบรวมเงินเรา หวังว่าการกระทำนี้จะช่วยให้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ของ 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เกาหลีไทยที่คาดหวังว่าจะ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 อย่างมากจากวิกฤต โคโรนา 19

◇การจัดอันดับเครดิต3 ระ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
รัฐบาลแจกจ่ายสินเชื่อ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ตามอันดับความ น่าเชื่อถืออันดับเครดิต 1 ~ 3 ธนาคารพาณิชย์(시중은 행),

ในเกรด 4 ~ 6 ธนาคารBKให้สินเชื่อและเกรด 4 หรือ ต่ำกว่าเป็นวิธีการยืมโดยตรงในขนาดเล็กสำหรับ ธนาคารBKสูงถึง 70 ล้านวอนสินเชื่อสูงสุด ,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 สบสินเชื่อขนาดเล็ก 10 ล้านวอน (15 ล้านวอนในพื้นที่ ประสบภัยพิเศษ)มาตรการตอบโต้จะถูกนำร่องในวันนี้ หลังจากแนวทางที่เกี่ยวของและการบำรุงรักษาระบบและ จะมีผลในวันที่ 1 เมษาย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สำหรับผู้ที่มีอันดับเครดิตต่ำกว่า 7 ธนาคารพาณิชย์หรือเงินกู้ยืมจากธนาคารBKมีแนวโน้ม ที่จะถูกปฏิเสธแต่คุณสามารถกู้เงินจาก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 สบสินเชื่อขนาดเล็กได้สามารถยืมได้ 10 ล้านวอนไม่คำนึงถึง 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สินเชื่อที่มีอยู่ยอดขยายลดลงและอันดับ 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นอกจากนี้หากคุณสมัครสินเชื่อใน 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สินเชื่อคุณ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เงินกู้ภายใน 3 วันโดยเร็วที่สุด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เงินกู้ยังต่ำที่ 1.5%

หากการจัดอันดับเครดิตของคุณคืออันดับ 6 หรือสูง กว่าคุณ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สินเชื่อ(소신공)และ ธนาคารBKเพื่อยืมเพียงแค่เลือกหากคุณยืมจากศูนย์ ตรวจสอบสินเชื่อ(소신공)คุณสามารถรับ 10 ล้านวอน ภาย

ใน3 ~ 5 วัน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และคุณต้องการ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 ธนาคาร BK สามารถรับได้มากถึง 70 ล้านวอนแต่หาก 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อยู่ที่ประมาณอันดับ 6 มีโอกาสสูง ที่จะขอ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จากมูลนิธิรับประกันเครดิตของ เกาหลี

ในอีกกรณีนี้จะใช้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สองเดือนในการออก ใบรับประกันในวันนั้นหากมีการออกใบรับประกันคุณ สามารถยืมได้ประมาณ50 ล้านวอน กล่าวอีกนัยหนึ่งก็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你可以เลือกได้ว่าจะได้รับเงินกู้ ประมาณ50 ล้าน

วอนใน 2 เดือนหรือ 10 ล้านวอนใน 3 วัน ผู้ที่มี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ค่อนข้างสูงจากอันดับ 1 ถึง 3 สามารถไปที่ธนาคารพาณิชย์ (시중은행) ได้ในกรณี เหล่านี้มีโอกาสที่จะกู้ได้โดยไม่มี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ใหม่

◇ไม่มีเครดิต,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ธุรกิจบางประเภทและประเภทไม่สามารถยืมได้ต้อง ยืนยันก่อนสมัครเครดิตไม่ดีผู้เสียภาษีและ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ที่ดำเนินงานด้านความบันเทิง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 กู้ยืมได้

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สินเชื่อ(소신공)ให้ยืมแม้ว่าอันดับเครดิต ของพวกเขาจะต่ำกว่าอันดับ 9 แต่พวกเขาไม่ให้ยืมกับผู้ ที่ มีเครดิตไม่ดีนอกจากนี้แม้ผู้ที่ค้างชำระเงินให้สินเชื่อ ภาคการเงินที่มีอยู่ไม่สามารถยืมผู้ที่ไม่ได้ชำระภาษีแห่ง ชาติ

หรือภาษีท้องถิ่น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กู้ยืมได้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หาก ผู้ที่ไม่ได้ชำระภาษีแห่งชาติหรือภาษีท้องถิ่นชำระภาษีที่ ค้างชำระก็เป็นไปได้ที่จะ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กู้ยืมเงินโดยใช้ คอมพิวเตอร์ได้ทันที

บ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ได้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บันเทิงทั่วไปและสถานที่ลงทะเบียนเป็น สถาน <한글 기사 지난호 36면> 이아리 기자

'안눈에' 지원정책 사용설명서 공개

다문화가족도 시흥시 코로나 지원 살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들이 코로나19에 관한 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원정책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공개했다.

근래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존의 정책은 보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간 시정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정보의 부재로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민들이 빠르고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시흥시 민생지원 정책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사용설명서'에는 시민(신청자)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 서식 등 손쉬운 신청을 위한 모든 설명이 망라되어 담겨있다. 수혜 계층?분야별로 정책을 구분해 누구

나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및 SNS 채널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서에는 총 7개의 분야 약 20여 개가 넘는 지원정책이 수록 및 설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촘촘하게 안내했다. 이를 수혜자별로 분류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한 전시민 분야 9개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분야 정책, 외국인아동 및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아동가구에 지급되는 아동 분야 2개 정책,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자를 지원하고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청년 분야 2개 정책, 실직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외 소상공인 분야 4개 정책, 창업기업 및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분야 2개 정책,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1개 정책 등이다. 최예지 기자

시흥 '세대이음 생애주기 공감-UP'

시흥다가 외복 옴피에, 외국어 번역본 게시



시흥시(시장 임병택)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서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아시아권 3개 언어로 번역한 '세대이음 생애주기 공감-UP'을 시흥시,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내용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필리핀어로 번역해 시흥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로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게 친숙한 모국어로 전달해 사업서비스 내용 전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4개 국어 번역 작업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사 및 가정통신문 번역 위촉자 5명과 번역 자원봉사자 15여명이 함께 했으며 약 한 달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안내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우리 시흥시의 한 주축으로 성장한 외국인, 다문화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해하고 더 안정된 시흥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이 보다 가깝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흥시민의 인구정책 안내 책자가 발간된 것이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다. 모든 가족이 정보와 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살피고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의 현재 언어수준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개별적인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 (다문화·외국인·북한이탈주민가족)

사업내용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교육진행 : 초기 평가 후 또래 언어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녀를 선별하여 교육
- 교육기간 : 1회 6개월 (교육 종료 후 재평가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최대 3회 연장교육 진행)
- 수업시간 : 주 1~2회 (회당 40분 수업)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사전 예약 필수)

신청문의 | 031)319-7997 (교육팀 3번/언어발달지도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정왕동 1187번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안내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은 다문화 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업내용

- 부모코칭 -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등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이중언어를 활용한 놀이활동
- 이중언어 활용 및 가족 코칭 - 이중언어 활용을 위한 모임 및 교육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이중언어 역량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인재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 연중(수시모집)

장 소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 여 자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문 의 : 031-319-7997(이중언어 코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49번길51(정왕동1187번지)

다양한 언어 더 넓은 세계 | 더 많은 소통 더 다채로운 삶

여성가족부지원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북은자리
우리는 가족이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지지하고 동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양육가구에 돌봄포인트 지급

다문화가정 아동 등 1인당 40만원, 온오프라인 신청

여기서 쓸 수 있어요!

-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아이의 건강을 위해 **병원(한의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어요!
- 아이를 위한 선물로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 이·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어요!
- 서점·문방구**에서 책이나 학용품을 사거나,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2020.4.13. 기준 4/5

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돌봄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보유한 가구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4월 6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 배송된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및 위생용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 받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소비를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추경 예산에 국비15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해당 예산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 대상인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아동 수당을 수령한 3만9천여명이며 4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4월 초부터 개별적으로 문자

모든 신생아에게 책 꾸러미 선물 다문화가족도 책선물세트 받아요

부천시는 2020년을 맞아 신생아 책 꾸러미 도서 2권을 새롭게 선정하고 관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책 꾸러미는 연령에 맞는 그림책 2권과 손수건, 북스타트 가이드북이 담긴 에코백이다. 2020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정된 도서는 백주희 작가의 '잡아라, 잡아라'와 정호선 작가의 '함께 해서 더 좋아' 2권이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에게 무료로 그림책을 나눠주고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육아 지원 운동이다. 부천시는 2014년부터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연계 독서프로그램과 부모 대상 특강을 운영해왔다.

2020년 책 꾸러미 도서 선정은 세 단계 과정을 거쳤다. 먼저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발표한 영유아 추천 도서 14권 중 출판연도가 최근이면서 내용이 흥미로운 그림책 6권을 선별했다. 그 후 책 6권에 대한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시립도서관 13개소와 시 홈페이지에서 실시했다.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독자, 내용, 그림 등의 선정 기준을 통해 도서 2권을 최종 선정하였다. 문의 032-625-4737

최예지 기자

언어 쑥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로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합니다.

- 서비스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기간** 연중 수시 모집
-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생후 30개월~만12세 미만)
- 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2층)
외부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경우 '교육아동 2명 이상' 시 지원 가능
※ 가격방문 불가능

준비서류 및 서비스 절차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 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주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선택) 부모가 사실혼 관계 등에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구비

1. 서비스신청	전화 및 내방 문의 → 평가 일정 확정
2. 초기면담 및 평가	평가(정상발달 시 종료) → 대기 및 교육시작
3. 교육진행	주 2회, 회당 40분 교육 원시(1회 6개월 진행)
4. 진전 및 종료평가	6개월 이상 교육 아동 → 진전평가 실시 →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연장 최대 3회 가능, 최대 교육기간 2년)
5.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언어교육서비스 종료 시 만족도조사 실시 사후상담 및 평가 실시

● 현재 교육을 진행 및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많은 관계로 언어발달교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언어발달서비스를 중복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 68번가길 4
Tel) 070-4457-6108~9

여성가족복지원·경기도·부천시위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신생아 ~ 돌아기 부천시에서 태어난 모든 아가는 그림책꾸러미를 선물받아요!

하루 10분 아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북스타트 BOOK START**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돌 아기 모두에게!
· 2020년 12월 기준 (신생아 : 2020년생, 돌아기 : 2019년생)

언제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4월 ~ 2021년 3월
※ 책꾸러미 조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나요?
그림책 2권, 독서교육 가이드북, 손수건, 가방
· 도서는 아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 아가 1명당 1개의 꾸러미만 받을 수 있어요.
- 도서는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 1 지정된 동주민 센터 출생신고를 하고 받는다. 행정복지센터: 상곡동, 부천동, 중동, 신동동, 상동, 대신동, 소사동동, 범안동, 상곡동, 오정동 주민지원센터: 상곡1, 상곡2, 소사, 역곡1, 역곡2, 중곡1, 상곡1, 상곡2, 상곡3, 상곡4, 상곡5, 상곡6, 상곡7, 상곡8, 상곡9, 상곡10, 상곡11, 상곡12, 상곡13, 상곡14, 상곡15, 상곡16, 상곡17, 상곡18, 상곡19, 상곡20, 상곡21, 상곡22, 상곡23, 상곡24, 상곡25, 상곡26, 상곡27, 상곡28, 상곡29, 상곡30, 상곡31, 상곡32, 상곡33, 상곡34, 상곡35, 상곡36, 상곡37, 상곡38, 상곡39, 상곡40, 상곡41, 상곡42, 상곡43, 상곡44, 상곡45, 상곡46, 상곡47, 상곡48, 상곡49, 상곡50, 상곡51, 상곡52, 상곡53, 상곡54, 상곡55, 상곡56, 상곡57, 상곡58, 상곡59, 상곡60, 상곡61, 상곡62, 상곡63, 상곡64, 상곡65, 상곡66, 상곡67, 상곡68, 상곡69, 상곡70, 상곡71, 상곡72, 상곡73, 상곡74, 상곡75, 상곡76, 상곡77, 상곡78, 상곡79, 상곡80, 상곡81, 상곡82, 상곡83, 상곡84, 상곡85, 상곡86, 상곡87, 상곡88, 상곡89, 상곡90, 상곡91, 상곡92, 상곡93, 상곡94, 상곡95, 상곡96, 상곡97, 상곡98, 상곡99, 상곡100	방법 2 부천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아래 준비물 2가지를 들고 도서관에 간다. - 부모 또는 아가의 도서관 회원증 도서관 회원증이 없으면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ocl.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 의뢰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방법 3 우리 집 아기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택배 신청한다.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메인화면의 북스타트 아이콘 → 왼쪽 메뉴의 '책꾸러미 택배 신청' 클릭 - 회원가입 시 아기 1-pair 필요해요 - 아기 이름으로 1-pair 발급받고 회원가입해주세요. - 부모님 이름으로는 안돼요 - 신청 후 3개월 시간이 걸려요.
--	---	--

부천시립도서관 문의처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 625-4737

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13일부터 잠정 정지

법무부, 한국인 입국금지 151개 국가 중 90곳 대상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0시(현지 출발 시각 기준)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계 모든 우리나라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법무부는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해서는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 정지된 90개 국가·지역 여권 소지자는 국내로 입국하려면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

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PEC기업인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앞으로 사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내역과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공관은 사증 신청을 받은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사증이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의 국민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중국어 48면, 베트남어 18면, 러시아어 23면, 태국어 7면) 이지은 기자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마스크 제작 이주민센터 등에 3천장 전달해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4월 1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오가닉 면 마스크 3천장을 부천시 관내 복지관에 전달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 19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구호 아래 오가닉 면 마스크 만들기를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재봉틀을 돌리고 천을 재단하여 1달 동안 8천여장의 마스크를 만들어냈다. 센터에서 만든 오가닉 면 마스크는 집에서 세탁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봉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센서텍(주), 온세미컨덕터코리아, SNKOREA 등의 기업 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상공회의소, 부천희망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굿모닝차이나 등에서 지원을 받았다.

완성한 마스크는 교통봉사대,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콜센터, 이주민 지원센터, 다문화 복지협의회 등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전달했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도 지원이 닿았다.

유연승 자원봉사센터장은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면 마스크가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키고 위로가 되는 마스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 13 числа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выдачу иностранцам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Это относится к 90 странам / регионам из 151 в которых был ранее объявлен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граждан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оговорились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ирус Корона 19).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9 числ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том, что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ыдача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закон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00 часов 13 числа (по текущему времени отправл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о все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орпус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сольство, консульство и т. д.),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выдача иностранцам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пребывание до 90 дней), которые выдавались до 5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ы, получившие визу ранее, должны снов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орпусах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Однак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ыло решено сделать исключение для лиц, являющихс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риглашенные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а так же прибывшим в страну и имеющим статус визы (С-4) (цель краткосрочная занятость, инвестирование). Кроме того,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уже въехали в Корею на к

раткосрочный период, могут оставаться в Корею в теч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го при въезде.

Кроме того, как ответная реакц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иняло меры н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е выдачи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а так же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безвизов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е ранее объявили о запрете на въезд граждан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ведя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90 странам / регионам из числа 151 стран и областей, которые ранее заявили о запрете на въезд для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выдача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а так же разрешений на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Владельцам паспортов из 90 стран / регионов, к которым применены меры временног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я выдачи виз для въезда в Корею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

Тем не менее, владельц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и официальных паспортов, бортпроводники и персонал прибывающего самолёта, а так же экипаж судна, заходящего в порт, лица с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бизнесмена АПЕС в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случаях въезжают в страну п

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Помимо этого, в целях усиления контрол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требова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остранцами, подающими заявку на визу, медицинской справки, выданной медицинским учреждением.

Заявитель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должен предостав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правку в течение 48 часов с даты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выдачу визы. В медицинской справке должна содержа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указывающая на присутствие или отсутствие симптомов, наблюдаемых у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Корона 19, такие как повышен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кашель, озноб, головная боль, мышечная боль и пневмония. Если вышеуказанные симптомы подтвердятся, выдача визы может быть ограничена.

Было так же решено, что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работни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орпусов должны проводить опрос и собеседование в целях подробного ознакомления с общим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заявителя.

В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случаях визы будут выдаватьс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

м лицам и лицам, связанных с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ак же лицам, для которых цель посещения страны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и дел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такие как инвестиции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для членов семей людей являющихся гражд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лица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по неотложным или гуманитарным работам.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через «Систему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IPC)» ограничит выдачу билетов, а так же автоматически заблокирует выдачу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авиакомпанией, в случае попытки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лицам, имеющим визы, выданные ранее до объявления о запрете и не действительны, или желающие заехать по ранее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сообщил: "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инистерст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рыболовства и океанов) с местными миграционными службами будет вестись проверка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авиа- и судоход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на наличие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татуса визы."

〈한글 기사 상단〉

장윤가 기자

Бắt đầu đăng kí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Số tiền phải được sử dụng trong vòng 3 tháng kể từ ngày cấp



Bắt đầu từ ngày 9 tháng 4, tỉnh GyeongGi đã cho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ỉnh đăng kí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trên hệ thống internet. Điều này nhằm khắc phục tình trạng khủng hoảng kinh tế bị thu hẹp bởi dịch cúm chủng mới Corona 19 tính đến ngày 23 tháng 3 năm 2020, mỗi người sẽ được trợ cấp 100.000 won cho tất cả người dân sống ở khu vực tỉnh Gyeonggi. Trường hợp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do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nắm bắt tình hình chính xác nên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Gyeonggi nhưng không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đã bị loại khỏi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ày.

Ngoài ra, việc đăng ký thu nhập cơ bản lần này thu hút sự chú ý bằng cách đa dạng hóa các phương pháp tiếp nhận để tránh lây nhiễm và giảm thiểu tiếp xúc theo khoảng cách xã hội. Đầu tiên, có hai cách sử dụng thẻ tín dụng cá nhân và thẻ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để đăng ký trực tuyến và nhận thẻ trả trước mới thông qua đăng ký ngoại tuyến. Bắt đầu từ giữa tháng 5, dịch vụ tiếp nhận đăng kí dự kiến sẽ được thực hiện cho tầng lớp cần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ủa xã hội như người già và người khuyết tật. Thu nhập cơ bản này được kỳ vọng sẽ đóng vai trò mở cửa nền kinh tế bằng cách cứu sống các doanh nghiệp tư nhân nhỏ, vì vậy sẽ không có ai bị xa lánh trong quá trình đăng ký.

Đăng kí online bằng cách truy cập vào trang web <http://basicincome.gg.go.kr/> và làm theo hướng dẫn. Một chú ý ở đây rằng các bạn bắt buộc phải làm bước nhận dạng cá nhân bằng cách truy cập sau đó bạn sẽ nhận được một số mật mã do hệ thống gửi về để xác nhận nhân thân. Trong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là những người chưa đến tuổi vị thành niên thì bố hoặc mẹ có thể thay thế để đăng kí. Trong trường hợp đăng kí trực tiếp, thời gian đăng kí tương đối rộng rãi từ ngày 20 tháng 4 đến ngày 31 tháng 7, nhưng để giảm thiểu hiện tượng tê liệt công việc hành chính, số hộ gia

đình và số người dân được phân loại thành ngày sinh. Người muốn đăng kí có thể mang theo chứng minh thư vào ngày thích hợp và đến trực tiếp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hoặc ngân hàng nông nghiệp gần địa chỉ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khu vực sẽ vận hành quầy tiếp nhận đăng kí từ ngày 20 tháng 4 đến ngày 17 tháng 5, ngày thường tiếp nhận đến 20 giờ, cuối tuần và ngày nghỉ lễ chỉ tiếp nhận hồ sơ đến 18 giờ.

Khi đơn đăng kí kết thúc, công ty thẻ sẽ gửi tin nhắn hướng dẫn sử dụng, trong vòng 3 tháng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tin nhắn hoặc đến ngày 31 tháng 8, số tiền không sử dụng sẽ được thu hồi sau khoảng thời gian đã quy định. Nếu thanh toán bằng thẻ đã đăng kí hoặc nhận được thì sẽ được khấu trừ tự động và có thể thanh toán tại các cửa hàng có doanh thu hàng năm dưới 1 tỷ won ngoại trừ trung tâm thương mại, siêu thị lớn, cửa hàng giải trí, doanh nghiệp tư nhân ở thành phố.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của thị trường truyền thống, có thể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các doanh nghiệp trên 1 tỷ won. Nếu muốn có thông tin chính xác hơn về nơi sử dụng, các bạn có thể tìm kiếm các cửa hàng liên kết tiền tệ khu vực lân cận tại trang chủ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http://www.gmoney.or.kr/>

<한글 기사 29면>

강혜나 기자

청년을 위한 부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 뭐가 있을까?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SNS 안부 묻기 릴레이 캠페인 등 눈길

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부천시가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는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만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속한 중위 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 4천587원)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일반 가구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차상위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기 적립금인 최대 1천44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주민지원센터 자산형성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SNS 안부 묻기 릴레이 캠페인

부천시청년정책협의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청년들의 고립감과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해 SNS 안부 묻기 릴레이 캠페인을 지난 4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 모니터링, 의견 수렴,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는 청년정책 시정 참여기구로 청년들을 위해 안부 묻기 SNS 릴레이 캠페인을 기획했다.

안부 묻기 SNS 릴레이 캠페인 '친구야! 밥은 먹고 다니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 사회적 활력을 더하고 따뜻한 봄 날씨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권유하는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SNS에 자신의 한 끼 밥상 인증 사진과 함께 근황을 적고 안부가 궁금한 친구 세 명을 태그하여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권유하면 된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최근 2030세대 청년들의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청년 위원들이 제안한 자발적 안부 묻기 캠페인이 반갑다"며

"멈춰버린 일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결혼이민자 베트남 전통춤 자조모임

대상자 모집

- ♥ 내 용: 베트남 전통춤 연습 및 공연
- ♥ 모집기간: 2020년 4.13.(월) ~ 4.24.(금)
- ♥ 모집인원: 베트남 결혼이민자 10명
- ♥ 사업기간: 2020년 5월 ~ 10월
- ♥ 신청방법: 전화 접수
- ♥ 문 의: 가족지원2팀 / 판가연: 070-4457-6107
- ♥ 비 용: 베트남 전통무용 강습료 무료

전통의상 구입 개인부담 (변경될 수 있음)




Made with CANVASBOARD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OTE

प्रवाशी मजदूरको सपनालाई सर्मथन गर्दछौं ।
प्रवाशी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

नेपाल

01 प्राप्त गर्नु पर्ने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भएको छैन ?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नपाएको भन्नाले ?

- रोजगारदाताले कामदारलाई कामगरे बापत भुक्तानी गर्नु पर्ने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गर्ने निर्धारण गरिएको समय (तलब दिन)मा भुक्तानी नगरेको अवस्था
- एक सामान्यतया तलब कटौती वा, वार्षिक सेवानिवृत्ति रकम सम्बन्धित व्यक्तिको स्किनी दिना काम छोडेको मितिबाट १४ दिन भित्र भुक्तानी नभएको अवस्था सहित समावेश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समस्या भएमा सम्बन्धित रोजगार स्थानमा रहेको श्रम मंत्रालयमा उजुरी गर्न अथवा नागरिक अदालतमा उजुरी गर्न सकिन्छ ।

- रोजगार स्थानमा आर्थिक सकट भएको अवस्थामा क्षतिरकम+ आवेदन गर्न सकिन्छ

क्षतिरकम, कामदारले रोजगार स्थानमा आर्थिक सकट आदि कारणले भुक्तानी नपाएको अवस्थामा, राज्यले सामान्य श्रम मन्त्र भुक्तानी गर्ने पारीश्रमीक

वर्गिकरण	जातकारी गराउने वा उजुरी	नागरिक कानून मार्फत समाधान
प्रक्रिया	श्रम मन्त्रालयमा जातकारी गराउने वा उजुरीपत्र पेश गरेर, रोजगारदातालाई समस्या समाधान गरी अपराधिको दण्ड मिल्ने किसिमको दवाव सिर्जना गरेर समस्याको समाधान	अदालतमा मुद्दा दायर गरेर, दवाव आदेश दायर तथा संरक्षण जातकारी
सकारात्मक पक्ष	-छिटो छरीलो समस्या समाधान गर्ने सकिन्छ -घरै तथा प्रक्रियाको सरलीकरण	पारीश्रमीक संरक्षणका लागि धनपूर्वक ब्यवस्थापन गर्ने सम्मय हुनले भुक्तानी सुरक्षित हुने
नकारात्मक पक्ष	यदि रोजगारदाताको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क्षमता नभएको अवस्थामा, यो समस्या (केस) समाधान गर्ने गाह्रो छ	लाभने समय तथा खर्चको बोझ ठूलो हुनेछ

०२

निम्न कागजात आवश्यक पर्दछ ।

- कार्यस्थल ठेगाना, सम्पर्क नं., रोजगारदाताको नाम आदि रोजगार क्षेत्रको जानकारी
- रोजगार सम्झौता, तलब भुक्तानी विवरण, तलब भुक्तानी बैंक खाता विवरण
- सहपाठीको बयान, कार्य अभिलेख कागजात आदि

समस्या समाधान प्रक्रिया निम्नानुसार छ।

- रोजगार तथा श्रम मन्त्रालयमा उजुरी (दावी अथवा उजुरी) प्रक्रिया

दावी प्राप्त गर्नु पर्ने पारीश्रमीक प्राप्त गर्न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ने

- उजुरी: रोजगारदाताले श्रम ऐन उल्लंघन गरेको तथ्याङ्क दिनु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ने

तथ्य सम्बन्धी अनुसन्धान (रोजगारदाता, कामदार)

प्राप्त गर्नु पर्ने पारीश्रमीक रकम निर्धारण

रोजगारदातालाई भुक्तानी गर्न बाँकी रकम तिर्नका लागि निर्देशन

रोजगारदातालाई भुक्तानी गर्न बाँकी रकम तिर्ने राजी नभएमा सजायका अदालतमा उजुरी

अदालतमा नागरिक मुद्दा दायर

१३५० १५७७-००७१

०३

02 के तपाईं अनुचित रूपमा निस्कासनमा पर्नुभयो?

निस्कासन भन्नाले ?

- रोजगारदाताले एकतर्फी रूपमा रोजगार सम्झौता समाप्त गर्न, बीमा कारण प्रक्रियाको पालना नगरी रोजगार सम्झौता समाप्त गर्ने कार्य

निस्कासनको प्रतिबन्ध

रोजगारदाताले उचित कारण विना नै एकतर्फी रूपमा कामदारलाई निस्कासन गर्न सक्दैन।

- कम्पनीको आन्तरिक परिस्थितिको कारण निस्कासनमा पर्नु, व्यवस्थापकको कारणले निस्कासनमा पर्ने आवश्यक प्रक्रिया अपनाउनुपर्दछ।

अनुचित रूपमा निस्कासनमा परेमा यसरी समस्या समाधान गर्नुहोस्।

- ५ जना भन्दा बढी कामदार भएका कार्यस्थलमा अनुचित रूपमा निस्कासनमा परेमा, स्थानीय श्रम समितिमा राहतको लागि आवेदन+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 एकतर्फी रूपमा अनुचित तरले निस्कासनमा परेमा विगतको कार्यस्थलमा फर्कन सकिने अथवा फर्कन नचाहेको अवस्थामा पारीश्रमीक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न्छ ।
- ५ जना भन्दा थोरै कामदार भएको अवस्थामा अदालतमा उजुरी गर्न सकिन्छ ।

राहतको लागि आवेदन: अनुचित तरले निस्कासनमा परेमा सो मिति बाट ३ महिना भित्र आवेदन गर्नु पर्दछ

०४

राहत (समाधान) पाउने आधार निम्नानुसार छ।

- ५ जना भन्दा बढी कामदार भएका कार्यस्थलमा काम गर्दा अनुचित रूपमा निस्कासनमा परेमा, राहतको लागि निम्न अनुसार प्रक्रिया रहेको छ ।

श्रम विशेषज्ञसंग परामर्श गरेर अनुचित रूपमा निस्कासनमा परेको बारेमा राहतका लागि आवश्यक प्रक्रिया व्यवस्थित गर्ने

स्थानीय श्रम समितिमा अनुचित रूपमा निस्कासनमा परेको आदि अनपेक्षित खारेज राहतका लागि आवेदन फारम, आवेदन दिने कारण पत्र पेश गर्ने

स्थानीय श्रम समिति परिषदको बैठक

अनुचित रूपमा निस्कासनमा परेको निर्णय भएमा पुनर्स्थापना तथा पारीश्रमीक रकम भुक्तानी गर्ने निर्देशन

रोजगारदाताले अन्तिम निर्णयको निर्देशनलाई लागू नगरेमा भने जबरजस्ती तीन वाध्य हुने

१३५० १५७७-००७१

०५

03 काम गर्दा चोटपटक हुनु भयो की ?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भन्नाले ?

- कामदारले काम रंग सम्बन्धीत कारण र त्यस बाहेकका अन्य कारणको कारणले घाइते भएमा वा रोगव्यापी लक्षणको अवस्थालाई जनाउँदछ ।
-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भएर ४ दिन भन्दा बढी समय उपचार आवश्यक भएमा वा मृत्यु भएमा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बीमाबाट क्षतिपूर्ति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न्छ ।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बीमा लाभको प्रकार निम्नानुसार छन्।

पारीश्रमीक प्रकारहरू	प्रमुख क्षतिपूर्ति विवरण
उपचारका बेला पारीश्रमीक	कार्यस्थलमा दुर्घटना भएर चोट पटकको उपचार तम्रप सम्मका लागि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काम गर्न नसकेको अवस्थामा पारीश्रमीक	उपचार पश्चात पनि काम गर्न नसकेको अवस्था भएमा जिपिका चलानका लागि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गरिने
अशक्त पारीश्रमीक	उपचार सके पश्चात पनि कामदार अशक्त भएमा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गरिने
हेरिचार पारीश्रमीक	उपचार सके पश्चात पनि कामदारलाई हेरिचार गर्नु पर्ने अवस्थामा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गरिने
मृतको परिवारलाई पारीश्रमीक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का कारण कामदारको मृत्यु भएमा मृतको परिवारलाई पारीश्रमीक भुक्तानी गरिने
संस्कार खर्च	कार्यस्थलमा दुर्घटना भएर मृत्यु भएमा मृत्यु संस्कार गर्नका लागि लाग्ने खर्च उपलब्ध गराउने
चोटपटक वा रोगव्यापी क्षतिपूर्ति	उपचार सुरुवात भए पश्चात २ वर्ष सम्म निको नभएको अवस्थामा विरामीलाई क्षतिपूर्ति भुक्तानी गरिने

०६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भएमा यसरी समाधान गर्नुहोस् ।

-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भएमा, रोजगारस्थल नजिकै रहेको सम्बन्धित श्रम कल्याणकारी विभागमा कामदारले क्षतिपूर्तिको लागि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बीमा रजम आवेदन गर्न सक्दछ ।
- आवेदन गर्ने अधिकार मजदूरमा रहेकोछ, रोजगारदाताले प्रक्रिया कार्यान्वयन नगरेमा वा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आवेदसंग असहमत भएमा पनि सिधै आवेदन गर्न सकिन्छ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भएमा यसो गर्नुहोस् ।

-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भएको समय, कारण कार्यस्थलको अवस्था आदि रेकर्ड गर्ने
- यदि तपाईं गम्भीर चोटपटक लागेको अवस्थामा, ११९ मा आपातकालीन चिकित्सा (एम्बुलन्स) बोलाएर अस्थितालमा पठाउने
- अस्थितालमा उपचार गराउनु घाइते अवस्थामाको बारेमा यथार्थ बताउने
- त्यस बाहेक घटनस्थलको फोटो, साक्षी विवरण आदि आदि कागजात संकलन गर्ने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आवेदन कार्यान्वयन भने निम्न अनुसार हुने छ ।

चिकित्सा उपचार (हेरिचार)

(हेरिचार) नसिक आवेदन ▶ नसिक हेरिचार ▶ नसिक हेरिचार

क्षतिपूर्ति

- अशक्त तथा हेरिचार पारीश्रमीक
- मृतको परिवारलाई पारीश्रमीक तथा संस्कार खर्च
- उपचारको कारण बेरोजगार अर्थात्को अवधिभरको पारीश्रमीक

श्रम कल्याणकारी विभाग १५८८-००७५ ०७

04 कार्यस्थलमा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भयो भने?

कार्यस्थलमा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भन्नाले ?

- अर्को व्यक्तिको इच्छा विपरित यौन जन्य कुराकानी गर्ने गरेर अर्को व्यक्तिलाई लज्जास्पद बनाउने रोजगारस्थलमा अपमानजनक व्यवहार गर्ने आदि
- रोजगारदाता, उपल्लो ओहदाका व्यक्ति, अथवा सहपाठीले कामदारले ओहदाको दुरुपयोग गरेर अन्य कामदारलाई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वा रोजगारस्थलमा विभेद गर्ने पाउँदैन

कार्यस्थलमा हुने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कलेर अपराध हो।

कार्यस्थल बाहिर हुने कम्पनिको पार्टी, चिकित्क आदिमा हुने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पनि कार्यस्थल भित्रको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मानिन्छ।

किसिमका क्रियाकलापहरू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मानिन्छ ।

भयाजन्य व्यवहार

- यौनजन्य ठट्टा वा यौनजन्य गाली
- कपडा लगाएको विषय, शरिरको कनाट आदि सम्बन्धी यौनजन्य विषयमा
- यौन सम्बन्धित विषयलाई निरन्तर सोच्ने वा यौन सम्बन्धी जानी बुझ्ने पठाउने
- कम्पनिको पार्टी आदिमा बाहिर रक्सी हाल्नुका लागि प्रेरित गर्ने कार्य आदि
- यौन सम्बन्धलाई खुलाउने वा सताउने कार्य
- अश्लील विवरणका साथ फोनमा कुराकानी गर्ने कार्य

१३५० १५७७-००७१

०८

१ शारीरिक क्रियाकलाप

- घुम्न, अंगालो हाल्नु, पछ्याउनु अंगालो हाल्नु आदि शारीरिक सम्पर्क
- पूछे (पिच) वा विशेष शारीरिक अंगहरूलाई चलाउने कार्य
- मालिस वा मुसार्ने (चलाउनु)का लागि आग्रह गर्ने कार्य

२ रेखाउने क्रियाकलाप

- अश्लील तस्विर, चित्र, फ्लिप्ट, आर्ट अश्लील प्रकाशन आदि पत्र गद्द वा प्रदर्शन गर्ने कार्य
- प्रत्यक्ष वा परोक्ष, कम्प्युटर आदि मार्फत अश्लील चित्र, चित्र, तस्विर पठाउने कार्य
- यौन संग सम्बन्धित केहि शारीरिक अंग हरुलाई जानी जानी देखाउने वा चलाउने कार्य
- अर्को व्यक्तिको विशेष शारीरिक अंग नियन्त्रण हेर्ने वा लुकि लुकि हेर्ने कार्य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भएमा निम्न अनुसार प्रतिवाद गर्नुहोस् ।

- दुर्व्यवहार गर्ने व्यक्तिलाई पत्र स्वामा त्यसो नगर्नका लागि सचेत गराउने
- मिति, समय, स्थान, विस्तृत विवरण, साक्षी वा देखे व्यक्ति, यौनजन्य भाषा वा व्यवहारको भावना तथा विस्तृत रेकर्ड जम्मा गर्ने
- उपल्लो ओहदाका व्यक्तिसंग परामर्श गर्ने तथा त्यसतन् व्यक्तिको सहायता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ने
- स्थानीय रोजगार तथा श्रम कल्याणकारी विभागमा परामर्श अथवा उजुरी गर्ने

रोजगार विभागमा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विभागमा उजुरी (www.moelgoke) होमपेज - सम्स्याको जानकारी- उजुरी फेड - कार्यस्थलको यौन दुर्व्यवहार विभागमा उजुरी पेश

आपातकालीन टेलिफोन (यौन आक्रमण, यौन हिंसा) १३६६ ०९



ASEAN in Numbers



무역: 한-아세안 무역량
지난 2월 한-아세안 무역량은 1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베트남과의 무역규모가 44.5%로 가장 높았다.



투자: 대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2019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95억 달러로 2018년 투자액인 65억 달러 대비 크게 상승했다. 아세안 회원국 내 한국 신규법인 수 역시 1,393개로 2018년 대비 상승했다.



관광: 한-아세안 간 관광객 수
2020년 1월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관광객은 태국인이 38,4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2월 우리나라 관광객은 베트남을 가장 많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424,7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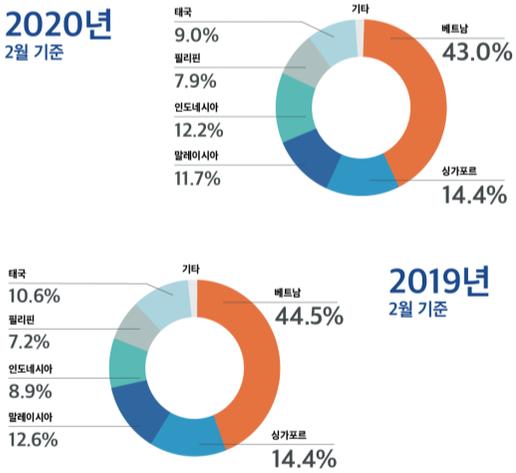


인적 교류: 비자 유형별 체류 현황
2020년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아세안 국민은 621,5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한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고,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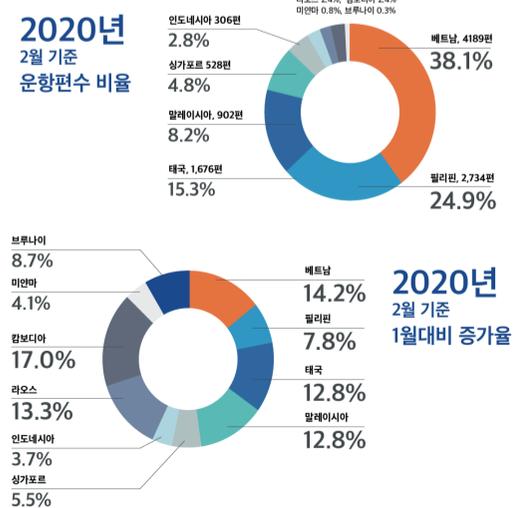
한-아세안 무역량 2020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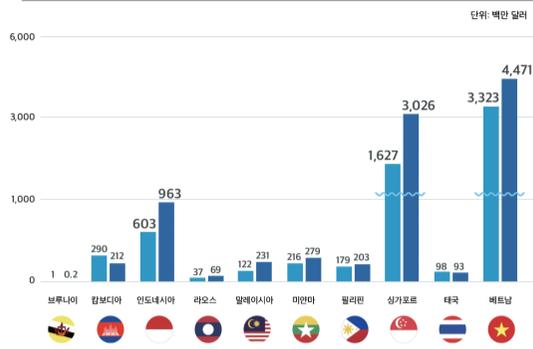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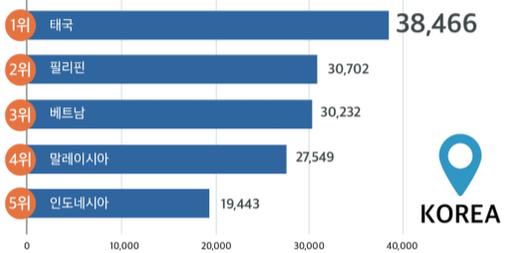
한-아세안 항공편 운항 현황 2020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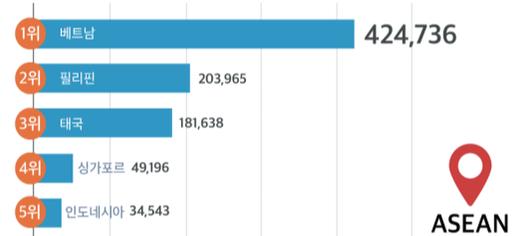
한국의 해외세안 회원국 해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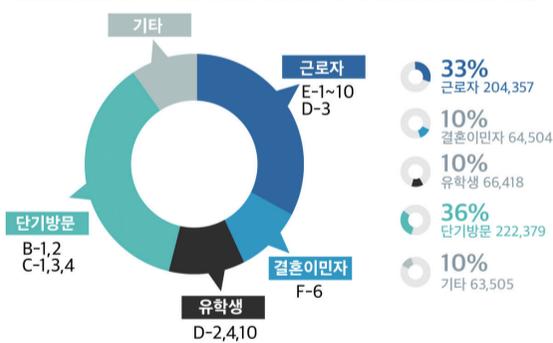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관광객 수 2020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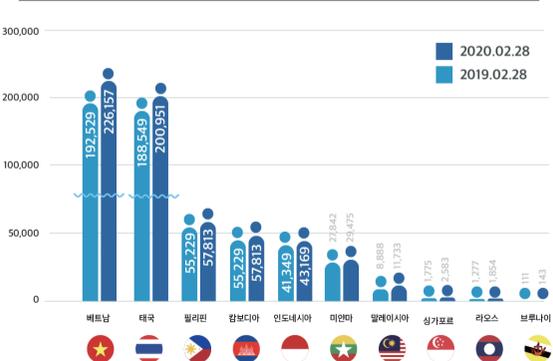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 2019년 12월



비자유형별 국내 아세안 인구 체류 현황 2020년 2월



아세안 회원국별 국내 인구 체류 현황 2020년 2월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여기부, 다문화가족에도 유용해요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담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들고 다니기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4200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고등학생 교육비(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 또한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法務部、すべての韓国入國外國人に‘活動範圍制限’措置施行

今月の1日から海外から入國する韓国入國外國人に対して、2週間隔離措置が義務化され、後續措置として法務部は入國するすべての外國人に対して活動範圍制限'措置を施行した。

3日、法務部は出入國管理法第22條に従い活動範圍制限'措置を施行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活動範圍制限'とは、公共の安寧秩序や韓國の重要な利益のために必要だと認められる場合、法務部長官が韓國に滞在する外國人に対して、居所または活動の範圍を制限したり、それ以外に必要な遵守事項を決める行政命令だ。これに違反した外國人は、出入國管理法第94條によって3年以下の懲役や2000萬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される。

法務部は1日以後入國するすべての外國人に対して、入國審査段階で出入國管理公務員が住居制限、隔離時生活守則遵守、違反に伴う法的不利益などが規定された法務部長官の活動範圍制限通知書'を發給している。

現在まで出入國管理法第22條が實際に

適用されたケースはないが、海外流入感染病豫防のために初めて施行された。法務部は隔離措置に違反した外國人に対して、檢疫法や感染病豫防法による處罰とは別途に、外國人の行爲が公共の安全を脅かすと認められると、出入國管理法第11條及び第46條により強制退去や入國禁止處分以外にも、懲役刑や罰金刑など、刑事處罰まで可能にしたと説明した。

一方政府は、コロナ19ウィルス海外流入を遮斷するために、4月1日から海外から入國するすべての人(韓国民及び外國人)に対して、2週間自宅(または施設)隔離措置を施行した。

これに伴い、韓國人及び長期滞在外國人は14日間自宅隔離し、短期滞在外國人は14日間施設隔離、所要費用は自己負担だ。

法務部は施行初日の1日、國內空港を通じて入國した短期滞在外國人のうち、政府のこのような措置に従わず、隔離を拒否した8人について、入國不許可として本國に送還した。

8人は現地搭乗段階から隔離対象であることを前もって案内さ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隔離を拒否するなど、政府の措置に従わず、檢疫所から入國が適切ではないと通報された。

法務部は海外流入によるコロナ19擴散に先制的に對應するために、防疫當局と緊密に協調して、自宅(施設)隔離を拒否したり、違反した外國人に対して入國不許可はもちろん強制退去、入國禁止など強力な厳正な措置を取る豫定だ。

法務部關係者は、"今回の措置を施行したのは、最近入國した外國人が檢疫・防疫當局の自宅隔離 措置を守らず、マスクも着用しないまま外部活動を行う事例が相次いでおり、コロナ19の擴散 遮斷と公共の安全のために、活動範圍制限措置が必要だと判断したため"とし、"すべての隔離対象外國人は、政府と地方自治團體長の許可なく、隔離場所を無斷で離れず、活動範圍制限通知書に記載された遵守事項を守ること"と注意を促した。

〈한글 기사 16면〉 아키오 기사

행복한우리아이의순간 다문화가족도사진콘테스트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고 보육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 출품 사진을 접수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영유아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사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을 함께 공유하여 코로나19 극복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출품 사진의 주제는 영유아 자녀의 행복한 모습,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 어린이집 일과 및 보육 활동, 부모 및 영유아의 센터 내 체험 및 이용, 어린이집 센터 행사 및 프로그램 활동이 담긴 사진 등으로 미발표된 창작 사진이다. 단, 단체 기념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최예지 기자

富川市针对就学于托儿所的 外国人家庭儿童保育费支援通知

- 对 象 - 就学于富川市托儿所的外国人家庭儿童。(2014~2016年出生的外国人家庭儿童)
- 监护人和儿童须在富川市住满三个月以上。
- 申请时间 2020年2月11日开始申请。
- 提交资料 1. 社会保障津贴申请书(居民中心内备有)。
2. 监护人和儿童的外国人登陆证。
3. 外国人登录事实证明书(在居民中心内申请)。
4. 儿童幸福卡(아이행복카드)(可在居民中心或银行申请,在银行申请的话更快)。
- 持外国人身份证和可用的存折,到交易银行访问申请。
- 支援金額 每月24万韩元
- 支援期间 2020年3月开始
- 支援方法 监护人在托儿所用[儿童幸福卡](아이행복카드)结算
- → 儿童幸福卡公司直接向幼儿园汇款。

- * 若有咨询事项,可持外国人登录证到行政福利中心或居民支援中心访问咨询。
- * 只有持有[儿童幸福卡](아이행복카드)方可得到支援。
- * 在幼儿园就读的儿童不能获得支援。
- * 监护人和儿童均应具有居留资格。
- * 在富川市居住未滿3个月时,可在住滿3个月后再进行申请。

- ※ 咨询
 - 居住地所在的居民中心
 - 富川市多文化家庭支援中心 032-327-137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부천시

1인당 1인당 1인당
경기도 10만원 + 부천시 5만원 더!! 총 15만원
긴급재난기본소득 모두 다 드립니다.

쉽고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신청이 더 좋아요!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4.9.목 ~ 4.30.목
신청방법 4.9.(목) 15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 미성년자만 대리신청 가능(성인은 불가)
대상카드 경기지역화폐 부천페이 또는 13개 신용카드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지급방법 부천페이, 신용카드

방문 신청
신청기간 4.20.월 ~ 7.31.금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신청시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 5.18.(일)부터는 평일(09:00~18:00)만 접수가능
NH농협은행 평일 09:00~16:00 (주말, 공휴일, 5월 1일은 미운영)

지급방법 선불카드
접수방법 신분증 지참,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작성
※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 가능

세대원 수	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4인 이상 가구	4.20.~4.26.							
3인 가구	4.27.-5. 3.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체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2인 가구	5. 4.-5.10.	(1,6)	(2,7)	(3,8)	(4,9)	(5,0)		
1인 가구 및 미신청가구	5.11.-5.17.							
전체	5.18.-7.31.	누구나 신청가능 (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현장 발급' 서비스는 5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

긴급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부천페이·신용카드·선불카드)

- 사용기간** 사용승인 안내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선불카드 사용마감일은 8.31.)
3개월이 경과되면 미사용으로 회수됩니다.
- 사용가능**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
- 음식점, 동네슈퍼, 편의점, 전통시장, 카페, 아·미용실, 학원, 약국 등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사용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 가맹점 확인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 (가맹점 찾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다양한 가족 모두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역량강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이 사업은 취약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소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중위소득(72%) 이하의 손, 자녀를 둔 가족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자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습정서지원과 생활도움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배움지도사를 파견하는 학습정서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손)자녀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계획, 학습지도, 정서지원, 일상지도 등을 실시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주1회 이상 2시간이 기본이다.

키움보듬이를 파견하는 생활도움지원은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으로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일시돌봄,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을 진행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 또는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주1회 이상 2시간이 기본이다. 다만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사 파견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및 후원단체 연계를 통해 재난긴급후원금(품) 연계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후원연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다문화 및 취약위기가족 아동 결연 7명(매월10만원 후원) ▲카카오 후원 카카오미니스피커C 96개(대상자 제공 진행 중) ▲신세계 후원 취약가정 난방비 지원(50만원 현물지급) ▲코로나19 긴급생계비 1가정당 30만원 지원(현재 1가정 선정 되었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선정 중) ▲긴급지원사업 가구당 300만원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중) 등을 실시한다.

또한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후원물품 지원도 진행 중이다. 송하성 기자

오산시매화봉사단, 코로나 극복 오산건가다가에 면 마스크 기탁

오산시매화봉사단(회장 박미순)은 지난 9일 시민에게 아이돌봄사업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에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 100개를 기탁했다.

박미순 오산시매화봉사단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을 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봉사단원들과 함께 직접 면 마스크를 제작해 기탁하게 되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한영향력을 전파해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마스크를 기탁한 오산시매화봉사단에 감사를 표하면서, “직원 및 아이돌보미, 방문지도사 등 힘든 시기에 묵묵히 사업을 잘 수행해주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매화봉사단은 시청사 출입구에서 열 체크 및 손 소독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과 페이스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오산시 가장동 소재 (주)엔코스(대표·홍성훈)는 9일 관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노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마스크 2천매를 오산시에 기탁했다. 이지은 기자

오산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경기도 포함 20만원 지급

코로나19 극복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여, 어린이집엔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관내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오산시민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20만원씩 받게 된다. 오산시가 시민 23만 여명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국가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오산시 부담액

약 60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산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긴급 추경 안을 편성해 4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겠다고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오산시는 지난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은 원아가 소지한 태그로 등·하원 시간을 자동 감지해 실시간으로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이 이루어지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도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등원 시부터 오후 4시까지)과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으로 정해짐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오산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는 어린이집에 시스템 설치비 30만원과 아동 1인당 태그 비용 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등·하원 시각을 안내하는 안심문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은 전자 출석부의 자동 생성 등으로 서류 관리 및 행정업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 3개월 이내 사용해야

어려움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실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4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 방법을 다양화해 눈길을 끈다.

먼저 개인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5월 중순부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 경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신청 과정에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전용 페이지 (<http://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의 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 중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비교적 넉넉하나, 행정 업무 마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로 구분해 요일제를 시행한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날짜 및 요일에 신분

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근처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는 요일제를 시행하는 4월 20일부터 5월 17일 동안 평일 20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접수 카운터를 운영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사로부터 사용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이후 회수된다. 등록 혹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형식이며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더욱 정확한 사용자 정보를 원한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인근 지역화폐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러시아어 32면, 중국어 38면, 베트남어 24면〉

이지은 기자

兒童一人당 40萬ウォンのケア(돌봄)クーポン支給、“文字メッセージで確認”

保健福祉部は全国の7歳未満の兒童230萬人に、一人당 40萬ウォンの‘兒童ケアクーポン’を今日(13日)から支給する。

支給対象は3月に兒童手当を支給された兒童がいる多文化家族などの保護者で、兒童ひとり당 40萬ウォンの兒童ケアクーポンポイントが支給される。

兒童ケアクーポンポイントは農協、ロッテ、BC、三星、新韓、ウリ、ハナ、KB國民など、主要8カード社を通じて支給、支給された保護者はすぐに使用が可能だ。

全額國費で支援する今回の兒童ケアクーポンは、197の市郡區でケアポイントで支給、残りの32市郡區では紙の商品券、または地域電子貨幣で支給する。

保健福祉部は“迅速に兒童ケアクーポンポイントを支給するために、一週間の緊急案内期間をもうけ、対象者の世帯情報とカード情報を確認した”とし、“兒童ケアクーポン

が支給された保護者には随時カード社と保健福祉部から使用方法などを文字メッセージで案内する計画”だと説明した。もしケアポイント配定カードを紛失した場合、該當カード社にカード再發給を申し込んでポイントを使用すればいい。約5萬人は案内期間中にカード情報が追加されたり、追加案内が必要なため、13日には支給されなかった。これには14日までに個別な文字メッセージ案内を経て、16日午前9時から20日午後6時まで、福祉で(복지료)または住民センターで使用を望むカードを選択し、23日頃ケアポイントを追加支給する予定だ。

一方、子ども幸福カードまたは國民幸福カードを持っていないと、先払カードのギフトカード申請が必要な約8萬人の保護者には、福祉でと住民センターで申請を受け付けており、5月初旬にギフトカードを配送する計画だ。

兒童ケアクーポン、ケアギフトカードは紛失しても、ケ

アポイントの残りがあれば再發給が可能な記名式先払カードで支給される。

兒童ケアクーポン、ケアポイントは兒童が住んでいる廣域市または道で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市郡區單位で使用可能な既存の紙の商品券などに比べて使用範囲が広い。

引越した場合、住民センターで転入届後に申請、翌月から使用地域を変更して残ったポイントを使うことができる。使えるのは大型マート、遊興業所、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モール、など、一部を除いて、一般カード使用が可能な傳統市場、マート、ガソリンスタンド、病院、食堂など、ほとんどの加盟店で使用可能だ。

ケアポイント使用時についての文字メッセージ案内を受けることができ、該當カード社顧客センター、ホームページ残余ポイントなど確認可能。

〈한글 기사 36면〉

아키오 기자

“ตรวจสอบข้อความ”มอบคูปองดูแลเด็ก 400,000 วอนต่อเด็ก 1 คน

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จะมอบ "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아동돌봄쿠폰)จำนวน 400,000 วอนต่อคนให้กับเด็กอายุต่ำกว่า 7 ขวบจำนวน 2.3 ล้านคนตั้งแต่วันที่ (วันที่ 13)

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จ่ายเงินเป็นเช่น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ว่าคางจองที่มีบัตรที่ได้รับเงินสงเคราะห์บุตรใ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

และมอบ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아동돌봄쿠폰) 400,000 วอนต่อเด็กหนึ่งคน

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จุดดูแลและจ่ายให้กับบริษัทบัตร(ธนาคาร)รายใหญ่ 8 แห่งเช่นNonghyup, Lotte, BC, Samsung, Shinhan, Woori, Hana และ KB Kookmin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นี้เป็นบัตรกำนัลดูแลเด็กในเครือหรือนำสาธารณะและจ่ายให้แก่ในเขตเทศบาล 197 แห่งทั่วประเทศและในเขตเทศบาลอีก 32 แห่งโดยผ่านบัตรของขั้วหรือบัตรธนาคาร

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 เพื่อที่จะจ่ายสำหรับ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และรวดเร็วมีการจัดทำข้อมูลฉุกเฉินในช่วงสัปดาห์ที่ผ่านมาและจากนี้ข้อมูลในครัวเรือนและข้อมูลบัตรของบุคคลเป้าหมาย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

แล้ว"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คำแนะนำเกี่ยวกับวิธีการใช้ข้อความ"

หากบัตร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หายไปบริษัทบัตร(ธนาคาร)จะออกบัตรใหม่เพื่อรับคะแนนคุณสมภพใช้ได้

ประมาณ 50,000 คนไม่ได้รับ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ในวันที่ 13 เพราะข้อมูลบัตรถูกเพิ่มหรือจำเป็นต้องมีคำแนะนำเพิ่มเติมใน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ของคำแนะนำ

พวกเขาจะได้รับคำแนะนำเป็นข้อความส่วนตัวจนถึงวันที่ 14 และเลือกบัตรที่ต้องการใช้ที่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หรือศูนย์ชุมชนตั้งแต่ 9 โมงเช้าถึง 20 โมงเช้าเวลา 6.00 น. ในวันที่ 16 และจะให้คะแนนการดูแลเพิ่มเติมในวันที่ 23

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ผู้ปกครอง 80,000 คนที่ต้องการสมัครบัตรของขวัญซึ่งเป็นบัตรเติมเงินเพราะพวกเขาไม่มีบัตรทุกมินแฮงบการ์ดสำหรับเด็กหรือบัตรความสุขแห่งชาติยังคงสมัครได้จาก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และศูนย์มินแฮงเตอร์และกำลังวางแผนส่งมอบบัตรของขวัญใ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นี้

บัตรของขวัญคูปองดูแลเด็ก(아동돌봄쿠폰)จะออกเป็น

บัตรเติมเงินที่สามารถออกใหม่ได้หากมีคะแนนการดูแลที่เหลืออยู่แม้ว่าจะสูญหาย

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아동돌봄쿠폰)คะแนนการดูแลเด็ก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อย่างอิสระในเมืองใหญ่หรือจังหวัดที่

เด็กอาศัยอยู่ ช่วงการใช้จ่ายกว้างกว่าไปรับรองของขวัญกระดาษที่มีอยู่ซึ่ง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ในแต่ละเขตเทศบาล

หากคุณเพิ่งย้ายเข้ามาอยู่ถิ่นฐานมาใหม่คุณสามารถใช้คะแนนที่เหลือโดยเปลี่ยนพื้นที่การใช้งานจากเดือนถัดไป

หากคุณสมัคร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การแจ้งเตือนการย้ายเข้ามันสามารถใช้ในร้านค้าในเครือส่วนใหญ่เช่นตลาดดั้งเดิม

ที่สามารถใช้บัตรท้องถิ่น, มาร์ทยาน, น้ำมั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ร้านอาหาร, ร้านหนังสือ, ยกเว้นมาร์ทขนาดใหญ่, สถาบันบันเทิงและห้างสรรพสินค้าออนไลน์

เมื่อใช้จุดดูแลคุณสามารถรับข้อความและคุณ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คะแนนที่เหลือได้ที่ศูนย์บริการลูกค้าของบริษัทบัตร(ธนาคาร)หรือเว็บไซต์

〈한글 기사 36면〉

아리 기자

전화로 코로나19 불안감 극복하는 심리방역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스트레스 극복 마음건강 증진한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및 상담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내 스트레스와 마음건강을 위해 전화상담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전화로 신청접수 → 스케줄확정 → 전화상담진행

-상담대상: 상담을 희망하는 파주시민
-상담접수기간: 4월 13일(월) 13:00부터
-상담진행일정: 매주 화, 수, 목(시간협의)

접수상담 031)949-9162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심리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상담 프로그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는 등 외부활동이 줄어든 시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심리 방역을 통해 마음건강의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지금과 같은 감염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불안이 과도해질 경우 몸과 마음을 소진해 면역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개학 연기로 가중된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 격리된 상태로 인한 마음의 고통 등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파주건가다가는 공식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족 스트레스 마음 처방전 홍보 배너를 게시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배려해야 할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료다. 파주건가다가는 현재 전화 상담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가능 시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파주시민은 031-949-9162로 전화하면 된다. 만약 해당 전화 상담의 필요를 느끼지만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파주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총8개국 출신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서포터즈는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주건가다가 서포터즈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31-949-9164로 연락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다문화가족도 관심~

파주시는 4월 8일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 및 인건비 지급 곤란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첫 대상자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 모두 파주시에 둔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 금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란?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의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의 이용과 생활안전을 하며 자녀 양육, 경제적·사회적응의 어려움 등, 문제 해결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적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서포터즈가 여러분의 한국생활을 도와줍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가 하는 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센터프로그램 안내:
▷ 신규입국 결혼이민자 센터 회원 등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이중언어교육, 언어발달교육 가족상담 등
※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이용 및 자녀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

서포터즈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 같은나라에서 온 서포터즈가 누구인지 안다
▷ 서포터즈에게 모국어로 직접 도움을 요청해요~
※ 누가 서포터즈인지 모른다
▷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포터즈 담당자에게 연락해요

문의: 월요일~금요일, 점심시간 12시~1시
☎031-949-9164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외 입국 시민에 휴대전화 지원

파주시, 휴대전화 없는 외국인도 포함



파주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입국자 중 휴대전화 미소지 또는 저기능 휴대전화(2G) 이용자 15명에게 공용휴대전화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입국자 중 스마트폰이 없어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깔지 못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조치와 함께 ‘안전 보호 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현재 파주시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공항검역소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GIS기반 위치 추적으로 격리지 이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또한 해외입국자가 임시생활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숙식, 교통편을 지원해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시간 사전 예약 및 접수를 통해 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 전담공무원 300여 명을 지정해 안전 보호앱과 유선 통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는 등 파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기타 해외입국자 관련 사항은 보건소 해외입국자 상황관리반(031-940-9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What is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The term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means that an employer, a superior or a worker causes another worker to feel sexual humiliation or repulsion by sexual words or actions by utilizing a position in the workplace or in relation to duties, or providing any disadvantages in working conditions or employment on account of disregard for sexual words or actions or any other demands.

* Article 2, subsection 2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

- **An employer, superior or worker (includes colleagues and subordinates)**
Superior means anyone in a position of power that could be utilized at work, and could therefore include the CEO, directors and part-time executives.
- **Towards another worker***
Any male or female employee can be a victim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lthough victims are most commonly female subordinates, male employees can also be victims.
*Includes job seekers
- **By utilizing a position in the workplace or in relation to duties**
- **By sexual words or actions that cause another worker to feel sexual humiliation or repulsion by sexual words or actions (or) providing any disadvantages in working conditions or employment on account of disregard for sexual words or actions or any other demands.**

No employer, superior, or worker shall commit any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gainst another worker. (Article 12 of the Act)

Standards for Determin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Sexual Words or Actions

- **Physical actions**
 - Physical contact, including kissing, embracing or hugging from behind
 - Touching certain body parts, including the breasts or buttocks
 - Coercing another person into massaging or touching one's body
- **Verbal actions**
 - Telling dirty jokes or making vulgar and coarse remarks (includes telephone conversations)
 - Commenting or making sexual metaphors about the appearance of another person or making reference to certain body parts
 - Asking about another person's sex life or intentionally spreading sexual information about another person
 - Coercing or attempting to persuade another person to engage in sexual relations
 - Making another person sit next to you at a company dinner or other event and coercing them to drink alcohol
- **Visual actions**
 - Posting or displaying vulgar photos, pictures, drawings or publications (includes phone conversations, text messages, social media and faxes etc.)
 - Intentionally exposing or touching one's own sexual body parts
- **Other actions**
 - Other words or actions that would cause a person to feel sexual humiliation or repulsion according to conventional social norms

Harm Caused by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Causing another person to feel sexual humiliation or repulsion (environmental sexual harassment)**
Sexual humiliation or repulsion refers to the unpleasant feeling felt by the other person (victim) because of sexual words or actions

- **Providing disadvantageous treatment in employment (conditional sexual harassment)**
Providing disadvantageous treatment in employment refers to any disadvantage given in hiring or working conditions for refusal of a sexual request, and includes rejecting a job application, docking wages, eliminating a promotion opportunity, disciplinary action, demotion, transfer, suspension or dismissal.

Note When determining whether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the victim should be considered alongside how a reasonable person would interpret and respond to the offending behavior according to conventional social norms, as well as whether the behavior ultimately creates a threatening or hostile work environment, thus reducing work efficiency.

Response of Sexual Harassment Victims and Things to be Aware Of

Things for Victims to Keep in Mind When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perpetrator is to blame for the sexual harassment, and not the victim**
Recognize that sexual harassment is illegal behavior committed by the perpetrator within the context of a patriarchal, authoritarian or sexually discriminatory organizational culture or distorted power relations in a workplace, and is not the victim's fault
- **Attention should be called to any actions or words that cause an unpleasant feeling, even it is unclear whether such words or actions constitute sexual harassment**
In a situation where words or actions caused an unpleasant feeling but it is unclear whether those words or actions constitute sexual harassment, asking the person to refrain from engaging in such behavior and giving a warning for inappropriate behavior can help to prevent more serious sexual harassment from occurring

-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sexual harassment is a legal issue, as such behavior constitutes an illegal act that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another person**
Recognize that sexual harassment is an illegal act that violates the human rights, right to work and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of another person, and such behavior must be punished and stamped out

Dealing with Sexual Harassment

- **How should I respond in the moment when sexual harassment occurs?**
 - ▶ If you experience sexual harassment, strongly express your objection to the offending behavior ▶ Seek a reasonable solution ▶ It is best to avoid thinking about quitting (it is important to recover from the harm caused by sexual harassment)
- **What method should I choose to resolve the issue?**
 - ▶ Decide how you would like the issue be resolved (an apology from the perpetrator or promise that such behavior will not be repeated, a punishment issued to the perpetrator or compensation for the victim, etc.) ▶ To resolve the issue, remember to value yourself and think about who might be able to help ▶ Choose an appropriate solution after going through internal employee grievance procedures or consulting with a support group for female employees, labor union, external counseling service or legal support organization
- **Collecting evidence**
 - ▶ Express your objection to the offending behavior to the perpetrator (can be done through a text message or letter if it is difficult to do so in person)
 - ▶ If speaking with the perpetrator in person, think about what you are going to say in advance so that you can speak clearly and confidently ▶ You are legally permitted to record the conversation ▶ If facing the perpetrator in person is difficult, bring a trusted family member or friend to the meeting
- **Using internal resolution procedures**
 - ▶ Report the incident to the applicable department or person in charge if there are procedures in place for handling sexual harassment complaints or grievances at your workplace, or to HR if there is no such department or person in charge ▶ Be specific about the perpetrator's behavior when reporting the incident ▶ Ask for measures to be taken to ensure your safety and a solution to redress the harm that has been caused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시행

파주건가다가, 이주민 안정적인 정착 지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다문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도와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파주시건가다가는 그간 다양한 국적을 갖고 국내로 이주해온 개별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사회적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나 가정폭력, 이혼, 자살 등의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센터 내부 사업 및 외부 기관과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 연계한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외국인·북한이탈주민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031-949-9164로 전화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파주는 '순수마스크' 제작 중

순면 마스크 제작으로 코로나 극복

파주에서 긴급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면 마스크 제작 분야에서 일할 지원자를 신청받았다.

파주시는 해당 일자리에 60여명의 주민이 지원해 오는 4월 22일까지 '순수마스크'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순면 소재의 원단을 이용해 수제로 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순수마스크'는 파주시평생학습관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약 3만개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이 짧았음에도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지원자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신청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3시간 정식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1시간 이상 재능을 기부하는 '3+1 근무'를 진행한다. 현재 대다수 참여

자가 1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순수마스크는 지난 4월 1일 법인택시 기사에게 2,000매,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약 1,000매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영양사, 조리사, 방과후 교사 등에 약 5,000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100매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수호 파주시 기획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공공일 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가 선순환 하길 기대한다"며 "계층별 마스크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어려운 곳에 적시에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최예지 기자

По Кенгидо начался приём онлайн заявок для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оторый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течении 3 месяцев.

С 9 апреля начался приём онлайн-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 Кёнгидо. В целях преодо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который разразился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Корона 19.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3 марта 2020 год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дохода и возраста каждому жителю Кёнгидо единожды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о 100.000 вон.

В случаи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возникли трудности в определении точного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по Кёнгидо, которые не получили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сключаются из списка подлежащих выплатам.

Кроме того, такой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облюдению дистанции в обществе, минимизирует контактирование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И этот способ привлекает всеобщее внимание.

Есть два способа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карту предоплаты : во-первых эт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имеющуюся личную кредитную карту и, подав заявку офлайн или онлайн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новой карты обла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Кёнги. С середины мая для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пожи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услуга выезда. Базовый доход в период бедствий направлен в помощь мелким торговцам и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сыграет сво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оэтому применяются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ер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вне процесс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В период с 9 по 30 апреля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 Кёнгидо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онлайн на основной странице (<http://basicincome.gg.go.kr/>). Зайдя на официальную страниц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через номер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на ваше имя, а так же указать номер кредитной карты или карты обла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Кёнгидо которыми владеет физическое лицо.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от имени одного из родителей, главы семьи или вместо главы семьи супруг(а).

В случа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офлайн, период подачи заявок достаточно продолжителен с 20 апреля по 31 июля, в целях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сбой системы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день посещения учреждения совпал с днём неде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следней цифры года рождения конкр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Желающие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ли близлежащий банк Нонгхёб,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по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ень недели.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ъявить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ую карту.

Регион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центр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 20 апреля по 17 мая до 20:00 в будние дни и до 18:00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действуя по системе совпадения последней цифры года рождения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 днём недели.

После оформления заявки от компан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й картой будет послано сообщение, содержащее информацию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неиспользованная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сообщения или до 31 августа сумма будет обнулена. Расплачиваяс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й или полученной картой происходит автоматический тип удержания, оплата картой может быть принята по месту прописки в магазинах с годовым объёмом продаж менее 1 млрд. вон в год, оплате картой не подлежат универсамы, гипермаркеты,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и заведения в которых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азартные действия. Однако в отношени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рынка оплата возможна и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с годовым доходом более чем 1 млрд. вон. Для получения более 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места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ты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зайдя на домашнюю страницу обла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Кёнгидо (<http://www.gtmoney.or.kr/>) или на вебстранице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한글 기사 29면>

장울가 기자

‘군포시 좋은 부모를 찾습니다’ 좋은 부모되기 공모전 개최

군포건가다가, 5월 가정의 달 다문화가족도 함께하면 좋은 행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오는 5월 14일까지 좋은부모되기 공모전 ‘군포시 좋은 부모를 찾습니다’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가족 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 모임에서 제안하는 ‘좋은부모되기운동 7대 강령’을 바탕으로 ‘좋은 부모 추천서’를 작성하면 된다.

좋은부모되기운동 7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pride: 좋은 부모는 부모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acceptance: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responsibility: 좋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empowerment: 좋은 부모는 건강한 부모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neighborhood: 좋은 부모는 이웃과 함께한다 ▲time: 좋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security: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갖는다.

좋은 부모 대상자 또는 응모자가 군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4일 18시까지다. 심사 결과는 5월 22일에 발표된다.

박성희 센터장은 “우리 모두 좋은 부모이지만 스스로 또는 우리의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다. ‘좋은부모되기운동 7대 강령’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키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 추천서를 작성하며 부모됨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스스로를 좋은 부모임을 다독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포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좋은 부모되기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고 싶다면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s://gunpo.familyne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접수는 이메일(gunpofamilynet.or.kr)을 통해 받는다.

그 외 문의사항은 센터 가족지원2팀(031-392-1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사랑을 전하는 늘봄마스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 운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다문화, 비(非)다문화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이를 통해 센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의 메시지를 확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랑을 전하는 늘봄마스크’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실내에 상주하는 시간이 길어진 군포시 관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손바느질 면 마스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기획했다.

군포건가다가는 약 70가정의 다문화, 비(非)다문화 가정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만들기에 필요한 키트를 제공했다.

‘사랑을 전하는 늘봄마스크’ 키트는 각 가정에 배포

했으며,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작이 완료된 마스크를 기부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희 센터장은 “전 세계의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며 “또한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하고 다문화 가정과 비(非)다문화 가정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늘봄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1팀(031-395-18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군포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대상 온라인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코로나19 확산 방지하고자 온라인으로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을 활동가 가정 내에서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실시했다.

인증된 평생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법정교육인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작으로 추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까지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행복한가(家)! 희망찬가(家)!’는 현재

4개국 7명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 군포시건가다가에서는 서포터즈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장하고자 한다.

교육에 참여한 중국어권의 한 활동가는 “전에 몰랐던 아동 보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

다른 활동가들 역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교육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다”

등의 만족도 조사 항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해당 문항은 5점 만점에 4.85점을 기록했다.

한편, 군포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다국어판 행동 수칙이나 대응 요령을 번역, 제작하는 등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 정보 및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가족지원3팀(031-392-1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파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분	한국어교육서비스	가족생활서비스	
		부모교육	자녀생활지원
서비스 대상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 임신~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3개월~48개월 이하) - 아동기(49개월~만12세 미만)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서비스 기간	80회기/1회 서비스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1회(40회기)	80회기/1회 서비스
서비스 내용	- 단계별 한국어서비스 - 가족상담 등 정서지원서비스 -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부모역할 역량강화교육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자녀의 발달단계의 인지, 자아, 정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방법	지도사가 각 가정에 직접 방문(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서비스 비용	전액무료(자녀생활 제외 - 소득기준에 따라 무상 2,000원 차등 부담)		
우선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등 - 방문교육 서비스 최초지원가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 팩스, 전화 등		
문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1)392-1811 / FAX. 031)392-1813		

다문화가족, 소통하는 공동체, 건강한 군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823)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 1층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2020 동아리모임지원 사업

XIN CHÀO MAMA CLUB COOKMAM



Chương trình học nấu ăn nhằm giúp cho mọi người có thể thích nghi với cuộc sống sinh hoạt ở Hàn Quốc, học nấu những món ăn dành cho những buổi họp mặt, liên hoan

> THỜI GIAN : tháng 6~ tháng 11 (thứ tư, của tuần thứ hai và tuần thứ tư)
> ĐỊA ĐIỂM : phòng học nấu ăn ở trung tâm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 1층)
> ĐỐI TƯỢNG : 10 người Việt Nam

THỜI GIAN	NỘI DUNG	KHÁC
10:00~12:00	Học nấu ăn món Hàn(món ăn dành cho những buổi họp mặt, liên hoan)	

> CÁCH ĐĂNG KÝ : điện thoại hoặc đến trung tâm đăng ký
> TƯ VẤN : 031-392-1811 송하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2020 크리에이티브 1기/2기 참여자 모집

다문화 크리에이티브

유튜버 꿈나무들을 위한
군포시 청소년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유튜버 첫걸음! 채널 개설 및 영상업로드부터!
더욱 더 알차게! 스마트폰 편집기술, 채널운영 전략
담당하고 글로벌하게! 저작권 교육, 마케팅 교육

참여대상	다문화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족 청소년 20명(초등4학년~중학생)
교육기간	다문화 콘텐츠 편집·제작교육 매주 목요일 16:00~18:00 (10회기) 1기/2기-기수당 10명 & 10회기교육 (1기 교육수료 후 2기 활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정 후 센터 개관시 시작, 신청자 별도안내 예정
활동내용	다문화 전통음식·의상·문화 소개 콘텐츠 제작, 채널관리 등 다가온 내 촬영 전문 스튜디오 대여 / 촬영 장비 지원
활동장소	다가온 내 크리에이티브ON (군포시 당정로28번길 22)
신청문의	다가온 ☎070-4279-4079 / 센터☎031-392-1811 담당자: 가족지원3팀 전 안 사회복지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2020 동아리모임지원사업

다문화청소년 댄스 동아리 '커넥션'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댄스 동아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0년 6월~11월 (월 3회 / 화요일 16:30~18:30)
* 시작 일시는 센터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시 당산로 76)

★ 대상 : 군포시 거주 다문화 청소년(초등학생~중학생)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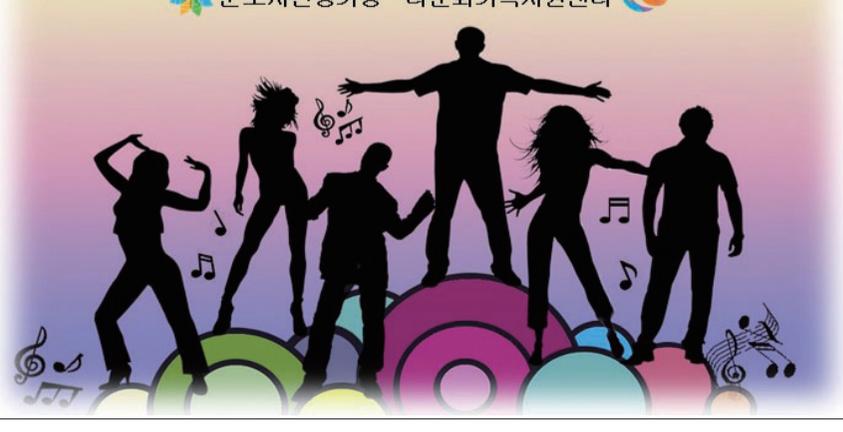
★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6:30~18:30	- 방송 댄스 배우기 및 연습 - 센터 행사 시 공연팀으로 참여 (10월, 12월 예정 총 2회)	다과 제공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http://www.liveinkorea.kr/center/main/main.do?centerId=gunposi>)
신청서 작성 후 팩스 031-392-1813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가족지원3팀 담당자 이윤나 ☎ 031-392-1811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 1/4분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2019.7.16.부터 건강보험에 당연(의무)가입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국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등록한 자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비고
D-1	문화예술	D-8	기업투자	E-5	전문직업	F-3	동반	G-1(기타)은 G-1-6(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만 가입허용
-	-	D-9	무역경영	E-6	예술홍행	F-4	재외동포	
D-3	산업연수	D-10	구직	E-7	특정활동	F-5	영주	
-	-	E-1	교수	E-9	비전문취업	F-6	결혼이민	
D-5	취재	E-2	회화지도	E-10	선원취업	H-1	관광취업	
D-6	종교	E-3	연구	F-1	방문동거	H-2	방문취업	
D-7	주재	E-4	기술지도	F-2	거주	G-1(일부)	기타	

※ 당연가입 한시적 유예 대상: 유학(D-2), 일반연수(D-4) `21.2.28.까지 가입 불가

- 가입요건
 - 국내 입국 후 6개월 경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 가입
- 가입제외
 - 외국의 법령 및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
- 가입절차
 -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가입처리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 * 가입 안내문, 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가까운 지사 또는 외국인민원센터로 방문신고
-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신청 시 체류허가 제한
- 동일세대(세대합가) 인정기준
 -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 *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 또는 외국인민원센터로 방문신고
-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
 - 구비서류: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증기준: 해당 서류에 외교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받은 서류
 - 유효기간: 국내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국제적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 자격취득시기, 서류 제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문의

2020.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안내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신청대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재외국민 및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절차
 - 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됩니다.
 - 가입제외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에는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83. 아르바이트와 알바

대화-아파트 도서관에서



안진숙

민정 : 언니, 도서관 일 시작한 거 축하해요. 일을 해 보니 어때요?

메이 : 도서관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은숙 : 일을 시작한 지 1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민정 : 엄마들 모임도 하기 좋을 것 같아. 교육 정보도 나누고 아이 돌봄도 같이 하면 좋지.

메이 : 그럼 이제 매일 일 하는 거예요? 돈도 받고 하는 건가요?

민정 : 모집 공고문에 보니까 급여는 안 나와 있었어요.

은숙 : 일단 3달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하기로 했어. 아직은 매일 하기 힘들어.

민정 : 그럼 3달 후에는 정식 사서가 되는거예요?

은숙 : 응. 3달 근무하고 관리사무소랑 협의해서 최종 계약하기로 했어.

메이 : 축하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 저도 기쁘네요.

민정 : 나도 알바로 세무 신고 기간에만 회계사 사무실 나오라고 해서 하기로 했어요.

메이 : 은숙 씨도 일을 하게 되는구나.

민정 : 요즘은 주부들도 자기 취미나 적성에 맞는 알바를 많이 하고 있어.

은숙 : 나도 너무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일을 하니깐 보람이 있어서 좋아.

메이 : 저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일 하기가 좀 무서워요.

은숙 : 내 친구가 하는 카페에서 알바로 바리스타를 구하던데 메이가 할 생각 있어?

메이 : 지난번에 한국어교실 케이크 수업 때 바리스타반도 신청해서 이번 달에 시작해요.

민정 : 그럼 빨리 자격증 따고 한번 시작해 봐,

메이 : 제가 열심히 배워서 빨리 자격증 딸게요. 기대하세요.

해설

오늘 대화에 나온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알바'는 아르바이트를 줄인 말로 한국에서 외국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표현 - 아르바이트, 알바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행위

- 대학생이 되니까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 부모님 생일 선물 사드리려고 지난주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한국문화 - 외국어와 외래어

우리 말에는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어 없던 물건이나 개념을 사용하면서 외국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인 '외국어'와 달리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나라 사이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외래어를 많이 쓰게 되었지요. 가스(gas), 바나나(banana), 컴퓨터(computer) 등은 외국어이지만 이제는 한국어처럼 사용되는 외래어입니다.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지급한다 “문자 확인해요”

다문화가정 자녀도 지급,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다양한 방식 사용



보건복지부는 전국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1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족 등 보호자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지급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긴급 안내기간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가구정보와 카드정보를 확인했다”며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약 5만명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해 13일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14일까지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고 23일께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8만여명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로와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5월 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도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해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돌봄포인트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 17면, 베트남어 44면, 러시아어 39면, 일본어 29면, 태국어 29면〉

이지은 기자

광명사랑화폐 7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 지급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다문화가족도 동참해요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을 100억에서 15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7월 말까지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가 발행하고 광명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화폐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NH농협은행 4개소(광명시지부, 광명서지점, 광명시청 출장소, 하

안동 출장소)에서도 구매 및 충전이 가능하다.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10% 인센티브 혜택을 더해 월간 최대 110만원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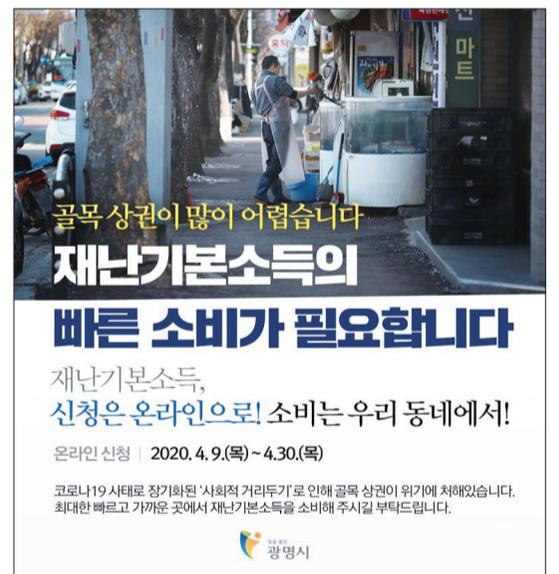
광명사랑화폐는 음식점, 편의점, 동네슈퍼, 미용실, 전통시장 등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름에 빠져있는 지역 상인들을 돕고자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을 대폭 확대했다. 광명사랑화폐이용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회의를 전통시장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명사랑화폐의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와 광명시청 지역경제과(02-2680-6379)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광명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민 모두에게 1명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명당 10만 원)과 함께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광명사랑화폐(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도 지급 받으려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 것만 신청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제외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신청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고 광명시와 경기도 지급액 15만 원을 확인하면 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같은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확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일 안에 해당 금액이 충전된다.

이지은 기자

광명 코로나19 여파 유관 속 다양한 노력~!

광명건가다가, 돌봄서비스와 감사 교육, 상담 등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센터의 4월 소식과 3월 활동 내역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게시했다.(사진은 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알콩달콩 부부일기)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에 휴관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광명시건가다가센터 역시 업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럼에도 센터는 지난 1달여의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먼저 광명시건가다가는 전국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초

중고교의 개학 및 개원이 연기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 양육에 긴급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아이안심돌봄터에서 일하는 돌봄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이해강사 8인에 대한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6일부터는 상담이 필요한 개인, 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 상담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다문화 및 취약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은 수시로 접수 받는다. 4월 17일에는 다문화가족을 자조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광명시 가족의 행복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신념 하에, 광명시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예지 기자

중국 정주시, 광명에 마스크 전달 박승원 시장 코로나19 극복 다짐

광명시는 중국 하남성 정주시에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2만매를 보내왔다고 4월 2일 밝혔다. 소림사가 위치한 중국 하남성의 수도인 정주시는 6개구, 5개 현급시로 구성되어있으며 1,01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정주시 왕신웨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광명시를 방문, 박승원 광명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을 보태고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통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마스크 2만매를 전달했다.

광명시는 전달받은 마스크를 취약계층과 선별진료소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응원해준 중국 하남성 정주시 왕신웨이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응원에 힘입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существляет меры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

для всех прибы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С 1-го числа этого месяца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двух недель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для мест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ъезжающих из-за границы в стран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в качестве последующих мер, были введены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 для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въезжающих в Корею.

3 июн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ринятой мере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ёй 22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Эт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указ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живания, а также других необходимых ме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значается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в особых случаях, когда считается важным защитить интересы и общественное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ёй 94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иностранцы, нарушившие его, подлежат тюремному заключению на срок до трёх лет или штрафу до 20 миллионов вон.

С первого числа данного месяца,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вающие в страну, со стороны служащих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будут подвержены усиленному контролю, касающемуся ограничений проживания и соблюдение каранти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 случае не соблюдения или наруш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ных правил будет выдано «Уведомление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писанного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статья 22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фактически никогда не применялась, однак

о эта мера была введена впервые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из-за границы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страну.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следующее: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ями 11 и 46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ностранцы, нарушившие правила соблюдения карантина и сроки самоизоляции, в следствии чего если будет признана угроза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мимо наказ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карантине или Законом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виде вынужденного перемещ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ста или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возможны и наказания по уголовным статьям, такие как штраф или тюремное заключение.

Между тем, чтобы заблокировать приток коронавируса 19 из-за рубеж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двухнедельные меры карантина (самоизоляция дома или в отведё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для всех граждан 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х и з-за границы с 1 апрел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этому указу,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граждане и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вшие в страну на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проживания, должны самоизолироваться дома, а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вшие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должны самоизолироваться в отведё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плачивая за свой счёт.

В первый день исполнения указа восьми иностранцам, прибывшим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через внутренние аэропорты и которые отказались от самоизоляции, нарушившие условия соблюд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ыло отказано во въезде и в дальнейшем депортированы.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были уведомлены заранее перед вылетом о мерах карантина, но не соблюд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меры и условия самоизоляции, им объявили о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въезд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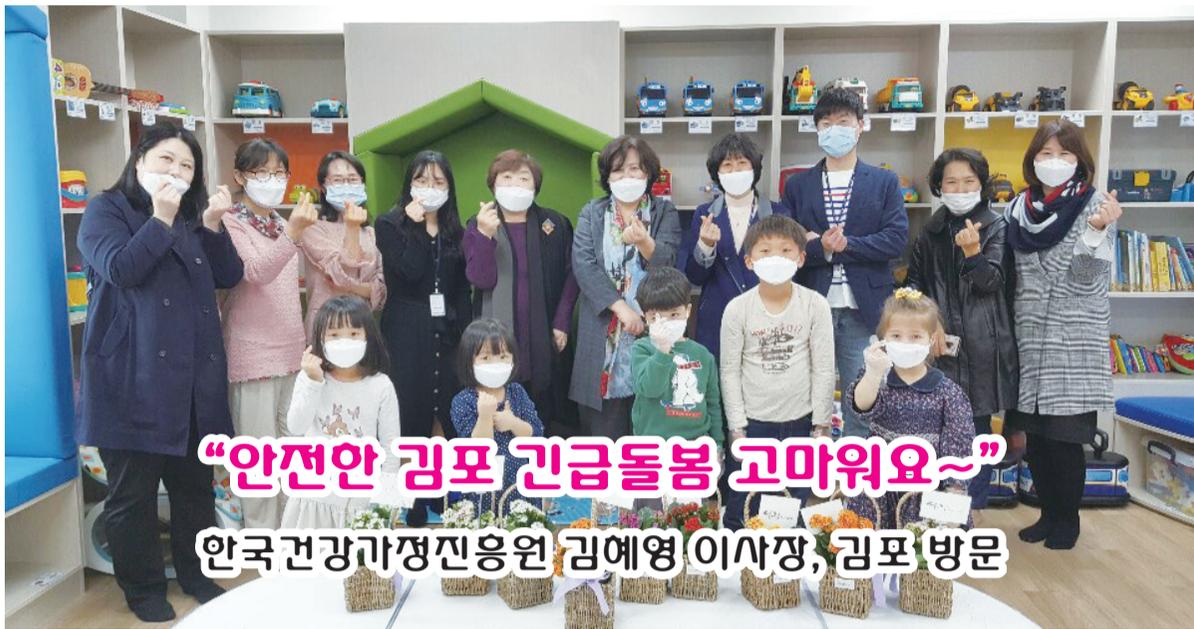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целях заблокировать приток коронавируса 19 из-за рубежа,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органами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ведут наблюдение за иностранцами и в случае не соблюдения условий самоизоляции дома (спе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инимают строгие меры наказания от отказа на въезд и вплоть д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выселения или депортация.

Чиновник из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сказал: «Причиной недрения таких мер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прибывшие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не соблюдают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самоизоляции, даже ходят по улицам без масок и это влияет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19, являясь угроз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инятие мер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 были необходимы.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амоизолироваться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не должны покидать место карантина и исправно соблюдать условия. За выполнением условий проследивают как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 и работник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бязательно соблюдайте условия самоизоляции, не покидайте место изоляции, придерживайтесь ограничений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указанном в уведомлении".

Он ещё раз призвал к соблюдению условий и к осторожности.

〈한글 기사 16면〉

장울가 기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장의 돌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를 방문했다.

센터내 공동육아나눔터 현장을 방문한 김 이사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긴급 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모니터링하고 휴관 권고 중임에도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영 이사장은 이날 ▲코로나 19 대응 긴급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라운딩 ▲코로나19 대응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상황보고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중인 아동들과 함께 꽃바구니와 감사카드를 이용한 ‘가족화분 꽃바구니 만들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현황보고에서 김연화 센터장은 3월말 현재 실적을 보고(실인원 6인, 연인원 50명)하고 2명의 돌봄인력 외에 기존 센터인력 TFT 결성을 통한 통번역, 부모상담, 언어치료 등의 사업을 보고했다.

김 센터장은 “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구비하고 긴급돌봄 참여 아동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자 인터뷰 영상보고를 받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복정 본부장은 “실제 부모님을 뵈고 감사 인사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혜영 이사장은 “휴관기간에 전 직원이 나서서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며 “가족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 및 돌봄인력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관리·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68개소(3월말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김포 다양한 가족에 후원물품 전달 김포 맘카페, 김포건가다가에 후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와 썬키리온(대표 최상아), 이마트 김포한강점은 지난 4월 13일 교육어플 ‘키리콘’ 이용권 및 생필품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은 지난 3월 4일에 진행된 맘카페 ‘김포맘 한아름’과 김포건가다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썬키리온은 회원 55,000여 명의 맘카페 ‘김포맘 한아름’을 근간으로 설립된 어린이 학습 콘텐츠 개발 기업이다. 이번 기탁으로 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취약위기 계층 어린이 30명이 3개월간 무료로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기탁식에는 썬키리온 외에 이마트 김포한강점 조명식 지원팀장도 함께 했다. 이마트 김포한강점은 햄, 라면, 아동용 마스크 등 60만원 상당을 기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포맘 한아름은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기타 필요한 홍보와 관련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으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맘카페 회원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마트 김포한강점 역시 김포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물품 제공과 문화센터 프로그램 연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现在开始, 3个月内在线申请京畿道的灾害基本收入

4月9日, 京畿道的灾害基本收入在线申请开始。这是为了克服Corona 19陷入的经济危机。截至2020年3月23日, 不论收入和年龄, 均向京畿道所有居民支付人均100,000韩元。未掌握韩国国籍的京畿道外国人难以掌握现状而被排除在外。

另外, 这种灾害基本收入应用程序通过多样化的归档方法来吸引人们的注意, 以最大程度地减少接触并防止由于社会距离而引起的感染。

首先, 有两种方法: 使用个人信用卡和京畿道地方货币卡进行在线申请, 以及通过离线申请发行新的预付卡。

从5月中旬开始, 预计将为无法直接申请的老年人和残疾人等弱势群体提供接待服务。通过拯救小企业主和

小企业主, 基本的基本灾难有望在经济中发挥作用, 从而使任何人都不会离开申请程序。

京畿道灾害基本收入在线申请时间为4月9日至30日, 可以访问京畿道灾害基本收入专用页面 <http://basicincome.gg.go.kr/>。您必须使用卡号和手机号进行身份验证过程。未成年人可以代表父母中的住户或住户的配偶申请。

对于访问申请, 申请时间从4月20日到7月31日相对宽松, 但是为了最大程度地减少行政瘫痪, 将家庭成员人数和社会保险号划分为出生的最后一年以实施星期几制度。

那些希望申请的人可以在适用的日期和星期几带上身份证, 并访问指定的行政福利中心和附近的农吉银行。4

月20日至5月17日生效的周日系统, 地区行政福利中心在工作日的凌晨20点至凌晨20点以及周末和节假日的18:00营业。

申请完成后, 将从卡公司发送说明文本, 自收到消息之日起3个月内或直到8月31日为止的未使用金额将在此期限内收集。注册或已发行卡的付款会自动扣除, 您可以在年销售额低于10亿韩元的商店中付款, 但不包括地址所在城市的百货商店, 大型超市, 娱乐场所和私营企业。但是, 在传统市场的情况下, 营业额超过10亿韩元的企业也有可能。有关在哪里使用它的更准确的信息, 您可以在京畿道地区货币网站 <http://www.gmoney.or.kr/>上搜索附近的当地货币商人。〈한글 기사 29면〉 왕그나 기자

Проверьте сообщени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упонов общей суммой в 400.000 вон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13) выдаёт «купоны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 размере 400.000 вон на каждого из 2,3 миллиона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7 лет.

Кому положены купоны :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я, получившие пособие на ребёнка в марте, а так же являющийся опекуно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купоны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 размере 400.000 вон на ребёнка.

Купоны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на кредитные карты 8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таких как Нонгхёп, Лотте, БС, Самсунг, Шинхан, Ури, Хана и КБ Кукмин.

Купоны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подерживаются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и выплачиваются в 197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ункт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в виде бумажного подароч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или электронных денег в остальных 32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явил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ыстро и оператив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купоны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срочном порядке была оглашена информация, в итоге была подтвержд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емьях, а так же карточках субъек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мпания, выпускающая карт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ланируют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льзователям инструкции и по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 помощью текстовых сообщений ».

В случае потери карты, на которую будет начислен бонус, заявив в обслуживающую организацию о повторном получении карты, вы можете пользоваться бонусом после её получения.

В период осведомления около 50.000 человек из-з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данных карты, или п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не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13 числа. Им до 14 числа включительно были посланы сообщения, содержащ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том, что с 9 утра 16 числа и до 6 часов вечера 20 числа, посетив центры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или рай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выбрав желаемую карту планир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до 23 числа предоставить бонусы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 то же время, у 80 000 опекунов нет "Аихэнгбоккады" или "Кукминхэнгбокады", им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Сонбулькады Гифтыкады" в центрах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или районах управления, и до начала мая планируется отправить "Гифтыкады". Гифтыкады с начисленным бонусом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это карта предоплаты, и при повторном её получении (в случае утери) остаточный бонус на ней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Купоны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можно свобод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столичном городе или провинции, по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ребёнка. Диапазон использования шире, чем у существующих бумажных подароч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аждом отдельн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В случае переезда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переезд в райо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и со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изменив район, использовать остаточный бонус.

Использовать бонус можно в большинств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екоторы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крупных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интернет магазинах и т.д. в большинстве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где возможен расчёт обычной кредитной картой : на рынке, в ближайшем магазине, заправке, больнице, общепите, книжном магазине и т.д.

Используя бонус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остаток бонуса в центре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и на веб-сайте (домашняя страница) компании, обслуживающей карту.

Используя бонус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остаток бонуса в центре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и на веб-сайте (домашняя страница) компании, обслуживающей карту.

Используя бонус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остаток бонуса в центре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и на веб-сайте (домашняя страница) компании, обслуживающей карту.

Используя бонус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остаток бонуса в центре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и на веб-сайте (домашняя страница) компании, обслуживающей карту.

Используя бонус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остаток бонуса в центре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и на веб-сайте (домашняя страница) компании, обслуживающей карту.

<한글 기사 36면>

장울가 기자

입국주기별 정보제공

다국어 6개 국어 확대

너의 폰에 마이지뉴스를 다운로드 받아줘

경기다문화뉴스 앱 '마이지뉴스' 개발!!!

다운로드 방법

step.01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2 애플 - 앱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3 검색 결과 확인 후 설치를 누르고 편리하게 어플을 사용한다.

경기다문화뉴스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생활 정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마이지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경기다문화뉴스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읽어보세요. 더 많은 한국 사회와 복지, 생활, 취업, 교육,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번역기사도 많아요.^^ 경기다문화뉴스 홈페이지 www.danews.kr 도 방문해 주는 센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다문화뉴스 031-8001-0211로 문의하세요 *

입국주기별 정보제공

다국어 6개 국어 확대

너의 폰에 마이지뉴스를 다운로드 받아줘

경기다문화뉴스 앱 '마이지뉴스' 개발!!!

다운로드 방법

step.01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2 애플 - 앱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3 검색 결과 확인 후 설치를 누르고 편리하게 어플을 사용한다.

경기다문화뉴스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생활 정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마이지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경기다문화뉴스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읽어보세요. 더 많은 한국 사회와 복지, 생활, 취업, 교육,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번역기사도 많아요.^^ 경기다문화뉴스 홈페이지 www.danews.kr 도 방문해 주는 센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다문화뉴스 031-8001-0211로 문의하세요 *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역량강화 지원’

김포건가다가, ‘상담사 수퍼비전& 보수교육’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2020~2022, 3개년 연속으로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상위성적 3개 기관으로 선정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직무역량강화 지원금을 받게 됐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4명의 자문상담사와 2명의 직원 등 총 6명의 상담사가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가사상담위원으로 매월 10일 김포시법원에서 활동 중이다.

이혼전후상담에 있어 그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 4월 3일 센터의 상담 관련 종사자들 대상으로

수퍼비전과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에는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정운 교수가 강의를 맡아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수퍼비전 시간에는 다문화노인상담 사례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노인에 대한 상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오후 1시에는 “이혼전후상담을 위한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보수교육이 진행됐다. 이혼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이혼의 영향 등 가족과정으로서의 이혼에 대해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상담사는 “현재 부부의 관점과 선택에 대한 건강한 책임에 대해 알게 됐으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혼전후 상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연령차이가 있어 생애주기가 서로 다르고 발달과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부간 생활문화, 경험차이, 원가족과의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상담이 많아져 개인 및 가족상담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휴관에도 긴급상담 요청이 있으면 전화상담과 통역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김포시 가족들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공항과 가까운 김포에 설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김포에 있는 ‘라마다양코르 김포호텔’을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고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정부합동지원단 단장(복지부서기관)은 10일 오후 해당 읍의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부합동지원단장은 “어제 확진자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철저히 격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입국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 입소자는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격리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과 가깝고 민간주택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자연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곳을 지정하게 됐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미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호텔은 경찰과 군인들이 경비해 입실자는 객실 밖으로 나올 수 없고 14일간 격리 후 증상이 없으면 퇴실하게 된다.

한편 정 시장은 중대본의 결정을 통보받은 9일 오후 즉시 통장단 등 주민대표들과 긴급 반성회를 갖고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Bộ Tư pháp thi hành ‘Hạn chế phạm vi hoạt động’ của tất cả người dâ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Giữa làn sóng cách ly 2 tuần đối với các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ũng như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này, mới đây nhất Bộ Tư pháp còn thi hành luật ‘Hạn chế phạm vi hoạt động’ của tất cả các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Bộ Tư pháp cho biết vào ngày 3 họ đã thực hiện biện pháp ‘Hạn chế phạm vi hoạt động’ của tất cả các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hiếu theo điều 22 của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Giới hạn phạm vi hoạt động được hiểu theo nghĩa là mệnh lệnh hành chính quy định phạm vi hoạt động hoặc hạn chế nơi ở cũng như phạm vi hoạt động khác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khi được công nhận là cần thiết cho trật tự an toàn công cộng quan trọng của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vi phạm điều 94 của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sẽ có thể bị phạt tù dưới 3 năm hoặc phạt tiền dưới 20 triệu won

Bộ Tư pháp đã ban hành “Thông báo giới hạn phạm vi hoạt động” của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quy định về hạn chế cư trú,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sinh hoạt trong

trường hợp cách ly và bất lợi pháp lý do vi phạm trong giai đoạn thẩm định nhập cảnh đối với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kể từ ngày 1 vừa qua. Cho đến nay, điều 22 của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hưa từng được áp dụng, nhưng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được thực hiện để phòng ngừa các bệnh truyền nhiễm đến từ nước ngoài.

Bộ Tư pháp giải thích rằng nếu hành vi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công nhận rằng có thể đe dọa đến sự an toàn công cộng, ngoài hình phạt theo luật Kiểm dịch hoặc các biện pháp dự phòng bệnh truyền nhiễm, họ có thể bị xử phạt hình sự, ví dụ như tù giam hoặc phạt tiền.

Mặt khác, chính phủ đã thực hiện biện pháp cách ly tự thân (hoặc cơ sở) trong hai tuần đối với tất cả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từ nước ngoài (bao gồm cả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để ngăn chặn sự xâm nhập của virus Corona 19. Theo đó,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dài hạn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ự cách ly trong 14 ngày,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ngắn hạn cách ly cơ sở trong 14 ngày và tự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chịu các chi phí cần thiết cho việc

cách ly này. Bộ Tư pháp đã đưa 8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ngắn hạn tại Hàn quốc mà không tuân thủ các biện pháp này của Chính phủ và từ chối cách ly. Mặc dù họ đã được hướng dẫn trước là đối tượng phải được cách ly từ giai đoạn ngay tại địa phương, nhưng họ đã không tuân theo các biện pháp của chính phủ như từ chối cách ly, vì vậy họ đã được thông báo rằng việc nhập cảnh là đã được kiểm dịch

Bộ Tư pháp dự kiến sẽ hợp tác chặt chẽ với các cơ quan phòng dịch để đối phó với sự lan rộng của Corona 19 do nhập cảnh từ nước ngoài và sẽ xử lý mạnh mẽ, nghiêm khắc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phép nhập cảnh hoặc vi phạm các quy định hành chính đã được đặt ra.

Một quan chức của Bộ Tư pháp cho biết: “Việc thực hiện biện pháp này là do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gần đây không tuân thủ các biện pháp tự kiểm dịch và không đeo khẩu trang y tế ngăn ngừa dịch, vì vậy để ngăn chặn sự lan rộng của Corona 19 và an toàn công cộng,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đã được Bộ và Chính phủ đặt ra”.

〈한글 기사 16면〉

강혜나 기자

과천시, 코로나19 방지 총동원

다중이용시설 등 408곳에 체온계 배부



과천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야외 시설 12곳에 손소독제 테이블을 비치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산책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시민이 많이 찾는 야외 장소에 손소독제 테이블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손소독제가 비치된 장소를 수시 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손소독제가 비치된 곳은 관문체육공원,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문원체육공원, 관악산, 청계산의 진출입로와 양재천 자전거길 입구, 문원청계마을 놀이터 등 12곳이다.

또한 지난 4월 8일 과천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여 수시로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는 경기도

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중 4천5백여만원을 들여 비접촉식 체온계 460개를 구입했으며 각 부서를 통해 배포 장소 및 수량을 파악하여 취합했다. 현재까지 체온계가 배포된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과 학원, 경로당, PC방과 노래방 등 총 408곳이다. 비접촉식 체온계는 기기를 신체에 대지 않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체온 측정이 가능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체온계를 비치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시에서도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소독약과 소독용품을 배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에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승강기에 항균 필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항균 필름을 구매해 관내 공동주택단지, 상업용 빌딩 등에 배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지는 기자

안심숙소, 해외입국자 가족감염 막아

과천시 안양소재 호텔 4곳과 업무협약 맺어



과천시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지난 4월 10일 밝혔다. 과천시 안심숙소는 입국자가 자택에 혼자 머무르며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격리자의 가족은 호텔에서 지냄으로써 입국자와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과천시는 입국자와 가족 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공간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안심숙소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4월 10일 과천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 소재의 삼원프라자호텔, 센트럴관광호텔, 어반부띠크호텔, 이루어호텔 등

4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과천시 관내에는 단독건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안양시 소재의 호텔과 협약을 맺게 됐다.

과천시와 호텔 간 업무협약에 따라 이용을 원하는 입국자의 가족은 정상가에서 50~64% 할인된 6~8만원 대의 가격으로 해당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해외입국자의 가족은 입국자와 접촉하기 전에 전화로 예약한 뒤 호텔을 방문하고 호텔 방문시 입국자의 전자항공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호텔에 제시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안심숙소 운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입국자와 가족 여러분께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심숙소 운영에 참여해주신 각 호텔에도 감사드린다. 과천시는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안내

소중한 우리, 행복한 성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강의
대상 : 초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성인(관공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의용소방대 지역사회안전팀, 기업 등)
진행기간 : 5월~11월
소요시간 : 40분~50분(신청기관에 따라 조율)
내용 :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희롱,데이트 및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등
신청 시 주의사항 : 교육이 1교시 이상(다회기)일 경우 반드시 세부일정 기재



성폭력 예방 인형극
대상 : 4세 이상~초등학교 1학년
진행기간 : 5월~11월 수, 금
소요시간 : 약 30분
내용 : 유괴 및 성폭력 상황 대처 및 예방 인형극
신청 시 주의사항 : 매주 수, 금요일 9시부터 12시까지만 신청 가능



성교육 체험버스
대상 : 초등학교~중학교 3학년
진행기간 : 9월 2일~11월 수, 목, 금 (사전 일정 조율 필수)
소요시간 : 한 학급당 40~50분
내용 : 45인승 체험 버스 내에서 성교육 및 태도체험, 아기 안아보기 체험 등
신청 시 주의사항 : 최대 탈 수 있는 인원수 20명(20명 이상은 분반), 45인승 버스 주차 공간 및 전기 필요, 3교시(10시 40분)부터 지원 가능.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

13일부터 접수...단계별 과정으로 개설

과천시는 지난 13일부터 ‘2020 피어나 과천 세상! 과천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75명을 모집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될 경우 교육 일정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과천시에서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창업의 초기 단계인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및 사업성 검토까지 창업 전반의 내용을 단계별로 다룬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특성화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과정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아이템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적 마케팅 등 설립과 운영 실무에 대한 교육이, 특성화과정은 여성 창업을 목표로 과천형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시민화관 세미나실 1에서 운영된다. 과정별로 개강 일자와 수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와 스마트폰 앱 ‘과천마당’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이지는 기자

안양은 온라인 한국어교실로 안 발 앞서가요

안양건가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한국어교실 열어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실을 개강,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 교실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이주민들의 출석 수업이 어렵게 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2일 개강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자, 발 빠르게 웹캠 등 장비를 구입하고, 온라인 수업이 생소한 강사들의 사전연습을 지원했다.

개강 전 레벨테스트도 온라인으로 진행해 기초반, 초급반, 야간반 등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10개 반도 편성했다. 이번에 한국어 교육 수강을 신청한 124명은 베트남, 중국, 태국 등 국적이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터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강의를 화상교육콘텐츠 줌(Zoom)을 활용해 가정용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집에서 수강하고 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베트남어, 중국어 원어민 보조강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온라인 강의 출석률은 76%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석률 72%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인 A씨(26세·동안구)는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친구들도 보고 싶었는데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센터는 '슬기로운 한국생활'이란 테마와 함께 동영상으로 1편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2편 '병원' 3편 '장보기' 등을 제작, 유튜브를 통해 외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개인 및 부부, 가족 상담을 주로 한다.

결혼 생활 중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거나 아이를 양육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 아이의 발달 단계별 교육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언제나 할 수 있으며 면접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안양시립도서관, 온라인 도서전 다문화가족도 독서로 위안 얻어요

안양시가 시립공공도서관 휴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도서제공 서비스를 잇따라 시행하며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임시휴관 중인 관계로 sns를 통해 도서정보를 서비스 하는 온라인 도서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서전 서비스는 두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안양시 사서들이 매월 제공하던 서평(書評) 서비스인 '독서정보소식지'를 카드뉴스 형태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기존 A4 1페이지 분량 이었던 독서정보소식지 원고를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된다. 또 하나 주제는 '마음방역 북큐레이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에 위안이 돼 줄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하는 것이다.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안겨주고 위로와 격려가 돼주며, 긍정의 마음과 유쾌함이 묻어있는 도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내용의 책도 '마음방역 북큐레이션'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도서전은 안양시립도서관 인스타그램(@anyanglib)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4월 한 달 동안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안양시립도서관은 안심도서대출서비스, 어린이책 전집 대출 서비스인 '북수레', 전자책 단말기 대출서비스 등 다양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극복하기,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안양시 프로그램

다문화가족도 눈여겨 봐요 '스마트패드 지원,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



취약계층에 스마트패드 지원한다.

온라인개학으로 학기를 맞는 취약계층 자녀 176명이 스마트패드를 지급받는다.

안양시는 최근 GS파워(주)(회장 조효제)가 기부한 코로나19 극복 성금 5천만 원을 가정위탁아동과 조손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에게 지원할 스마트패드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10일 밝혔다.

GS파워(주)는 안양관내 소재한 대기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3백여 명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과 회사재원으로 마련됐다. 안양시는 각 학교의 온라인개학으로 온라인학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스마트패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금으로 구매한 스마트패드는 오는 17일 취약계층 176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새 컴퓨터를 받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GS파워(주)가 기탁한 성금은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시설과 피해가정 지원에도 쓰인다.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

안양시가 드라이브스루의 비대면 접촉방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안양시청사앞 광장, 드라이브스루로 장난감을 대여해가려는 차량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각 각 들어서고 있다.(사진 첨부)

안양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영유아들의 정서를 달래고,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드라이브스루로 장난감대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가 장난감대여소로 운영하는 '장난감나라'역시 지난 2월 24일부터 휴관중이다. 등록회원제로 운영되는 '장난감나라'는 어린이도서관 3층과 만안구청별관1층 두 곳에 있으며, 2천7백여 점의 장난감이 소장돼 있다.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는 안양시청과 만안평생교육센터 2곳에서 진행됐다. 1인당 2점까지 대여되며, 기간은 14일 이내이다.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는 홈페이지(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www.aycteducare.go.kr)에서 예약, 정해진 시간에 자동차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대여 및 반납되는 장난감은 철저한 소독도 이뤄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 3개월 이내 사용

4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 방법을 다양화해 눈길을 끈다.

먼저 개인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5월 중순부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 경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신청 과정에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전용 페이지 (<http://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의 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 중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비교적 넉넉하나, 행정 업무 마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로 구분해 요일제를 시행한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날짜 및 요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근처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는 요일제를 시행하는 4월 20일부터 5월 17일 동안 평일 20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접수 카운터를 운영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사로부터 사용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이후 회수된다.

등록 혹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형식이며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더욱 정확한 사용처 정보를 원한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http://www.gmoney.or.kr/>)에서 인근 지역화폐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4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2/4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쳐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3/4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4/4

2020.02.20.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여행 후 발열과 기침 때문에 코로나19가 의심되시나요?
그럴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하세요.

질병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모든 감염병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3/8

2020.02.20. 질병관리본부 KCDC

주요 감염병 상담부터 질병관리본부 업무 민원 상담까지!



감염병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 다 질문해도 되나요?

0. 어떤 것을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및 주요 감염병(메르스 등) 상담·조치사항 안내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 법정 감염병 정보 및 예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된 민원 상담 및 담당자 연결

4/8

2020.02.20. 질병관리본부 KCDC

365일 24시간 국내-해외 모두 상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중국 방문 후 발열과 기침이 나오는데 혹시 저도 코로나19 일까요?

0. 업무시간은요.? 외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경우 상담 가능한 번호 알려주시면 추후 연락드립니다.
해외에서는 +82-2-2663-1339번과 +82-2-2163-5945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5/8

2020.02.20. 질병관리본부 KCDC

If you are a foreigner even, don't worry. Please call at 1339 Call center!



Can I ask you something?

0. 외국인도 이용 가능할까요?

1339를 통한 중국인 등 외국인 상담은 1330(한국관광공사), 1345(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과 3시간 통역 서비스 지원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30 상담 가능 시간 24시간(연중무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08시 ~ 19시 | 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1345 상담 가능 시간 24시간(연중무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09시 ~ 18시(평일) |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외 13개 언어

6/8

코로나19 사태에도 다문화가족 지원 노력 변함없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빅마마 선발 및 언어발달 비대면 교육



우리동네 빅마마 선발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2020년 우리동네, 빅마마'의 화성시 전 권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 3기 돌봄 활동가를 선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빅마마는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발굴하고 생활지도와 돌봄을 진행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서적으로도 큰 지지를 하는 역할이어서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빅마마의 선발과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 마인드가 투철하고 다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주 15시간 이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남양읍, 송산면, 비봉면, 봉담읍, 향남읍에서 활동할 4명을 선발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6월부터 12월 14일까지이다.

접수기간은 17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등이 가능하다. 센터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키트 우편발송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언어발달 교육 대상자에게 비대면 간접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센터가 우편발송하는 언어발달 교육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센터 휴관기간 중 가정에서 모자간 부모상호작용을 도모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자극을 줄 수 있도록 간접지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된 유튜브, 블로그 등을 전달하여 코로나19 안전지침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 측은 유선전화 및 SNS를 이용한 언어발달대상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계획이다.

키트에는 개구리알, 아트 풍선, 셀로판지, 스크래치페이퍼, 자체제작 활동지침서 등의 활동과 놀이, 교육내용이 담겨 있다.

송하성 기자

임신부에 마스크 지급 다문화가족 임신부도!

화성시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의 감염 예방을 위해 1인당 KF 마스크 5매를 무상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분만예정일이 2020년 3월30일 이후인 임신부로 화성시보건소 기 등록된 3289명과 4월 이후 신규 등록 임신부이다. 화성시는 신규 등록 예상인원을 약 4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마스크 4만 매를 준비했으며 물량 소진 시까지 배부할 방침이다. 임신부 등록은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화성시보건소 또는 도시형 보건지소(동탄보건지소 제외)로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된 임신부에게는 우편으로 신규 등록 임신부에게는 현장에서 즉시 배부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상 마스크를 지원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Mỗi trẻ em sẽ được nhận coupon chăm sóc 400,000 won "Hãy kiểm tra tin nhắn đi ạ."

Bộ Y tế và Phúc lợi sẽ cung cấp 'Coupon chăm sóc trẻ em' (ngày 13) cho 2,3 triệu trẻ em dưới 7 tuổi trên toàn quốc. Đối tượng chi trả là những người bảo hộ trẻ em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rẻ em được nhận trợ cấp cho trẻ vào tháng 3, họ sẽ được nhận coupon chăm sóc giảm giá cho trẻ em là 400,000won/trẻ em.

Coupon này sẽ được cấp dưới dạng thẻ tín dụng thông qua 8 ngân hàng đó chính là Nonghyup, Lotte, BC, Samsung, Shinhan, Woori, Hana, KB Kookmin. Sau khi nhận được thẻ, người dùng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ngay. Phiếu coupon chăm sóc trẻ em được chính phủ hỗ trợ toàn bộ lần này sẽ được thanh toán bằng phiếu quà tặng hoặc tiền địa phương trên tổng số 197 quận thành phố trên toàn quốc.

Bộ Y tế và Phúc lợi cho biết: "Chúng tôi đã thực hiện thời gian hướng dẫn khẩn cấp trong một tuần qua để cung cấp các điểm chăm sóc phiếu giảm giá trẻ em, thông qua đó chúng tôi đã xác nhận thông tin gia đình

và thẻ của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trợ cấp. Chúng tôi có kế hoạch lần lượt hướng dẫn cách sử dụng thẻ và bộ phúc lợi Y tế". Nếu bạn bị mất thẻ coupon chăm sóc dành cho trẻ em, bạn có thể nhận lại thẻ từ công ty thẻ và sử dụng một cách bình thường.

Có đến khoảng 50,000 người đã không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vào ngày 13 vì họ cần phải thêm thông tin thẻ hoặc một số các thông tin bổ sung khác trong thời gian hướng dẫn. Họ sẽ được thông báo thông qua tin nhắn cá nhân cho đến ngày 14, chọn thẻ mà họ muốn sử dụng tại trung tâm phúc lợi xã hội từ 9 giờ sáng đến 6 giờ chiều ngày 20, họ sẽ được cung cấp thêm coupon chăm sóc vào khoảng ngày 23.

Mặt khác, đối với khoảng 80.000 người bảo hộ cần đăng ký thẻ Gift vì họ không có thẻ Hạnh phúc công dân, họ đang tiếp tục nhận đơn đăng ký từ trung tâm phúc lợi xã hội và dự định sẽ có thể nhận được thẻ Gift vào đầu tháng 5 tới đây.

Thẻ coupon chăm sóc trẻ em được thanh toán bằng

thẻ trả trước có thể được cấp lại nếu có điểm chăm sóc ngay cả khi bị mất.

Phiếu chăm sóc trẻ em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ự do ở thành phố hoặc tỉnh nơi trẻ em đang sinh sống. Phạm vi sử dụng rộng hơn so với phiếu quà tặng giấy hiện có là chỉ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heo đơn vị thành phố. Trường hợp chuyển nhà, nếu bạn đăng ký chuyển địa chỉ tại ủy ban nhân dân, bạn có thể thay đổi khu vực sử dụng từ tháng sau đó và sử dụng điểm coupon còn lại trong thẻ.

Nơi sử dụng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ại hầu hết các cửa hàng liên kết như chợ truyền thống, siêu thị, trạm xăng, bệnh viện, nhà hàng và hiệu sách, ngoại trừ một số siêu thị lớn, cửa hàng giải trí và trung tâm mua sắm trực tuyến. Khi sử dụng điểm chăm sóc, người sử dụng có thể nhận được hướng dẫn tin nhắn và có thể xác nhận điểm còn lại trong thẻ tại trung tâm hỗ trợ khách hàng của công ty thẻ tương ứng và trang chủ của công ty thẻ. <한글 기사 36면> 강혜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화성시, 경기도와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동시 접수, 총 30만원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와 동시에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하면 총 30만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7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 기간 내 출생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방법·시기도 경기도와 동일하다.

행복화성지역화폐나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9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www.basicincome.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 후 인적정보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지만, 주민등록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충전식으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을 자동 차감해 준다.

온라인 미신청자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을 방문해 신청 후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대표로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별도 위임장 제출은 없지만,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구분해 받는데, △1주차(4.20~4.26.)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에는 1인 가구 및 미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년 끝자리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했다. 4인 가구고 생년 끝자리가 9일인 시민은 4월 23일에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수, 출생연도 구분없이 모두가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모두 신청 후 1~2일 이내 승인 문자를 받고나서 사용이 가능하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8월 31일에는 일괄로 사용이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사용처는 화성시에 소재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이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서철모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동시에 신청,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내에 따라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소득상실 위기가구에는 5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모두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지원된다.

송하성 기자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어려운 용어 총 정리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 발열(37.5도)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발생

2 비말감염

환자의 비말 입자에 실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비말**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

3 선별진료소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출입 전 진료 받는 공간

4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5 30일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사증없이 중국 등 외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4.화)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6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조치중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 가도 될까?

심장질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도 될까?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오세요!

‘국민안심병원’이란 무엇인가요?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 운영

비호흡기 환자 진료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 (호흡기 전용 외래)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실시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음

*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 차단
**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장갑 사용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미만 18세(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소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내용 2020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 추가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월 5.41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

신고대상 소득재산 축소신고, 동거 및 위장입금 등 사실과 관계,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 자

신고방법 보건복지부 복지포털(www.bokjiro.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ic.go.kr), 행정포털(www.cbeen.go.kr)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또는 통합조사팀

신고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포털 부정수급 신고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조치사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음

양육·돌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미만 20세 또는 부모의 나이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월 20만원)

지원내용 2020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중위소득 72%	2,154,226	2,786,815	3,419,405	4,061,99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급지연금지수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학비비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심비(최대 500만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2,902,933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시·군·구·청·복지 신청센터 (☎129)

(☎129) 위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2020.3.23. ~ 7.31.)
① 재산의 급증(과다)을 방지
② 재산상실 시 일가족 추가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기준 산출
③ 생활보조금 공제비율 현행 65%에서 100% 확대
④ 지원액수 제한 폐지
⑤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⑥ 개별 가구의 경제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대상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거주 가구

지원내용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지원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신청문의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업무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양육·돌봄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在)미혼모 부자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친구 거점기관 안내)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10	강원	재단법인 차천목주머니회	033-264-3655
2	서울	내우리한부모가족센터	02-704-4750	11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1577-3063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12	충남	천안시간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4	대구	대구시여성가족재단	053-355-8042	13	전남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182
5	인천	인천시여성가족재단	032-569-1546	14	전남	여수시간강가정 지원센터	061-659-4171
6	광주	광주남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4204-6314	15	경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975-0831
7	대전	대전시간강가정지원센터	042-032-9931	16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55-243-0233
8	울산	울무래복지재단	052-229-3481	17	제주	제주시간강가정지원센터	064-725-8005
9	경기	안산시간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신청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급

신청문의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신청센터 (☎129)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임신, 실업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 신청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양육·돌봄

가족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 긴급유기가족 등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유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신청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감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지원내용 (감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당백설탕 및 의료비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감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1개의 보청기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양육·돌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내용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초태반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무유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합 이동·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0~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까지 아동)

지원내용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최대 84개월 간 지급)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및 병과 후 과정비 지원
※ 사업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00,000원 추가 학비 지원
(2020년 지원금액, 1.부터 적용)

과정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60,000	240,000
병과후과정 지원금	50,000	70,000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양육·돌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수선순위(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 법정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체원 미충족 아동의 형제·자매 등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4~47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보육료) 기본보육(09:00-16:00)기준

연령	급액
만 0세	470,000
만 1세	414,000
만 2세	343,000
만 3세	240,000
만 4세	240,000
만 5세	240,000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된 보육시간(07:30-19:30)을 관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당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20년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제도가 개편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시행됩니다.(0-2세 미만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필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과 포함)·총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연령 2개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지원내용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급액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간제 보육료 : 분당별당 1,000원, 상한액당 3,000원 ※ 단, 아이행복카드로 결제시)

양육·돌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임신부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필경한부모(조손가족 포함) 가정 등

지원내용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아동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확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동관리보장원 (www.dreamstart.go.kr, ☎02-6283-026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영양제 제공 : 만 3~36개월 이하 아동에게 미유사, 젤리젤리,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양제와 관련된 활동 지원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 하원(교)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시간제(시간당 9,890원)		영아돌봄제 (월 197,890원, 20시간/주)	
		취학전	취학후	0~2세	0~2세
가정	75% 이하 (356,2만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8,407원 (85%)	1,483원 (15%)	7,418원 (75%)	2,472원 (25%)
내방	120% 이하 (569,9만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대형	150% 이하 (712,4만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리형	150% 초과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	9,890원	-	197,890원

신청문의 [장부 지원 가정]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장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 (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생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양육·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조손가정 등으로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지원(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예술풍류, 공연), 지역연계(인간·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신청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원대상 2002. 1. 1. ~ 2009. 12. 31. 사이 출생한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1,000원, 연 최대 132,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2020년에 생선된 바우처 포인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사용 방법)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G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네트웍, 삼성카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부초
롯데카드	올마켓쇼핑몰	롯데마트, VIC마켓, 농협하나로마트

신청문의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322)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서비스 비용 : 24시간(월 348,000원), 27시간(월 391,500원)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양육·돌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안·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신청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 취학 전 또는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매체,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조)부모 및 자녀

지원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및 도서·매체, 프로그램 운영, 돌봄공약이 지원됨

신청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지원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도서·매체·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생활활동 프로그램 매월 1개 이상 제공
음악활동기, 책놀이, 간놀이, 생활영어, 생활체육, 창의미술, 악기연주 등

개인활동 프로그램 :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급·간식 : 학생의 연령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급·간식 및 일부 프로그램에는 수유차 부담

신청문의 자녀 재학(인학 예정)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司法部对所有外国居民实施“有限行动范围”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

从本月1日起,强制要求从海外进入的国内和外国公民两周的隔离,司法部对所有进入韩国的外国人采取了“有限行动范围”政策,作为后续措施。

司法部3日宣布,它正在根据《移民控制法》第22条的规定执行“有限行动范围”措施。

“有限行动范围”是司法部长的一项行政命令,旨在限制在大韩民国居住的外国人的居住或活动范围,或设定其他必要的合规事宜(如果认为对公共福祉秩序或大韩民国的重要利益而言是必要的)。根据《移民管制法》第94条,违反此规定的外国人将被判处不超过三年的监禁或不超过2000万韩元的罚款。

司法部发布了由司法部长颁发的“活动范围部”,该部规管住所限制,遵守孤立生活规则以及在移民阶段对所有外国人的移民在入境阶段违反法律的不利条件。

到目前为止,《移民控制法》第22条从未真正应用过,但这是防止传染病进入该国的第一个实施。

司法部除了根据《检疫法》或《传染病预防法》受到处罚外,还被视为对违反检疫措施的外国人的公共安全构成威胁,此外还根据《移民控制法》第11条和第46条强行退休或解雇移民。他解释说,甚至包括监禁和罚款在内的刑事处罚也是可能的。

同时,为了阻止科罗娜19病毒从国外流入,政府对自4月1日起从海外到达的所有人(本国人和外国人)实施了两周的独立或设施)隔离措施。

结果,国民和长期外国人可以自我隔离14天,短期外国人可以隔离14天,费用自负。

执法的第一天,司法部就拒绝了八名通过国内机场抵达的短期外国人,他们不按照政府的措施隔离检疫,却被拒绝入境并返回。

检疫部门通知他们,进入该国是不合适的,因为他们不遵守政府的措施,例如拒绝检疫,即使他们是在当地登机前就被告知检疫的。

司法部与检疫部门密切合作,积极应对由于海外流入而引起的科罗娜19的扩散,并采取了严格而严格的措施,例如拒绝入境,强行驱逐以及禁止拒绝或违反自己设施)隔离的外国人。

司法部一位官员说:“在执行这项措施之后,最近进入韩国的外国人不遵守检疫和检疫当局的自我隔离措施,并且在佩戴口罩的情况下进行外部活动。因此,据认为有必要采取行动限制活动范围。”“未经政府和地方政府首脑的许可,不得允许所有接受检疫的外国人未经许可离开检疫所。请小心。”

〈한글 기사 16면〉

왕그나 기자

외국인주민 마스크 사각지대 없다

확성외복, 외국인주민에 마스크 배부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가 공적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총 5,670매의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스크는 한국이주건강협회가 550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3,920매, 대한민국최고연선탄발중앙회가 1,200매를 후원했다.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약국에 방문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나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사소통이나 생활여건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은 현실적으로 구입이 어렵다.

이에, 센터는 5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외국인이 다수 모이는 발안, 조암, 남양시장에서 후원받은 마스크를 직접 배부했다.

노경신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나눔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주민의 건강보호권 확보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입국자, 안심숙소 운영

화성시는 가족 간의 코로나19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호텔 2곳을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입국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가족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다. 호텔은 확진자 부담없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화성시는 신라스테이동탄, 호텔푸르미르와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곳을 안심숙소로 지정했다. 협약에 따라 숙박료는 기존 대비 최대 77%까지 할인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입국확인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객실별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정 호텔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2020년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 부모-자녀 함께 이중언어로 소통하는 문화체험교실 대상자모집

일정	회수	시간	내용
미정 *추후공지 예정	1회	10:00~12:00	오리엔테이션
	2회		컵 받침 세트 만들기
	3회		한국전통 놀이
	4회		예쁜 머리핀 만들기
	5회		한국전통 놀이
	6회		एको백 만들기
	7회		풍선 아트
	8회		핸드폰 받침대
	9회		캔들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10회		보석십자수

- ★위 강의 내용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 장소: 유엔아이센터 4층 6 강의실
- ☺ 대상: ★만0-5세 둔 결혼이민자 선착순 10명(신규자 우선순위)
★6회기 이상 프로그램 참여해야 함
- ☺ 모집기간: 2020년 3월 26일~ 인원 마감시 까지
- ☺ 비용: 무료
- ☺ 신청방법: 방문/ 전화 031-267-8765
- ★신청자 6회 프로그램을 필수참여
- (프로그램 신청 후 무단결석 시 향후 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음)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화성 다문화가족의 성장, 다양한 이중언어교육과 함께 예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육 · 환경조성 · 문화체험 등 실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최근 이중언어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엄마인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피하고 자녀의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한국어와 엄마의 모국어에 함께 노출되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에서 다양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어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는 이유다.

이중언어교육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하도록 돕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언어 강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7-12세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엄마나라 말 교육을 통해 부모와 모국어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부모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개강은 하지 못했지만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레벨에 따라 교육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1개반 8명으로 6개반을 구성하며 학년별, 수준별로 편성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48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이 넓은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유엔아이센터 뿐만 아니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진행한다.

이중언어 환경조성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은 관내 0세~5세 영유아 자녀 둔 다문화가족 및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된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이중언어 작용을 돕기 위해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동요, 동화 등의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상호작용 코칭도 진행한다. 센터 교육실과 외부기관에서 진행된다.

이중언어 문화체험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중언어로 소통하는 문화체험교실도 운영한다.

만 0~5세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선착순 10명(신규자 우선순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다양한 만들기와 놀이 활동을 통해 영유아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컵 받침 세트 만들기 ▲한국전통 놀이 ▲예쁜 머리핀 만들기 ▲한국전통 놀이 ▲에코백 만들기 ▲풍선 아트 ▲핸드폰 받침대 ▲캔들 만들기/샌드위

치 만들기 ▲보석십자수 등의 활동에 10회기 참여할 예정이다.

이중언어 효과는?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을 줄이고, 이중언어 사용에 따른 자존감 향상 등 성장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면서 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자신 있게 모국어로 이야기하고, 이중언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게 됐다”, “한국어가 서툴러 시댁 식구와 아이들 앞에서 주눅 들었는데 이중언어 부모교육을 듣고 나니 전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낸다.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이 다문화가정 자녀는 물론 결혼이민자에게도 자존감을 높이고 좀 더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엄마나라 말과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이중언어 교육이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정지, 司法部从13日起暂时暂停外国人的“短期签证”

司法部和外交部同意暂时中止短期签证,以防止新的冠状病毒感染的蔓延。司法部9日宣布,将从13日的00:00(当前出发时间)起暂时中止短期签证的效力。

结果,在世界各地的所有韩国外交使团(使馆,领事馆等)向外国人发放的短期签证(在90天内停留)的有效期至最后5天被暂停。持有签证的外国人必须在使馆再次申请签证。但是,司法部决定不包括由国内公司邀请的,有资格从事短期就业(C-4)的签证和长期签证(就业,投资等),例如高级技术人员。

另外,已经进入韩国的短期外国人可以在入境后的逗留期限内(在韩国逗留)。此外,司法部正计划将签证豁免和免签证入境限制在已采取措施禁止进入韩国的国家和地区。随着限制措施的实施,暂免签证措施暂时适用于与韩

国达成免签协议的90个国家/地区,或已采取措施反对向本国人民移民的151个国家/地区。已停止。

暂时取消签证豁免的90个国家和地区的护照持有人必须从外交使团获得进入韩国的签证。

但是,外交和官方护照持有人,进入港口的飞机上的机组人员,入境口岸的海员以及持有APEC商务旅行证件的商人免收签证。此外,司法部决定提交由医疗机构签发的医疗证书,供外国人申请签证,以加强今后的签证筛选。

签证申请人必须在申请之日起48小时内提交医疗证明,并提交医疗证明,说明是否存在与晕晕相关的症状,例如测试历史和发烧,咳嗽,发冷,头痛,肌肉疼痛和肺炎。如果上述发现得到证实,签证发放可能会受到限制。

在收到签证申请后,外交使团决定进行充分的检查,

例如对健康状况的采访,以决定是否允许。

在特殊情况下,我们将为外交和公共目的,为诸如投资和技术提供之类的基本商业活动,为我们的人民的家庭,或出于紧急或人道主义原因的人迅速签发签证。

司法部计划,当航空公司试图在没有有效签证或签证的情况下进入日本时,通过“旅客提前身份识别系统(IPC)”自动阻止登机证的发行,航空公司和航空公司将在登机证发行阶段限制登机。

司法部的一位官员说:“我们计划通过有关部门(国土交通部,国土交通部)和地方出入境管理部门,将上述措施通知航空公司和轮船,并尽全力履行相关义务,例如检查我们是否持有签证。”

〈한글 기사 23면〉

왕그나 기자